달마 for Windows 95
사찰 종무 관리 프로그램
사찰 전산화의 선두 기업 아란타 (02)3142-0108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호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7월 2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184호

거리의 대학생들에게 배우자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를 도와 주세요"

토요일 오후 1시.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부산역 광장에 모여든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흰색 모금함, 대형 사진들은 광장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

잠시후 젊은이들은 광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모금 활동을 벌이는 한, 북한의 기아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설명하는 패로 각각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나눠 흘어진다.

지난해 4월부터 부산역 광장에서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볼 수 있는 이 광경의 주인공들은 바로 대불련 부산지부 회원들.

"처음에는 부산역 노숙자들의 대낮 술주정에 곤욕을 치루어야 했어요. 자신들은 굶고 있는데 왜 북한동포를 돕느냐는 것이죠. 심지어는 광장이 이수선하다며 사진을 빼앗고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던가! 부산지부 회



원들이 15개월간의 거리 모금으로 마련한 기금은 총 4천만원. 이 성금은 수차례에 걸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적십자로 전달됐다. 전달식때마다 회원들은 이같은 모금활동이 단순한 자선의 의미를 뛰어넘는 것임을 절감한다.

대불련 부산지부의 거리모금 활동은 북한 기아해소에 한 몫을 담당한 면도 있지만, 젊은 불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되짚어 생각할 계기도 됐기 때문이다.

중국의 연변시와 장백시를 직접 방문해 탈북자들에게서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굶주림의 실상을 생생하게 들으며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던 임혜진씨(부산지부장).

'저희도 매주 금요일 점심 한끼를 굶고 동포들의 배고픔을 걱정해요'라는 한마디에 '고맙다'며 흐느껴 울던 탈북자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임씨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스승이며 부처입니다"라며 "그래도 모금운동이 끝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 날은 북한의 어린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날이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모금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오종욱 기자(gobucou@buddhapia.com)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훼불방지 종교계 나서자"

종교인 평화회의 '종교화합 워크숍' 10월경 개최 검토

'국민정부 종교편향' 훼불만행 척결 법회' 8월8일 조계사서

훼불 및 종교편향 방지에 종교계 전체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종교편향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송강, 원혜스님)는 22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비상 전체대책회의를 열고 (가칭)종교화합 워크숍을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에 제안하여 공동으로 10월경 개최키로 했다.

종교편향대책위의 제안에 대해 종교인평화회의 변진홍사무총장은 "우리 사회의 종교화합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워크숍 개최를 대책위에서 공식으로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인평화회의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유교 원불교 등 6개 종교 교단대표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종교간 화합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천주교주교회의 김성태신부는 "종교인들간의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워크숍은 종교다원주의의 화산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또 이후 △종교편향 및 훼불사례 자료전시회 △외국 전문학회와의 인터넷 토론회 및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 기독교의 실상과 한국의 종교상황에 대한 문제를 알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 8월 8일 법회를 예정대로 치르기로 하고 법회 명칭을 '국민정부 종교편향 훼불만행 척결을 위한 결의법회'로 정했다. 이날 법회에 앞서 제주 원명선원의 부서진 부처님 불두를 들고 조계사-청와대에 이르는 구간에서 묵언행진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대책위는 18일 조계종 종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국민정부 종교편향 척결을 위한 불교지도자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종교편향과 이교도의 훼불에 대한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수립 △금선사 법당 난입에 대한 검찰의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또 종교간의 평화와 관용을 위한 종교지도자들의 노력을 요구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동화사 '산사음악회' 일본군위안부기념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산사음악회가 18일 오후 대구 동화사 통일대전에서 1천여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 김영동씨등 국악인들이 출연, '영산회상' '아침의 소리' 등 10여곡을 연주했다. 음악회에는 동화사 주지 성덕스님, 문희갑대구시장, 후함머니등이 참석해 일본군위안부기념관 건립에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산중총회법 공청회 8월말로 연기

조계종 중앙종회는 8월 4일 개최키로 했던 산중총회법 개정관련 공청회를 8월 말로 잠정 연기했다. 중앙종회는 "교구본사 주지 선거의 존폐를 논의하는 공청회인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득이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8월10일경 열릴 예정이었던 제133회 임시중앙종회도 8월말 공청회 이후로 함께 연기됐다.

종교편향 강력 대응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모임 정부에 탄원서 보내기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회장 설조)은 18일 백양사에서 모임을 갖고 잇따른 종교편향 사례와 훼불사태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 관련기관과 정부에 탄원서를 보내기로 했다. 또 '기독교 지도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기독교계 언론에 광고로 게재하기로 했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종교신문 4칸만화 스님비하 '불자 항의'

종교신문(발행인 이동한)이 최근 7월15일자와 22일자 11면 4칸 만화에 스님을 비하시키는 내용을 게재해 불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와관련 종교신문은 "7월29일자 11면에 사과기사를 실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만화는 "스님도 진작 목사가 되실걸"이란 문구와 스님의 머리가 골프공에 맞아 튀어 나는 장면등. 임연태 기자

서울역 선교에 '경고'

대책위 엄중 징계 요구

해군본부가 10일 근종윤리위원회를 열어 '서울역 선교' 사병들을 인솔한 안모 군종목사에 대해 경고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관련 종교편향대책위 등 불교계는 징계수위가 낮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정성운 기자

실상사 장기귀농학교 첫 개설

유기농 직거래장 2곳도…도농공동체 추진본부 곧 결성

장기귀농학교가 실상사에서 국내 처음으로 개설된다. 또 서울 영화사와 목동에 유기농산물 직거래매장의 개설과 가칭 '불교 도농공동체 추진본부' 결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불교귀농학교(교장 도법)는 8월8일 제2기 불교귀농학교 기초교육과정을 개설한데 이어 8월24일 지리산 실상사에서 장기귀농학교의 문을 연다. 또한 불교생활협동조합운동의 일환으로 8월22일 영화사·목동 유기농산물직매장을 오픈한다. 이에앞서 불교귀농학교는 7월26일 실상사에서 '불교 도농공동체 추진본부'와 관련한 운영위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결성방안을 논의했다.

전국귀농운동본부(본부장 이방철)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장기귀농학교는 전국귀농운동본부 등 전국 7개 귀농학교(이론 및 3박4일 과정의 단기 현장실습으로 운영)의 기초과정 수료생 25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실시된다. 불교 생태운동의 이정표로 기록될 장기귀농학교는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 등으로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을 열게 되어 더욱 눈길을 모으고 있다.(관련 인터뷰 3면)

이와관련 불교귀농학교는 정부(전북도)에 실상사를 '실직자 재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장기귀농학교 소요예산 7천여만원중의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 영화사 등에 개설되는 유기농산물 직거래매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매개로 한 소비자생협운동의 단초로서 '불교 도농공동체 추진본부'가 결합 주요사업의 하나.

유기농산물 직거래매장을 설치한 도삼사합이 생명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법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매장이용을 돕는다면 농촌의 경제기반을 돕고 도시 불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환경 포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통도사 취운암을 상설 행자교육장으로

통도사 교육원에 통보

통도사 취운암이 상설행자교육장으로 활용된다.

통도사(주지 월파)가 16일 '산중대덕스님과 삼직스님회의 결과 산내 암자인 취운암을 행자교육장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계종 교육원(원장 압도)에 보내옴으로써 이뤄지게 된 것. 이로써 종단 교육의 숙원과제 가운데 하나인 상설행자교육장 마련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교육원은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제15기 행자교육원을 통도사 취운암에서 열 예정이다.

앞으로 교육원과 통도사는 취운암을 상설행자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부대시설 건립등을 위한 예산확보 등의 협의를 거쳐, 종회에서 최종 결의하는 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이은자 기자(eilee@buddhapia.com)

서옹스님과의 만남 - 그룹인터뷰 12·13면

강원의 위상과 역할 공개토론 21면

스님과 재가불자를 위한 승복, 우리옷의 전당

가사야가 사부대중께 개업 인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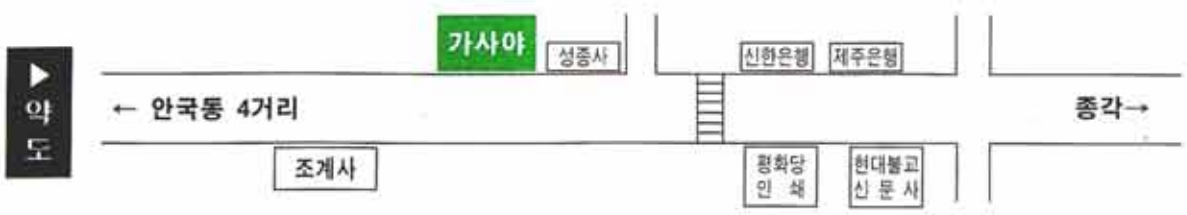


가사야 견지동 개점에 즈음하여 모든 스님, 불자님께 인사 올립니다.

저희 가사야 임직원 모두는 그동안 스님, 불자님들의 호의와 배려를 잊지않고 보은하고자 전통의 멋과 현대감각을 살린 승복, 우리옷을 만들어 신심을 돋울 수 있는 제품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자니실 때리도 들려주시면 따뜻한 차한잔의 여유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야 대표 김 여여성 합장



가사야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1번지
Tel : (02)723-9712

사 설

공약이행 지켜보겠다

국민회의 정균환 사무총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하여 정부와 여당이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 지방 재 보선 선거를 앞둔 불심잡기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있으나, 적어도 그러한 정부와 여당의 성의를 이끌어 낼 만큼 불교계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었고, 그것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겠다.

그간 불교계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하여 불만과 분노를 표한 여러 사안들의 본질을 따져 보면, 모두 민족종교로서의 불교의 위상에 대한 몰이해와 종교편향성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불교는 현실에서 단일 종교로서는 가장 많은 국민을 신도로 하고 있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의 대부분을 그 속에 보존하고 지켜가는 종교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족 문화의 계승과 발전은 우리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일에 대한 지원은 특정 종교로서의 불교와 관계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혹 그것이 불교에 어느 정도 특혜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교가 민족문화 전통의 보존과 계승에 공헌하고 있는 측면에 비추어 본다면 불가피한 일이요, 오히려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권들은 경제지상주의에 빠져 전반적으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무관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핵심에 있는 많은 인사들이 자신의 종교에 집착하여 문화와 종교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문화문맹'인 행태를 저질러 왔다. 그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종교에 대한 공평성이라는 강변 아래 결국은 불교라는 특정 종교에만 불리한 법령들을 무리하게 제정하는 과행적 정치행태를 보여왔던 것이다.

구체적인 종교편향의 문제를 보면 과연 이 나라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종교다원주의의 바탕 위에서 있는지를 의심할 만한 일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특정 종교에 큰 영향을 끼칠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앙심이라는 말로 호도되거나, 가벼운 이야기거리로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가끔 온 불교계가 분노에 휩싸여 문제를 삼기도 하지만, 끝까지 공적인 업정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식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훼불사건 등도 단순한 종교 사이의 문제, 또는 개인적인 광신의 문제로 치부되어, 그 근본에 종교간의 전쟁으로까지 나아갈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신앙의 자유를 전도의 자유로 착각하는 공격적 선교가 갖는 위험성,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극단적 양태가 훼불이라는 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도 불교계도 이러한 문제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불교계를 향한 공약이 한 특정 종교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되고, 또 건전한 종교다원주의에 입각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불교계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불교만을 위한 것이 아닌, 보다 이상적인 국가 건설을 위한 큰 전망 아래서 정치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자세에서 한 때의 불만이나 분노를 넘어서, 온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요구를 제시하며 그 이행을 끝까지 지켜보는 엄한 눈이 되어야 한다.

포교용 소책자 나온다

조계종 포교연구실 11월 배포…군인 · 청소년등 대상 세분화

군인 청소년 환자 등 대상을 세분화한 포교용 소책자가 발간된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실장 효종스님)은 22일 계층별 · 소집단 대상의 포교자료 발간 기획을 이달중 완료하고 11월 발간,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책자는 50쪽 안팎의 분량으로 제작되어 사찰과 불교단체를 통해 배포한다.

포교용 소책자 발간의 기획을 맡고 있는 포교연구실 김경호연구과장은 "현대사회의 포교는 대상에게 맞는 언어와 감각에 의한 새로운 포교매체가 필요하다"며 소책자 발간 의의를 설명하고, 군인 청소년 환자 재소자와 문화재사찰 관람객 등 5개 주제에 대한 책자를 우선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용 소책자에는 △환자를 위한 기도법 △발원기도문 △체험담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도법에는 본인과 가족이 함께 하는 기도요령 및 순서 준비물 등을 상세히 밝히는 한편 병문안을 갔을 때의 마음 자세, '병이 낫도록 부처님전에 기원하겠습니다' 등 위로의 말도 매우 구체적으로 담아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포교용 책자는 일반인 및 초심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수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생 군인 환자 등은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소책자 발간은 포교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일본 불교대학 미쓰다니 이사장대행(왼쪽)은 23일 송석구 동국대총장에게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을 전달했다.

한일 불교대학총장 11월 협의체 구성

한 · 일 불교철학계 대학총장 협의체가 오는 11월 구성될 전망이다.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11월2~3일 '한 · 일 불교철학계 대학총장 합동회의'를 갖고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용곡대(龍谷大) 등 일본 10개 불교철학계 대학총장과 동국대를 비롯 위덕대, 원광대, 중앙승가대 총장으로 구성될 한 · 일 불교철학계 대학총장 협의체는 21세기를 대비한 불교계 대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불교종합병원 건립에 쓰세요"

동국대에 日불교계 성금 속속 답지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가 일산에 건립하고 있는 불교종합병원에 자매대학인 일본 불교대학이 성금을 보내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불교대학 미쓰다니 고오쇼(水谷幸正) 이사장대행이 23일 동국대를 방문, 재단이사장 녹원스님과 송석구 총장에게 1백60만엔의 기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일본 불교대학 재단측에서 내놓은 1백만엔과 (주)송원흥산의 50만엔 미쓰다니 고오쇼 이사장대행의 10만엔 등으로 마련됐다.

미쓰다니 이사장 대행은 23일 기금전달식에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동국대가 발원한 불교종합병원에 대해 일본 불교계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경을 초월해 불교인으로서 불교종합병원 건립이 원만히 회향되도록 힘 닿는데까지 모금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일본불교대학은 지난 5월에도 3백만엔의 기금을 보냈었다.

한편 동국대는 불교종합병원 건립을 지원하는 일본 불교계의 성금이 계속 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일본불교대학 외에 류코쿠(龍谷)대학에서 3백30만엔, 오따니(大谷)대학이 1백만엔, 동북전산기학교가 1백만엔, 정토진종 본원사파에서 30만엔, 정토종 문주가 30만엔, 재일교포 왕청일씨가 1백만엔 등 모두 1천1백50만엔의 기금이 동국대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위덕대 '사학 위상'

대학본부 8월초 개관 학술종합정보원도 착공

위덕대학교(총장 손제석)가 8월초 대학본부 개관과 함께 지역명문사학으로 거듭난다.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건립된 대학본부는 건평 2,888㎡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에 세계 각국과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LAN시스템 등 각종 첨단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9월에는 인문사회관 완공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또 위덕대는 8월 초 중앙도서관, 전자계산소, 연구부서의 기능이 총합된 학술종합정보원 착공에 들어간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정보 · 전자종합시스템을 갖춘 학술정보원이 99년 8월 완공되면 위덕대는 지역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면모를 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해인사 문제 풀자"

상림회 토론회 요구

성철스님 부도탑 건립과 각종 사업에 이의를 제기해 온 상림회가 해인사 종두소에 공개토론회를 요구했다.

상림회는 20일자로 발표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제하의 문건을 통해 작년부터 "상림회가 제기해 온 사중의 불사와 가야산 개발을 둘러싼 제반 문제에 대해 종무소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인사의 제반 불사와 운영, 해인사의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평화적인 토론회를 하안거가 끝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불교정보센터 '개통'

조계종 포교원등 8개단체 동참

다양한 불교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불교정보센터(인터넷 주소=http://www.buddhism.or.kr/kbic)가 인터넷에 개설됐다.

조계종 포교원, 자비의전화, 설법연구원을 비롯한 8개 단체가 자료를 제공해 운영되는 불교정보센터(대표 최용원)는 22일 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시연회를 열고 10월경에 정식 개원식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미 이달 초부터 조계종 호스트를 이용해 웹사이트를 개설, 시범 운영하고 있는 불교정보센터에는 불교신문과 주간불교신문 등 교계 신문의 기사와 설법연구원의 설법, 조계종 포교원의 불교입문 · 교리 · 포교사고시 예상문제집 등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또 도서출판 운주사의 불교서적 자료, 자비의전화의 상담사례와 불교단체 주소 · 전화번호 안내,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한국현대불교운동사〉, 선우도량의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 · 현대사〉 등 8개 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8개 불교단체가 각 단체의 특징있는 자료를 결합해 불교 정보화의 공동작업 가능성을 밝게 했다고 평가했다.

참가자들은 '불교정보센터'를 포함, 교계 최초의 불교종합정보센터인 현대불교신문 '부다피아'와 9월에 개통될 불교방송 홈페이지 등 규모있는 3대 인터넷사이트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특징적인 불교정보를 축적해 간다면 인터넷 포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공원공단예산 대폭삭감 전망

기획예산위 정부산하단체 경영혁신 발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정부 기획예산위원회는 21일 정부산하단체에 대한 경영혁신과 기준을 발표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재정지원 대폭삭감'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위의 한 관계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해 지원중단과 예산삭감을 놓고 논의를 계속해 온 결과 예산삭감 방안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히고 "삭감의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여유자금 29억원을 직원들에게 무이자 또는 2.5% 이자로 주택자금 등으로 대출 해주고 퇴직급여 충당금도 주택대부금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연태 기자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및 시공 · 銅 · 銅合金 · 板帶 · 管 · 棒
◆ 서푼짜리 기와때문에 천냥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사찰기와 재보수 이젠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가람, 풍산 한식 동기와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 成源産業
대표 최 대 용 합장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H.P (011)445-7811 야간 (02)502-7811,7827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면목없습니다

btn국토사랑 캠페인 "btn 불교텔레비전은 이 땅을 사랑합니다"

영각사 극락 영묘전 가족공원+조상+만남
국내 최초 공원형 납골당 회원모집 금년 10월30일 완공



"btn 불교텔레비전은
공원형 납골당
회원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시한부 매장제도
· 시한부 매장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매장한 후 다시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토록 하는 법률화된 제도입니다.
■ 처음부터 깨끗하게 화장하여 공원형 납골당에 정성들여 안치하는 것이 고인과 가족들 모두에게 바람직합니다.

철저한 영구적관리
영각사 극락 영묘전에서는 임종 발생 후 곧바로 화장 그리고 납골당 안치라는 토탈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안치 후에도 기제사는 물론 정기적으로 법회를 봉행하며, 연중 하루도 빠짐없이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기도를 조석으로 봉행합니다.

총공사비 265억원
극락영묘전 내부는 현존하는 최고의 보존 시스템으로 현대과학이 응집돼 있고, 외부는 가족공원으로 언제든지 편안한 휴식과 조상님들과의 정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극락왕생의 문은 오래 열려있지 않습니다. 지금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십시오.

구 분	총 액	계약금	중도금	잔 금
납부일		19 . . .	19 . . .	1998. 10. 30
개인단	2,000,000	1,000,000	500,000	500,000

※완공예정일 (1998 10 30) VAT 별도

btn 가까이 있는 진리
불교텔레비전 32 btn 문화사업단
우 121-734,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전화:(02)3270-3366 팩스:(02)3270-3498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極樂往生發願

4개 종단만 운영

종지종풍 정립등 학문적 성과 '미흡'

각 종단 종학연구기구 점검

"당신이 소속된 종단의 종지·종풍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을 불자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각 종단별로 종단존립의 기본틀인 종지·종풍에 대한 개념정립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종지(宗旨)란 한 종파에서 믿고 받드는 중심되는 가르침을, 종풍(宗風)은 각 종교, 종단의 풍습을 각각 의미한다. 따라서 종지·종풍은 종도들의 신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여 종단 가운데 종지·종풍 체계화에 주력하는 종단은 현재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등 4곳에 불과하다.

20일 진각종 종학연구실(실장 혜정) 개원을 계기로 각 종단의 종학연구를 점검해본다.

조계종 불학연구소 조계종은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을 종지로 삼고 있다. 94년 개혁종단이 출범하면서 종지와 종풍 연구를 목적으로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밀원)가 설립되긴 했지만 아직 학문적 성과는 크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강원총람〉 발간으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불학연구소는 불교사 연구·선종사 연구·교종사 연구·종단사 연구·종지/종풍/법계연구·승가교육사연구·선원사 연구·율원사 연구·교화사 연구·사원사 연구·교육종책 연구·경서(불학총서) 간행·승가교육지 발간·승가교육관련 출판 등을 추진중이다.

또 앞으로 종단의 종책적 과제를 뒷받침하고, 종단의 교육사업과 〈선원총람〉 등의 발간작업을 통해 교육과 수행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종지와 종풍, 법맥 등을 입체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천태종 천태불교문화연구원 96년 설립된 이래 두차례의 한·중·일 학술회의를 통해 종풍에 대한 학문적, 교학적 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종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종풍의 마련은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의 과제로 남아있다.

지창규 간사는 "종학연구는 포교, 연구, 교육의 상호발전을 도모해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초작업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며 "종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미래사회에 비젼을 제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진각종 종학연구실 진각종은 〈현대 한국밀교 안내서〉라는 진각종 수행법 지침서를 통해 종지·종풍을 명문화하고 있고 그간 종조일대기 발간준비, 밀교사전 심의 등에 기우려 온 노력을 볼 때 종학연구실 설립이 세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진각종은 '육자진언을 본존으로 즉신성불의 바른 길을 여는 밀교의 가르침을 전하며 현세정화를 기하는 승속동행의 재가종단'이라는 종풍을 바로 세우기 위한 취지로 종학연구실 문을 열었다. 이에따라 종학연구실은 회당사상분과, 의식·의례분과, 종학·교리분과, 교육·포교분과, 대외사상분과별로 종학 및 교법자료의 데이터베이스와, 종조 일대기 및 법어록 발간, 밀교전서 계획수립 및 발간작업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총지종 밀교연구소 83년 법장원내에 밀교연구소(소장 효강)를 두고 종학연구를 해 왔으나 15년이라는 역사에 비해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의경전 〈대승이취육바라밀경〉를 번역 완료했고, 〈대일경〉 〈대승장엄보왕경〉 〈금강정경〉 번역을 꾸준히 진행시키고 있어 교상학립과 학문적 성과가 기대된다.

현대적 접근방법을 통한 종학의 철저한 연구와 확립은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종단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확립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한 불사로 지적되고 있다.

조계종 불학연
천태불교문화연
진각종 종학연
총지종 밀교연

선·교종사 법맥 연구
한중일 천태학 교류
종조어록 수행지침서 펴내
소의 경전 번역 완료

이은주·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진각종은 20일 종학연구실 개원식을 갖고, 종지·종풍의 체계화와 학문적 연구에 들어갔다.

조계종 스님 1만1천6백65명

조계종 소속 스님은 모두 1만1천6백65명이다. 이중 구족계를 받은 비구스님은 3천6백57명(31.36%) 비구니스님은 3천5백71명(30.62%)으로 전체의 6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미는 2천4백56명(21.06%) 사미니는 1천9백79명(16.97%)으로 분석됐다. 또 조계종 스님들이 가장 많이 재적하고 있는 지역은 영남권이며 가장 적게 재적하고 있는 지역은 강원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조계종 총무원이 작년 말까지의 종단 승려현황을 집계해 최근 밝힌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는 현재 조계종 스님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 분포도 담고 있어 흥미롭다.

총무원 승려현황 밝혀

영남지역 36% '최다'
구족계 받은스님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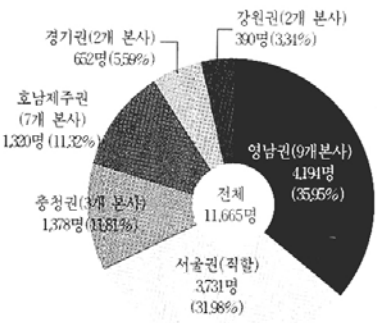
직지사 동화사등 9개에 이르는 교구본사가 분포된 영남 지역의 스님은 모두 4천1백94명으로 전체의 35.95%에 이른다. 이 가운데 비구스님은 2천3백85명으로 비구니스님은 1천8백9명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스님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권역. 직할교구에 해당하는 서울권역에는 모두 3천7백31명의 스님들이 거주해 전체의 31.98%의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거주 스님이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권으로 월정사와 신흥사 두 교구본사에 재적 등록된 스님은 모두 3백90명으로 전체의 3.34%를 차지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비구니스님이 84명으로 집계돼 비구스님이 3백6명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법주사 마곡사 수덕사를 중심으로한 충청권에는 1천3백78명(11.81%)의 스님들이 재적하고 있으며 금산사 송광사등 7개의 교구본사가 분포된 호남 제주지역에는 1천3백20명(11.32%)이, 용주사와 봉선사가 관할하는 경기지역에는 6백52명(5.59%)이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계종 스님들의 출생 년도별 현황에서는 1955년도에서 1960년도 사이에 출생한 스님이 가장 많은 2천2백44명, 전체의 19.24%를 차지하고 있다. 1960년에서 65년 사이에 출생한 스님도 2천1백89명(18.77%)으로 나타나 1955년에서 65년 사이 10년간 출생한 스님들이 가장 많음을 알수 있다. 또 1900년 이전 출생 스님의 경우 비구스님은 1명인데 반해 비구니스님은 5명으로 집계됐으며 78세이상에 해당하는 1920년 이전 출생스님 분포에서도 전체 2백45명 중 비구스님은 81명 비구니스님은 1백64명으로 파악됐다.

수계 년도별 통계에서는 1985년에서 95년 사이 10년간 계를 받은 스님이 4천5백13명으로 전체의 38.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조계종 스님 지역별 재적현황

목어

봉은사 주지자리

부처님께서 사위국 정사에 계실때였다. 새로 출가한 4명의 비구가 망고나무 아래서 좌선을 하다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 말을 주고 받았다.

"온갖 꽃이 피었을 때 들에 나가 노닐면 가장 즐겁다. 가족이 모여 술 마시고 음악을 연주하며 가무를 즐길때, 재물을 많이 모아 갖고 싶은 것을 다 손에 넣고 거마 복식이 특이해 행인의 눈을 끌때, 처첩이 미인이어서 마음껏 사랑할 때 가장 즐겁다."

부처님께서 이들 비구들의 생각이 안이비설신의 육근에서 생기는 갖가지 욕망으로 달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불렀다.

"너희들의 말은 다 멸망의 길일뿐이다. 꽃은 시들어 떨어지며, 가족끼리의 즐거움은 반드시 이별을 수반한다. 재물과 거마는 가난의 한 부분이며, 미인은 애증을 낳는 주인공일 따름이다. 범부들의 고통이 다 육근의 욕심 때문이다.

그러기에 비구가 세속을 버리고 불도를 구하여 생각을 진실(무위)에 두고 열반에 이르는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다."

〈법구비유경〉에 있는 말씀이다.

봉은사 주지임기가 7월20일자로 끝났다. 그 자리를 놓고 보기 민망한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 주지직은 귀찮고 번거로운 사판의 자리이다. 그런 자리를 서로 하겠다니 번뇌를 해탈의 도구로 삼기위해서인가 아니면 힘든 일을 떠 맡겠다는 보살심의 발로인가.

봉은사는 강남지역의 포교일번지로서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도량이다. 그래서인지 88년에도 주직직을 놓고 신도까지 합세하여 이른바 봉은사 사태를 일으켰었다. 그런 전례가 있는 사찰의 주지자리라면 임기만료 전에 미리미리 챙겨 잡음이 일지 않도록 대비했어야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빈자리를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조속히 주지를 임명해야 한다.

봉은사 주지 문제가 더이상 시끄러워 지면 전법은 커녕 스님들과 불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된다. 그래도 좋다면 그건 불제자이길 포기하는 것이다. 불제자가 아니라면 어찌 주지가 될 수 있고 신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불제자들에게 가장 즐거운 일은 무엇일까.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다시 읽자. 명쾌한 답이 거기 있다.

불교귀농학교(교장 도법)와 전국귀농운동본부가 공동주관하는 장기귀농학교가 실상사에서 8월24일 국내 처음으로 개설된다. 또 서울 영화사와 목동에 유기농산물 직거래매장의 개설과 가칭 '불교도농공동체 추진본부' 결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80년대 초부터 '불교와 농촌'이란 화두를 들고 '불교 도농공동체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의 생각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 3월28일 불교귀농학교 개교를 기점으로 불교계에도 농촌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요 인터뷰

장기귀농학교 국내 첫 개설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

"인간-자연 공생의 삶 추구"

불교귀농학교의 교육목표가 궁금한데요.

▲한 마디로 '조화로운 삶, 더불어 사는 사회, 친환경적인 농업'이 슬로건이자 목표입니다.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모든 만물의 생명을 중시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탈피,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공존·공생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장기귀농학교를 개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직자 현장경험은 준비된 귀농 이끌죠"

▲현재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직자를 중심으로 약 2천5백여 가구가 농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 역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없이 귀농을 한다면 거의 실패하고 다시 한번 삶의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튼튼한 귀농'을 위해서는 현장교육을 통해 이론교육에서 배웠던 농사꾼으로서의 가치와 지식을 현장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것으로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8월22일 서울 영화사와 목동에 유기농 직거래매장이 개설되는데요.

▲농촌문제의 해결은 도시 소비자들의 농촌을 살리겠다는 적극적인 가치의 변화와 진지한 활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도시 사람을 중심으로 불교생활협동조합 운동이 전개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의 검출 등 오염된 먹거리를 먹는 인간 생명의 위기도 심각합니다. 유기농 직거래 매장은 안전한 먹거리를 매개로 농촌사찰과 도심사찰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잇점이 있습니다.

-가칭 '불교도농공동체 추진본부'의 추진 배경은 무엇입니까.

▲추진본부는 불교귀농학교, 장기귀농학교, 불교생협, 직거래매장 등의 사업을 관장하는 사업본부의 성격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농업·농촌문제의 불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연구소 등을 설립하는 동시에 불교 농민운동의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찰과 주민들이 하나되는 불교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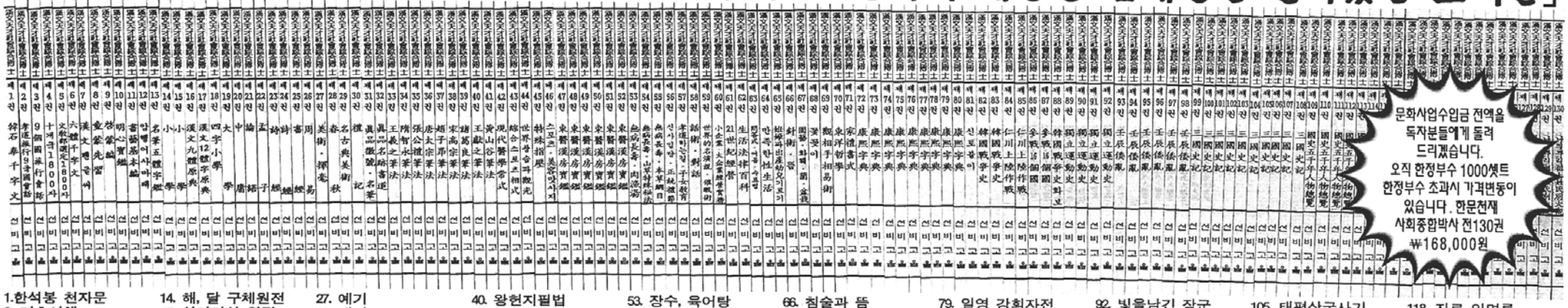
-정부·종단이나 불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정부는 농촌문제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민족구성원의 생명문제, 식량안보·국토의 황폐화문제(북한 포함) 등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개발하기 바랍니다. 종단과 사찰들은 불교의 정신적·물질적 자원을 활용, 농촌문제 해결을 통해 생명사상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는 인식전환을 요청합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한문천재사회종합박사 전 130권 특별할인판매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까지 꼭 알아두어야 할 36만가지 내용을 집대성한 살아있는 도서관」



문화사업수입금 전액을 독자분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오직 한정부수 1000셋트 한정부수 초과시 가격변동이 있습니다. 한문천재 사회종합박사 전130권 ₩168,000원

1.한석봉 천자문
2. 기초여행
3. 여행회화
4. 10개국 1800자
5. 한문 1800자
6. 6체 천자문
7. 한문 펜글씨
8. 동몽선습
9. 계몽편
10. 명심보감
11. 서예기본
12. 암행어사, 옥새
13. 명필오체자감
14. 해, 달 구체원전
15. 삼라만상 원정
16. 사자소학
17. 소학
18. 소학
19. 대학
20. 중용
21. 논어
22. 맹자
23. 시경
24. 시경
25. 서경
26. 주역
27. 예기
28. 예기
29. 춘추
30. 고전미술
31. 명품 휘호, 명필
32. 진품 명적서도
33. 왕희지필법
34. 수지영필법
35. 장공예필법
36. 당태종필법
37. 조자양필법
38. 송고종필법
39. 제갈량필법
40. 왕헌지필법
41. 황산곡필법
42. 현대의학
43. 종합스포츠
44. 세계풍습, 관광
45. 특수지압
46. 미용맛사지
47. 동의한방보감
48. 동의황실처방
49. 동의황실비방
50. 동의불노초
51. 동의불노초
52. 동의불노초
53. 장수, 육어탕
54. 무병장수 산초
55. 무병장수 본초
56. 신사임당 예절
57. 효도하는 길
58. 화술과 대화
59. 명연설 최면술
60. 소기업, 대기업경영
61. 21세기 경영
62. 생활법률 백과
63. 어음·수표법
64. 사랑부부 백과
65. 임신과출산
66. 침술과 뜸
67. 원예·난·분재
68. 사계절 꽃꽂이
69. 관상·수상·역술
70. 동양철학
71. 가례서식
72. 신강회자전
73. 신강회자전
74. 신강회자전
75. 한중 강회자전
76. 한중 강회자전
77. 한중 강회자전
78. 일영 강회자전
79. 일영 강회자전
80. 일영 강회자전
81. 신토불이 365일
82. 한국 전쟁사
83. 한국 전쟁사
84. 인천상륙작전
85. 인천상륙작전
86. 참전 16개국
87. 참전 16개국
88. 화보로보는 전쟁
89. 독립운동사
90. 빛을남긴 장군
91. 빛을남긴 장군
92. 빛을남긴 장군
93. 임진왜란 작전
94. 임진왜란 항쟁
95. 임진왜란 의병
96. 난중일기
97. 난중일기
98. 임진왜란 일기
99. 통일삼국사기
100. 통일삼국사기
101. 천하삼국사기
102. 천하삼국사기
103. 태평삼국사기
104. 태평삼국사기
105. 태평삼국사기
106. 난세삼국사기
107. 난세삼국사기
108. 삼국사기
109. 국사 인물총람
110. 국사 인물총람
111. 국사 인물총람
112. 국사 인물총람
113. 국사 인사대관
114. 국사 인사대관
115. 국사 인사대관
116. 국사 인사인명록
117. 자료 인사인명록
118. 자료 인명록
119. 시조·중시조
120. 국사오천년
121. 나의뿌리 족보
122. 나의뿌리 족보
123. 성씨총람
124. 성씨총람
125. 성씨총서
126. 성씨총서
127. 성씨대관
128. 성씨대관
129. 성씨대 족보
130. 성씨대 족보

◎국사 오천년사 ◎인물 오천년사 ◎미술 오천년사 ◎한문명필휘호 오천년사 ◎가정사회분야별 오천년사

진학시험 및 사회모든 시험에 합격할수 있는 국립도서관 36만권의 축소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미술, 음악 과학, 의학,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백혈병, 성인병, 골다공증, 암등 스포츠 신토불이 365한방 건강요리, 주자십회훈, 가정의례, 신·구식혼례, 삼강오륜, 조손사지방, 축문, 축사, 제례, 상례, 입춘, 대길, 상락실, 주례사, 자녀교육, 효도하는 길, 나의조상, 나의뿌리는 누구인가, 신사임당 예절법, 동양절학, 관상, 수상, 조연, 증연, 말연, 왕위인이 되는꿈, 꿈해몽법, 화술, 대화술, 웅기, 박력, 지도자의 길잡, 인간성 회복, 소기업~대기업까지의 경영실무, 인명국사, 삼국사기, 임진왜란, 독립운동사, 한국전쟁, 나의성씨 족보, 강화자전, 진품명품, 사서오경, 암행어사마패, 왕옥새, 유명인장등 36만 내용을 전130권으로 편찬한 국내최고로 방대하고 후손만대로 물려주어야 할 고귀하고 주옥같은 값진 우리의 유산

책임감수 안호상 박사, 유정기 박사, 구본흥 박사, 이강훈(전광복회 회장) 김완희 박사, 홍문화 박사

정 가 : ~~880,000원~~ 현금가 : 168,000원

(02) 231-7323~5
성 비 고 을

"종지 · 종풍 체계 세울 터"

진각종종학연구실장 **혜정정사**



"종학연구실의 확대개편 운영은 종학과 교법체계를 위한 노력을 총집결하고 보다 새롭고 체계적인 연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일 개원한 진각종 종학연구실장 혜정정사(교육원 교육부장)의 말이다.

또 혜정정사는 "종지 · 종풍을 바로 세우고 종통을 연구하는 것은 종단 존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오늘의 진각종은 그동안 꾸준히 중심 교리사상과 종학 및 교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며 종학연구실 개원이 튼튼한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필선 기자

"통일 · 해외포교 창구역할 최선"

진각종국제불교연소장 **회정정사**



20일 진각종이 대북한 포교와 협력사업을 전담할 국제불교연구소 문을 열었다.

국제불교연구소 소장 회정정사(통리원 총무부장)는 "국제불교연구소는 21세기를 앞두고 진각종이 통일을 역동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대외통일 관련 불사의 창구로 개원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통일불사를 위한 정보수집 및 종교교류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회정정사는 또 "현지 연구원을 비롯해 비상임 개원연구원을 위촉해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인도 등 해외포교 연구 및 기획,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 취임식

조계종 11교구본사 불국사는 20일 대웅전에서 주지 이 ·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주지 이 · 취임식에는 탄성 조계종 원로의원스님을 비롯 이원식 경주시장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불국사 주지로 취임한 성타스님은 "불국사가 관광사찰이 아니라 종합불교센터가 되도록 하겠다"며 "임기내 불교박물관과 스님들의 수련장으로 쓰일 불국사연수원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근 기자



화엄사 주지 종걸스님 진산식

조계종 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종걸스님 진산식이 21일 각황전에서 열렸다. 진산식에는 월주 조계종총무원장, 설정 종회의장을 비롯 조보훈 전남도 정무부지사, 전경태 구례군수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종걸스님은 △강원과 선원을 활성화해 선불장으로 조성 △노스님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요사 건립 △포교활성화 주력 등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apia.com)



피어나는 동심 불심

여름방학과 함께 전국 사찰에서는 여름불교학교가 시작됐다. 천동자들은 신나는불교학교에서 재미있는 놀이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즐거워 하고 있다. 최근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는 독특한 주제와 새로 개발된 불교 놀이로 재미와 교훈을 함께 얻는 유익한 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조계종 제8교구본사인 직지사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여름자비학교를 열어 6백여 선재들이 바루공양과 새벽예불을 체험하고 5계를 수계 받았다.

스님과 함께 글자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미래 불교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교차로

불교방송 이사회 개최



도후 불교방송이사장 스님(신흥사 주지)은 31일 불교방송 15층 회의실에서 제33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수인계를 받고 사장에 취임, 업무에 들어갔다.

가슬갑사지 발굴 조사



홍선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장은 8월3일 경북 청도군 운문면 가슬갑사지에서 개토식을 갖고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다.

법보신문 사장에 취임

장주스님은 17일 종로구 견지동 법보신문 사무실에서 인

실직자돕기 쌀 전달



진관(사진위) · 석담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공동의장은 22일 서울시 금천구청에 실직자돕기 자비의 쌀 40kg짜리 3가마를 전달했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는 6월11일 '실직자 가정을 위한 자비의 쌀 모으기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어린이 여름수련회



벽암 금강정사 주지는 31일부터 2박3일간 어린이여름수련회를 파주 보광사에서 갖는다. 0346)65-8345

英서 禪 · 육조단경 강의



지수 대흥사 수련원장 스님은 영국의 레스터에서 열리는 제10회 여름불교학교와 아마라바티불교센터에서 열리는 제2회 참선수련회에서 화두선 지도와 육조단경을 강의하기 위해 29일 출국했다.

佛 · 스페인서 禪 강의



여연 대흥사 일지암 암주는 프랑스 아비뇽 한국문화의 달 행사와 스페인 바스크구겐하임 불교워크 등에서 한국선불교에 대한 강의를 하기 위해 18일 출국했다.

지하철 법우회서 법문



화암 봉선사 총무스님은 14일 서울지하철법우회 법당에서 열린 정기법회서 '우란분절을 맞은 불자들의 자세'에 대해 법문했다.

강남 수서동 대길사 개원



법안 대길승가대학장 스님은 25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대길사를 개원하고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日 장생탄광 희생자 천도

혜명 부산 만덕사 주지는 16일 일본 장생탄광 수몰사고로 1942년 사망한 1백83명의 희생자 천도재를 현지에서 지내고 18일 귀국했다.

신심명 주제 하계연수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은 8월13일~15일 김천 직지사에서 '신심명(信心銘)'을 주제로 제25회 하계 연수를 실시한다.

어린이 한문 · 예절교실 운영



정국생 해병1사단 해룡사 주지법사는 27일부터 8월20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한문교실 · 예절교실을 운영한다.

충북청소년 연합법회



홍자운 청주 관음사 주지법사는 26일 공군사관학교 성무호국사 법당에서 관음사 용화사 등 5개 사찰 학생회, 공군사관생도 등 3백여명이 참여한 충북청소년불자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인도 마드라스大서 연구



정승석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등대특별기금 교원 해외연수계획에 따라 6개월 일정으로 인도 마드라스대학교에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 8월말 출국한다.

정암사서 동문가족 캠프



임동주 대불련총동문회장은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충남 홍성군 정암사에서 '98 하계 동문가족 캠프'를 실시한다. (02)723-9811

보현의 집에 정수기 기증



박윤희 무량회장은 20일 조계종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수송동 보현의 집에 시가 2백만원 상당의 정수기 1대를 기증했다.

"청소년 신행활동 적극 지원"

교사불자회 부산지회 초대회장 양원식 씨



"교사불자회의 활성화가 곧 청소년 포교활성화로 이어지고 청소년 불교활성화는 한국불교 중흥의 씨앗과 같습니다. 앞으로 각 사찰, 학교의 폭넓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일 전국교사불자회 부산지회 초대회장으로 취임한 양원식(해동고 교장 · 63) 회장.

종립학교의 교장으로 또 불교적 내용을 담아내는 시조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회장은 "지금껏 중 · 고등학생불교연합회 지도교사로 활동 중이던 부산의 교사불자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양회장은 전국교사불자회와 연계해 전국 사찰과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 청소년들의 불교활동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양원식회장은 "각 학교의 특별활동, 학생수련회 등을 통해 포교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편안한 병영생활 도움됐으면..."

군법당 불사 앞장서는 양춘연 보살



"저에게 들어오는 재물은 내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교포교를 위해서 환원하겠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생각으로 (주)전곡다래쇼핑을 운영하고 있다는 양춘연사장(57세).

양보살은 13일 돌풍부대 석림사 법당에 장병들의 오랜 숙원인 삼존불을 봉안했다. 양보살은 이에앞서 최근 5사단 신교대법당 신축불사를 비롯하여 야포단 법당불사에도 불사금을 쾌척했다.

"전방지역에 살다보니 군인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군생활하다 제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모든 군인들이 아들처럼 생각됩니다."

이와함께 군종병들이 시내에 나오면 법당에 필요한 물품들을 세심하게 이것 저것 챙겨주는 것은 물론 군불자들이 제대나 휴가시 인사차 찾아오면 차비까지 주고 있다. 또 천주교시설인 '안나의 집'을 후원하고 봉사해 종교화합도 다지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실직자들에 쌀을 보냅시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저소득 실직자 가정을 위한 자비의 쌀 보내기 운동본부'는 실직자 가정에 쌀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 국민은행: 023-21-0551-926
- 조흥은행: 390-04-261032
- 농 협: 053-12-053051 ●우체국: 010041-0339839

(예금주: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 김병환)

삼매수행으로 자아실현과 위기극복을 위한

선수련회

모집안내 3박 4일

원명선원에서는 누구나 곧 바로 마음을 닦는 삼매의수련, 3박 4일의 수행후 일상생활(직장 가정 학교 사회)속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 바탕으로 돌아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련을 합니다. 자신을 찾아 내가 있는 인간의 삶을 반드시 찾아 보십시오.

◇ 대 상 : 1. 직장 또는 생활에서 시달리는 직장인 또는 실직인 2.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 3. 본 선원의 수행 방침과 참선 지도를 받고 수련에 참석할 수 있는 정신과 신체 건강한 불교를 받아들이는 성인 또는 불자
◇ 날 짜 : 98.8.14(금)~17(월) (3박 4일)
◇ 신청서류 : 1. 성명(한글,한자)2. 주소 3. 전화(자택, 직장) 4. 종교 5. 주민등록번호 6. 직업 7. 참가동기
◇ 인 원 : 1. 선착순 60명(당일접수안됨). 2. 자원봉사자 5명(회비없음)
◇ 일상수행내용 : 수행중묵언, 법문, 행선20분, 좌선20분, 예불, 선문독송, 염송, 염송글사경
◇ 특 징 : 참선 수련이 어렵거나 극기와 같은 힘든 수련이 아니며 4일간 수행후 일상 생활 중에 실천이 가능함.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참선을 체험할 수 있음.
◇ 온라인 : 우체국 510016-0120528 (예금자 - 원명선원) ※ 온라인 입금후 근무 시간중 필히 연락요 월~금 9:00~17:00
◇ 회 비 : 5만원(입금된 금액은 반환 안됨)
◇ 준비물 : 세면도구, 승복 또는 수련에 적합한 복장, 흰고무신
◇ 장소및 접수처 : 제주시 화북1동 4684(제주교대옆, 시내, 좌석버스 제주교대하차)원명선원
☎ 064-55-3322(98.8.1부터 755-3322) 전송 064-55-8913

대한불교조계종 한라산 원명선원

김정빈 선생과 함께 하는

<위빠사나> 명상수련

번뇌는 사라지고 깨어있음을 체험한다!

■ 〈고요하다〉〈순수하다〉〈깨끗하다〉〈오롯하다〉〈자연스럽다〉- 위빠사나(Vipassana)명상에는 붓다 시대의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의식을 일깨워 몸과 마음을 주시하는 단순한 수행법이지만, 그 속에 번뇌를 다스려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깃들어 있습니다

■ 속리산 깊은 산사에서의 2박 3일 - 붓다의 위대함에 머리숙여 찬탄하고, 근본불교 당시의 핵심적인 수행법을 직접 닦아 번뇌와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 보십시오. 참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 지도강사 김정빈 선생(46세)은 〈단(丹)〉, 〈도(道)〉 등 정신수련과 마음공부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책들을 다수 저술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위빠사나 명상에 입문하여 1995년에는 미얀마의 수행센터에서 하루 16시간 전부를 위빠사나 명상에 몰입하는 집중적인 코스를 밟은 바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책, 〈마음 다스리는 법〉과 〈마음이 평화로와지는 9가지 원리〉를 펴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일시: 8월 7일(금)~ 9일(일)/ 2박3일
● 장소: 속리산 문장선원 〈성몰사〉/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소재
● 참가비: 15만원
□ 선착순 접수마감: 8월 1일까지

정신세계원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운현궁티 엔덕상가대 B관 502호 ☎02-747-7033

마음을 다루는 기술!
정신력을 키우는 기법!

실바 마인드컨트롤

Silva Mind Control



(효과) 마음의 힘 증대 / 심신건강 증진 (스트레스, 불안, 초조, 불면, 두통 등 해소) / 정신력 향상 (집중력, 기억력, 창의력, 직관력 등) / 학습, 업무능력 증대 / 성격, 대인관계, 무정적 자아상 개선 / 문제해결, 목표달성, 영적능력 계발

방학특강 연속 4일간
(1차) 7월 28일(화)~ 31일(금) 오후 2시~ 5시
(2차) 8월 3일(월)~ 6일(목) 오후 2시~ 5시

주말과정 총12시간
8월 1일(토) 오후 3시~ 10시 / 2일(일) 오전 10시~ 오후 5시

정신세계원 개원 5주년 기념
참가비 50% 파격적 할인!!

■ 참가비: 평생회비 7만원 / 실습테이프는 별도(3만원)

■ 지도강사: 송순현 선생 48세
서울대 철학과 졸업 '정신세계사' 대표 역임 (1984~1993) 실바 마인드컨트롤 국제본부(미국)에서 전문 강사 과정 이수(1992) 현재 심신수련 전문 문화센타인 '정신세계원'을 운영하면서 실바 마인드컨트롤 전문강사 및 사단법인 한국정신과학학회 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신세계원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운현궁티 엔덕상가대 B관 502호 ☎02-747-7033

법사 파견 등 범종단 지원해야

흔들리는 직장법회



① 직장법회 현주소
② 침체요인 진단
③ 활성화 방안

교육프로그램·지도자 연수 필요
회비 자동납부 등 재정안정 절실
인근사찰 연계 신심 증장에 도움

직장법회 활성화를 위해 교계에서는 △종단차원의 교육프로그램 마련 △법회장소 및 법사지원 △직장법회 지도자연수회 개최 △유사단체간 합동행사등의 시스템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가장 시급한 활성화대책은 불자회의 내실화다.

이를 위해서는 친목위주의 운영에서 탈피해야 한다. 법회뿐 아니라 불교교리공부에도 철저한 직장법회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럴 때만이 법사가 없을 경우에도 법우중에 한명이 공부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고, 핵심멤버 몇명에 의해서 단체의 존립이 좌우되는 현상을 극복해 회원층을 두텁게 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의 경우 회원들의 불교공부에 역점을 두고 운영된다. 회원들이 지난해 능인선원 불교대학에 24기로 4명이 졸업한데 이어 올해는 5명이 등록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불교방송 일요법회 테잎을 들으며 불교공부를 하는 등 열의를 보이고 있다.

조화제회장은 "81년에 금융결제원 전신인 은행지로관리소에 불자회를 창립하여 운영했으나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창립했다"며 "불자회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회원전원이 불교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다. 회장단에 의해서 법회 운영비를 해결하는 직장법회는 시간이 갈수록 문제점을 노출시킨다. 모임 때마다 얼마씩 거출하는 형태를 지양하고 입회비와 월회비를 빠짐없이 매월 월급 정산시 자동적으로 단체통장에 입금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세무사불자회의 경우 회비자동입금제도를 채택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

둘째는 각 종단의 법사 지원이다. 지금까지 어느 종단에서도 직장·직능법회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불교계는 타종교와 달리 신도육성에 미진하다. 대학생불교연합회나 직장법회 등 불교에 입문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초심자들의 힘든 생활이 시작된다. 타종교들이 이들에게 열정을 쏟는 것과 대비된다.

법사 지원은 불자회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지도법사는 모임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불자회는 인연 닿는 스님을 한시적인 지도법사로 모시고 있다. 차제에 각 종단에서 법사를 위촉하는 제도를 실시, 법사에게 종단적 권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신행을 심화시킬 수 있는 단계적인 신행프로그램의 지원도 절실하다.

또 직장법회지도자 세미나 및 수련회, 지역합동법회 등을 열어 단체간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장을 펼쳐주는 것도 종단의 몫이라는 지적이다. 95년 조계종포교원에서 전국 직장·직능법회 대표자수련회를 개최했으나, 이후 지속되지 못했다. 전국 단위가 어렵다면 지역단위 또는 유사 직종간의 모임을 열어 꾸준한 교류를 갖는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신교계는 지역적으로 돌아가며 경제난극복예배와 계층별 선교대회를 열고 있다. 7월 11일 종교교회에서 제10회 직장선교대회를 열고 우수 신우회원과 단체에 표창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우수단체 2곳과 신우회원 2명을 표창해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현재 개신교는 직장선교협회를 조직화한데 이어 직장선교회관 건립기금을 모으고 있으며 21세기를 향한 선교정책개발과 선교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정부기관에 불자회 창립이 시급하다. 사진은 4월 28일 창립한 감사원 불자회 법회 장면.

지역사찰과의 연계도 중요한 활성화 방안이다. 인근지역 사찰과 자매결연을 맺어 직장법회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서울 서대문구청불자회는 홍은동 백련사와 상부상조하며 지내고 있다. 백련사에서 법회공간과 법사를 제공함으로써 신심증장은 물론 체계적인 교리 학습이 가능하다. 서대문구청불자회는 초파일 등 백련사 주요행사에 참가하고 자원봉사를 실시한다. 매년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공동개최하여 지역사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직장법회는 전문직을 포함하여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불자들이 모여있는 만큼 종단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불교발전에도 중요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세무사불자회 송호승회장은 "세무사불자들이 교계에서 무료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종단이나 사찰에서 불합리한 세금문제로 상담해올 경우 불교의호 차원에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이들을 활용하여 대책위를 구성,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한다면 더욱 사회를 주도하는 대안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됐을경우 직장불자들도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자부심이 생기고 해당불자회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단체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직능법회 활성화에 각 종단과 교계에서 많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1만원 투자하면 불자기업 살아납니다

부도위기 대동소방 5억모금 나서

'불자기업에 만원만 투자해 주십시오.'

94년 회사 설립이래 매년 1백% 성장을 거듭해온 벤처 불자기업 대동소방(대표 이남제)이 불자들에게 투자를 호소했다.

투자모금액은 5억원이며 투자한도는 1인당 1만원이상 1백만원이하로 20일부터 신청을 받아 차용증과 내용증명을 보내줄 방침이다.(02-215-0723) 투자금액은 1년뒤 120%로 돌려준다.

대동소방은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매출액 40억원의 절반인 2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나 주거래 선인 설비업체의 연쇄부도로 3/4분기 부도금액 3억원을 마련치 못해 흑자부도 위기에 놓였다.〈본지 5월26일자 참조〉 특히 부도액의 40%가량을 자체자금으로 번제해왔으나 현재는 담보여력 부족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신규대출도 더이상 불가능하고 미수금 회수도 시간이 걸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세계최일류의 소방제품 메이커를 목표로 뛰고 있는 대동소방은 전직원이 불자로 구성된 불자기업으로 올해부터 소방제품 수출도 시작하여 3만달러를 수출했으며, 20만달러 신용장이 곧 내도예정이며 또 30만달러의 추가상담이 진행중이기도 하다.



◇부도위기에 있는 대동소방이 불자들의 투자를 호소했다. 사진은 대동소방 사옥 전경.

이남제 사장은 "불자들의 투자금은 어음결제 및 생산기반 확충과 수출제품 개발에 쓰여지며 사용액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하루빨리 일시적인 부도의 위기를 극복하여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호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전통문화 보호육성"

교불련 부산지회 창립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부산지회(회장 양원식)는 18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부산지역 교사불자들의 힘을 결집했다.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 임완숙 전국교사불자회 회장 등 교사 3백여명이 동참한 창립법회에서 양원식회장을 추대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교사들은 앞으로의 활동의 지침이 될 실천강령을 통해 청소년 포교활동, 전통문화 보호육성, 봉사활동 등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양원식 회장은 "우리나라 불교발전의 밑거름이 될 청소년 불교증흥을 위해 교사들의 힘을 모아나가고 청소년들에게 우리전통문화의 맥인 불교문화를 심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기자 (mhcheon@buddhapia.com)



한국불교언론인회 현판식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한국방송개발원 사무처장)는 21일 오후 6시 불교방송 다보빌딩 2층 사무실 개소 및 현판식을 가졌다. 신광식회장은 "불법으로 현실과제를 풀어내고, 교단외호와 불교포교에 앞장서는 언론인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스님, 조계종기획실장 제원스님, 진흥원 서돈각이사장, 불교방송 성낙승사장, 현대불교신문 김광삼사장, 우리는선우 남지심 공동대표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의정부 호암사 대웅전 착공식

국난극복기도도량 의정부 호암사(주지 혜우)는 21일 단성스님(前조계종 총무원장) 혜승스님(의정부 사암련회장) 효종스님(중앙승가대 동문회장) 의정부시 김기영시장을 비롯하여 스님10여명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및 요사채 신축불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호암사 대웅전 및 요사채는 총건평 90평으로 2층에 전통양식의 법당 35평과 1층 요사채 55평이며 99년 7월 완공예정이다.



화계사 무료 노인 점심공양

서울 화계사(주지 성광)는 21일 도봉소방서(서장 황순철)가 주최한 '사랑의 119봉사 활동'에 후원단체로 참가, 관내 노인 6백여명에게 무료로 점심(국수)공양을 베풀었다.

도봉소방서가 구급구조배가운동 일환으로 관내 65세이상 노인들을 초청해 실시한 이날 행사는 무료진료(한의사협회 후원), 무료이·미용봉사(이미용협의회 후원), 인명구조시범훈련 및 첨단장비관람(도봉소방서) 등도 진행됐다.



도솔사 호국영령 천도 대법회

강원 약구 제21사단 군법당 도솔사(주지법사 정연태)는 15일 민통선내 두타연 위령비 앞에서 '호국영령천도대법회'를 봉행했다.

대한법화종 서울 팔봉사(주지 팔봉) 후원으로 6·25 격전지 현장에서 봉행된 이날 법회는 1부 위령재와 2부 영산재 등이 진행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건·강·보·조·식·품·허·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간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영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불 로 화 정**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산에 사는 사람인 신선(神山人)의 주식(主食)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앰으로써 불을 생(生)하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인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시찰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아는 여래치신(치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송지 소나무임업장주(農場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강정(强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육피·송이버섯·백봉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b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이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 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053)628-9145/053)655-2227/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대구여래원

법회안내



혜경스님(무설정사 주지) 8월 2일 오전10시 동산교육회관 전국염불만일회 정토법회. (02)732-1206



정여스님(보현선원 주지) 매월 음력1일 오전10시30분 초하루법회,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청년회법회, 매주 수요일 오전10시 〈육조단경〉 강의, 참선법회. (051)853-5486



덕수스님(삼광사 주지) 매월 1일 오전11시 초하루법회, 매월 2일 양력 오전11시 초이틀법회,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처사법회, 매월 양력 1일, 10일 저녁8시, 셋째주 일요일 오전11시 청년회법회. (051)808-7111



혜관스님(불교문학포교원) 매월 세째주 수요일 오후6시 강남경찰서 경승실 정기법회. (02)308-9520



혜명스님(광주 수덕사) 매월 음력 1일 오전 초하루 정진법회, 매월 음력 7일 오전10시 초이레법회. (062)263-0550

법은스님(석불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 초하루법회, 매월 7일 오전10시 초이레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청년법회. (02)712-1765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자연 벗하며 법우애 키워
불광사학생회 횃불정진

자연속 생활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법우간의 우정과 협동심을 키우는 수련회가 마련됐다.

불광사학생회는 8월 6일~10일까지 4박5일간 경북 팔공산 은해사에서 제16차 하계 횃불정진대회를 개최한다.

'무(無)에서 유(有)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인연의 뜻을 따라·불자라는 이름으로·횃불로서 나를 찾아서·나의 삶을 저 산천으로·자연속에 나를 넣어 등 주제별 일정으로 진행된다. 또한 찬불가 경연으로 한껏 신심을 드높이고, 팔공산 산행으로 끈기와 인내도 시험한다. (02)3431-7585

대승사상 깨달아보자
조계사 법화경 강좌

조계사 경전연구강원은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에 유포되어 많은 이들에게 수지독송되어 온 대승경전의 꽃 〈법화경〉 강좌를 개설한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화택(火宅)의 비유라든가 궁자(窮子)의 비유, 약초의 비유, 화성의 비유 등이 모두 이 〈법화경〉에서 방편설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이다. 중앙승가대학교 송찬우교수가 강의를 맡아 9월 4일부터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울 수 있다. 지방의 불자들을 위한 통신과정도 함께 준비돼 있다. (02)720-1390

흙과 생명의 경이감 체험
'98 선재 생명사랑캠프

나날이 훼손되어 가는 자연환경과 각박해지는 사회현실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하나되는 체험의 장을 열어 줄 '98선재 생명사랑 캠프'가 31일~8월 3일까지 강화도 강화심신수련원에서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청소년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모아 생명사랑 CF만들기와 시연도 할 예정이며, 전등사 사찰환경탐사 등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02)278-8675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전시된 불교문화재는 불교를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게 도와준다. 사진은 영림중학교 교실 박물관.

범종치고 탁본뜨고 퍼즐도
청주博, 어린이전시실 개관

어린이들이라면 누구나 아무때고 들러 호기심을 풀고 킥킥거릴 수 있는 어린이전시실이 문을 열었다. 국립청주박물관이 5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개관한 이 전시실의 특징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는 것.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과 신라금관 등 근엄하게만 느껴졌던 각종 문화재 모형을 조각조각 잘라놓고 다시 맞추는 퍼즐놀이가 있는가 하면, 체험실에는 물레로 도자기를 만들고 경관고·기와 등을 직접 탁본할 수도 있다.

또 학교종을 비롯 범종 편경 징 북 장구 등 옛 소리를 직접 치면서 들을 수 있고, 넓은 벽에는 낙서판이 있어 마음껏 낙서하며 웃을 수 있도록 재미있게 꾸며져 있다. (0431)55-1632

경전·교리, 수화 배워보자
부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법을 전하는 공덕은 어떠한 물질적 보시보다 크고 높다고 했다. 보다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법을 전하고자 발원한 이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배움의 장이 열리고 있다. 82년 설립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양성교육기관인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중이다.

대덕 스님과 교수, 법사님들을 모시고 제1기 경전연구과정, 제12기 교리반, 제4기 수화반 등을 개설한다. (051)818-8659

솔바람·목탁소리·역사향기 찾아서
휴가철 사찰 유적 답사기행 잇따라

사찰참배, 문화재 답사, 신심다지기 1석3조의 피서전략을 세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사찰과 문화유적 답사기행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이들 답사기행은 저렴한 비용으로 온 가족이 함께 우리조상들의 숨결을 현장에서 직접 체득하고, 소중한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불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다.

이번 여름 휴가에는 현명한 선택으로 여러모로 알뜰한 불교문화답사기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사찰 답사기행

주관단체	답사지	날짜	전화번호
부산불교교육원	화림동 계곡, 남원 실상사 등	8.15~16	(051)466-4080
국토문화순례 터사랑	안동 봉정사, 제비원 석불 등	8.6, 8.14~15	(02)725-1284
신라문화진흥원	경주 안강면 일대, 정혜사터 등	8.2(성인) 8.9(어린이)	(0561)771-1950
광주불교교육원	화순 운주사, 고인돌공원	8.9~10	(062)228-9098
석불문화연구회	안성지역 석불	8.23	(02)760-5138
돌장승	함천 해인사, 해남 미황사 등	8.1~2 8.14~15	(02)955-4554
대구 동구청	동화사, 파계사, 부인사 신숭겸장군유적지 등	8.5.12.19.26	(053)955-9197

게 시 판

♣ 알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 강좌=능인선원 능인의사회는 8월 2일 오후 1시 대법당에서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 건강강좌와 상담을 실시한다. (02)557-5800

△무료 침·지압 서비스=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맹인연구회와 연계해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침, 지압, 부황, 맛사지 등의 서비스를 매주 목요일 실시한다. (02)282-1100

♣ 강좌

△수지침=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초급·중급 과정의 수지침 강좌를 개설한다. 한달만에 초급반을 수료할 수 있고, 그 외 실습위주의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02)852-0525

△장애인 사회적응 특강=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8월 6일~8일 3일간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응 특강을 실시한다. 예능활동 등으로 단체활동과 사회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신지체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02)852-0525

△컴퓨터교실·머리미용 수강생=신도림복지관에서는 컴퓨터교실, 머리미용, 종이접기, 꽃꽂이, 제과제빵, 조리사 자격증, 홈패션, 퀼트, 칼라믹스 등의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02)631-9792

♣ 모집

△무료급식사업 후원자=중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무료급식사업 후원자를 모집한다. 무료급식에 필요한 쌀, 부식등과 후원금도 접수한다. (0551)31-8017

△치매노인 도우미=치매가족고통나누기협의회(가칭)는 치매가족의 간호부담을 덜어주고 치매노인의 생활을 원조하기 위한 치매노인 도우미 되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431-9963

△청소년 농촌봉사활동캠프=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농촌봉사활동 캠프지원자를 모집한다. 28일~29일까지 강원도 인제 미교 분교 청소년 수련장에서 실시된다. 참가비 1만9천원. (02)282-1100

△실직자 무료창업교실=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실직의 고통에 처해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창업교실 한식조리사 반을 개설했다. 매주 화 목일 오후 6시에 실시되며, 재료비 교육비 일체 무료다. 선착순 마감. (0342)716-4215

△유급자원봉사자=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주부를 대상으로 유급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거동불편한 노인 수발과 말벗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02)203-3677

△노인자원봉사자=노인사랑방 부설 자비의 전화는 결손가정과 독거노인을 위한 상담봉사, 가정봉사, 의료봉사, 정서봉사 등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32)884-0118

△기쁨의 쌀 보내기 후원자=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무의탁노인과 장애인 세대에 쌀을 보내는 '기쁨의 쌀 보내기'에 동참할 후원자를 모집한다. (051)265-9471

△서류 전산입력·방과후 아동공부방 자원봉사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주 1회 3시간 서류전산입력과 방과후 아동공부방을 보조할 자원봉사자를 구한다. (02)852-0525

나의 수행일기



김희옥 〈서울지검 형사 제1부장검사〉

정의·인권구현 자성 찾는 길
매일 새벽 명상…연기법이 삶의 중심

어느새 나이 50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나 자신의 오늘까지의 사회활동, 가정생활, 개인적 참구의 중심사상은 불교사상이었다. 20대의 초입에 불교종립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한 일은 부처님과의 철저한 인연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믿고 있다.

그 당시 소위 명문고라고 일컬어지던 지방의 경북고를 다니던 나의 집안 친지나 가까운 선후배 중에 서울에 있는 동국대학을 다닌 사람도 없고 어디서 동국대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에 끌리듯이 동국대학교 법대에 응시하게 되었고, 전교 수석합격이라는 멍에를 지고 선택의 여지없이 대학생활을 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으로서의 20여년. 그동안 모교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조금은 학구적인 구석도 기웃거려 보면서, 정의(正義)와 인권(人權)을 화두의 하나로 삼는 검사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나를 지켜온 중심인물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중심사상은 모든 사물의 생멸을 상의상관성으로 들여다보고 연기의 법을 진리로 제시하시는 불법(佛法)이었다.



대학때 대학선원, 삼보회관 등에서 베풀어지던 청담, 탄허, 지관스님등 큰스님들의 법회에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법문을 듣는 틈틈이 무언가 머리와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즐거움도 누렸고, 소위 고시공부를 한다고 해인사, 회암사, 청계사 등지에서 큰 법당을 차지하고 기도하는 은혜도 누렸다.

나의 지도 스님으로 모시다가 96년에 입적하신 회광승찬 큰 스님의 잔잔한 법음을 듣는 즐거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으면서 다르마 법우회라는 사법연수생 불교신행 단체를 만들도록 지도하여 지도교수로 있으면서 젊은 예비법조인들과 나누던 법담 등 모든 것이 부처님과의 인연을 통하여 내 주변에 투영된 것이라고 믿는다.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모두 선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데 나의 공직생활 중의 수행방법은 주로 아침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1시간 정도의 산책중에 행하는 명상으로서 명상에 들어가 행하는 것이다. 요즈음 유행인 기운동, 호흡법 등을 일부러 시간을 내어 하기도 어렵지만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새벽의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는 나의 마음과 몸을 바쳐서 자성(自性)을 찾아보고자 진력하는 행복한 시간이고, 공직자로서 보다 더 건강하고 건전한 자세로 공무를 보아야겠다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틈을 내어서 산을 오르고 절을 찾고, 스님을 찾아 뵙고, 기도 하는 나의 생활은 분명 부처님이 내신 불연(佛緣)의 결과이다.

21년전에 결혼하여 2남1녀의 어머니가 된 나의 아내는 나보다 더 열성으로 부처님을 찾고 기도하고,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므로 조용한 시각에 앉아서 서로 법담을 나누는 일도 나의 수행방법의 하나이다. 아무래도 가족은 가장 가까이에 있어 서로 주고 받는 믿음의 덩치가 크다고 본다.

아내와 늘 이야기 하는 '1년만이라도 틈을 내어서 절에서 마음껏 수행생활을 해 보았으면' 하는 우리의 서원이 공직은퇴이후에는 이루어질지, 또 그때는 기력이 쇠하여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등등 부처님을 머리와 가슴에 모시고 하는 생각과 대화시간은 참으로 안정되고 흔들림없는 행복한 시간이다.

이 사회의 모든 법죄현상은 전부 검사실을 거쳐서 법원의 재판에 부쳐지기도 하고, 검사의 처분으로 종결되기도 한다. 이것을 가리는 수문장과도 같은 검사로 열심히 봉직하면서 여러 형태의 사람을 보고 나의 수행방법으로 삼기도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다르마)을 검사실에서도 구현하여야 하므로 정의와 인권을 찾고자 하는 끝없는 노력이 자성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비로자나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제불보살 마하살.

연막 소독 살충기



CARNIVORE

(길이 480mm, 높이 260mm, 폭 130mm, 중량 1.4kg)

카니보 2000 하나면
여름이 편안해진다.

모기 및 모든 해충으로부터 해~방!

⊙ 사찰에 꼭 필요한 상품으로 대만족 확신!
⊙ 방역, 소독 필요시 간편하게 사용가능
(어린이도 조작 가능)

농가, 축사, 어촌, 정원, 야외가든, 지하철, 병원, 화장실, 쓰레기장등 소독이 필요한 모든 곳의 전염성균예방

특별보급가 ₩178,000
※ 현 금 가 : ₩140,000

※ 3회 분할가능
※ 각종 신용카드 장기분할가능



· 해충퇴치기 〈안내표시등〉 ₩28,000
※ 별도 판매 가능

⊙ 연막소독기 구입시 해충퇴치기 무료 사은품 증정!

보급처: 한마음 ☎ 051)865-1182 하나하나빨리 ♣크로바서비스:080-007-1182

전국 어느곳이든 배달가능!

부처님조성·석탑·석등·석비·부도·불사건축·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귀의 상보하옵고,
석불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라옵니다

김 인 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 불 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 성 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송도선원 -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장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 전시장 (0357)542-1527 야 간 (0351)874-4685
공 장 (0357)542-1528

관음출판사

♠ 화제의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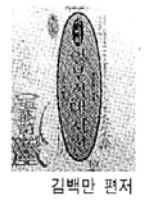
哲學博士 曺誠佑 지음 / 값 15,000원

알기 쉬운 문답식
관상 수상학 강의
딱한번 보고 사람을 알 수 있는
성공 비지니스의 처세술과 운명학

「知彼知己는 百戰百勝」이란 말도 相手를 알아야만 勝算가 될 수 있다는 말처럼 相學이란 分野가 우리 生活과 얼마나 그 比重이 무거운가 하는 것은 再論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家庭에서는 寶鑑으로, 職場에서는 處世指針書로 젊은이 들에게는 社會生活의 必順 參考書로 活用하여 探讀할만한 敎養書로 一讀을 勸誘하는 바입니다
- 周易通信大院長 梁恒庵



송월스님 著
사주학 핵심비결
지금 이때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이책을 펼쳐 보십시요.
당신의 미래의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신국판/값20,000원



김백만 편저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팔려고 하는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부적을 집대성 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A5신/양장본/35,000원



申 玕 지음
古典 풍수학 설심부
눈에는 보고자 하는 뜻이 있고 입에는 먹고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다. 산천은 풍세(風勢)와 수기(水氣)를 이루어서 대기(大氣)를 형성한다.
사람도 여기에서 길리지는 것이니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 하랬다.
값18,000원

관음출판사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광성빌딩 전화: 921~8434 팩스: 929~3470

'IMF 극복과 천만불자 대화합 음악제'

비사 관현악단

창단기념 공연
9월 29일 잠실 체조경기장

관현악 선율 어우러진 찬불가


◇전부기씨


◇길정희씨

IMF, 부도, 퇴출, 실직자…. 우울한 소식만 들려 뭐 하나 신나는 일이 없는 요즘, 예불 '지심귀명례' 음계를 모티브로 한 장엄한 합창을 대 관현악 연주로 듣는다면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용기를 얻지 않을까.

변변한 불교 관현악단 하나 없는 교계에 80여명의 국, 양악 기악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관현악단이 창단되는 것만도 반가운 일인데 '비사 관현악단'이라 이름 붙여진 이 관현악단이 창단 기념으로 9월 29일 서울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IMF 극복과 천만불자 대화합을 위한 대 음악제'를 공연한다.

일반에게도 불교정서가 자연스럽게 스미는 현대적인 음악을 전파하여 불교음악의 대중화를 이루자는 취지로 창단되는 비사 관현악단(단장 길정희)이 7백여 연합합창단과 함께 공연하는 음악제는 총 2부로 이루어진다. 1부는 정부기교수(중앙대 작곡과)의 창작곡 '예불'과 '홀로 피는 연꽃' '우리도 부처님같이' 등 찬불가가, 2부는 불자 국악인들과 연예인들의 특별공연이 마련된다.

'예불'은 △법고 △범종 △삼귀의 △천수경 △오분향례 △예불 △반야심경 △발원문 △보현행원 △사홍서원 △산회가 등 총 11장으로 구성된다. 천수경과 오분향례, 예불은 구전되어 오는 염불을 악보화하여 관현악과 합창으로 편곡하였고 법고와 범종은 그것에 사용되는 리듬을 발췌하여 관현악과 합창으로 재편성하였다. 보현행원과 산회가는 정민섭씨의 곡을 편곡하는 등 국악과 가요,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가 망라돼 있다.

비사 관현악단은 서울에서의 공연후 청주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순회 공연과 미국 등 해외공연, 또 여건이 허락하면 북한공연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IMF체제후 음악공연을 거의 볼 수 없는 교계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대담하게(?) 벌이는 이는 누군가, 바로 '비사문음악예비학원'을 운영하는 길정희단장(36)이다. 길단장은 8년동안 음대입시기숙학원을 운영해오며 불교관현악단의 창단을 위한 정지작업을 다져왔다. 학생들과 틈만 나면 산사에 다니며 기도를 많이 했다는 길단장은 "모두가 우울해 하고 심난해 하는 이때가 바로 음악으로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안해 주어야 하며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전파하는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때"라며 연주활동에서 나온 수익금은 북한 쌀보내기, 대장경 사경 후원 등 불교계에 회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불심시심 〈138〉

나누지 못하는 선가의 살림

我將無限山中景 내 한 없는 산 속 경치로
(아장무한산중경)
請向吾君大略云 그대 위해 대략 말하리
(청향오군대략운)
岩下白飛溪射石 흰 빛은 바위에 날아 시내 돌 쏘고
(암하백비계사석)
月邊淸落磬穿雲 풍경소리 구름 뚫어 달가에 지는 맑음
(월변청락경천운)
日射谷口烟猶織 햇살 골짜기에 빗겨 비단 짜는 안개요
(일사곡구연유직)
風細潭心水自紋 바람은 못 마음에 가늘어 절로 이는 무늬
(풍세담심수자문)
此是禪家眞活計 이것이 모두 선가의 진여스런 삶이니
(차시선가진활계)
欲分其半未能分 반쯤 나눠 주려 해도 나눌 수가 없네
(욕분기반미능분)

무용(無用 1651~1719)대사의 시이다. 이도사(李都事)에게 주는 시이다. 시의 내용은 서로의 처지에서 오는 차이를 느낄 수 없으리만큼 서경의 자연 서술로 일관되었다. 그래서 첫구에서부터 산중의 경지를 전하겠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저 산중의 경치를 모두 안아다 준 것이다. 그러니 정으로 말한다면야 이 이상의 정이 있을 수도 없다. 산사를 에워싼 삼라만상을 한 폭의 지면에 담아다 고스란히 선사한 것이다. 교설적 이야기는 하나도 드러냄이 없이, 이것이 선가가 살아가는 진여스런 방법이라 하였으니, 여여한 이 실상이 바로 불성의 현현이라는 묘체를 은연 중에 담고 있다. 길을 달리하는 속가에게 심오한 교설을 설했다 해서 마음이 전해지는 것도 아니다. 뜰 앞의 잣나무가 불성의 현현이라 하듯이, 내가 처해 있는 이 주변의 실상이 바로 법신의 현현이라는 스님의 교설이 바로 옳은 진제의 전달인 것이다.

이 시는 표현 수사의 묘도 일상적 언어 논리를 초탈했다. 흰 빛이 난다(白飛)하였으나 빛이 날 수는 없다. 시냇물의 격렬함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달가에 맑음이 떨어진다(月邊淸落) 하였다. 풍경 소리가 아득히 울려 달에까지 닿았다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풍경 소리의 맑음과 이 소리가 달에까지 닿았다가 떨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언어적 논리는 모두 일상 논리를 거부하는 것이니, 곧 언어도단이다. 이것이 바로 선과 맥을 같이하는 시어의 활용이다. 사물을 이렇듯이 다정하게 보는 것이 스님들의 자연 사랑이다. 이 모두가 선가의 진여스런 살림이다. 세속인에게 나누어 주고 싶지만 나누지 못하는 것이 역시 아쉽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문화 단신

홍성에 '승무 춤비' 세운다



흰 고깔에 장삼자락을 휘날리며 추는 승무를 형상화한 춤비〈사진〉가 세워진다.

문화관광부는 우리 전통무용을 창작, 집대성해 이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故 한성준선생의 업적을 기리고자 기념비를 그의 고향인 충남 홍성에 건립한다. 가로 190㎝ 세로 150㎝ 높이 263㎝의 규모로 청동과 화강암을 사용하며, 중견조각가 강관육씨가 제작을 담당한다.

'9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추모행사와 연계해 제막식이 9월27일 거행된다.

모짜르트협주곡 실황음반



불자 피아니스트 이경숙씨(경희대 음대 강사)가 국내 연주자로는 최초로 모짜르트 협주곡 E장조 K. 271 전곡의 실황녹음을 담은 앨범을 출반했다. 이 곡은 이경숙씨가 지난 2월 뉴욕 머킨 콘서트홀에서 연주한 실황 음반이다.

양주혜 설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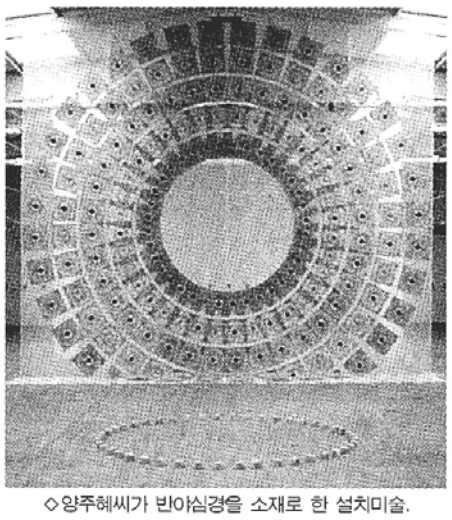
반야심경 소재 '흔적지우기'

9월13일까지 경주 아트선재미술관

'색즉시공 공즉시색….' 〈반야심경〉의 핵심적 의미를 잘 나타낸 이 경구를 설치작품화한 설치전이 9월 13일까지 경주 아트선재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색과 점을 이용한 독특한 설치작품으로 주목을 받아온 양주혜씨가 '흔적지우기'라는 제목으로 갖는 이번 설치전에 등장시킨 텍스트는 반야심경과 바둑돌.

5개의 글자가 한 문장을 이루고 이 53줄의 문장이 다시 원형으로 이어지며 경전이 프린트된 한지에 물감으로 색점을 찍어나가는 행위로써 흔적 지우기와 남기기를 반복한다. 또 전시장 벽면에 일렬로 설치된 바둑돌 역시 바둑돌을 놓는 행위는 바둑판을 채워나가는 동시에 바둑판의 흔적을 지워가는 행위로 이러한 작업은 모두 흔적을 지워나가 '텅빔'에 이르고 다시 그 '텅빔'을 흔적으로 남기는 과정을 보여준다. 양주혜씨는 "이같은 작업을 통해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 역시 색과 다르지 않다는 경전의 가르침을 상징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경숙 기자


◇양주혜씨가 반야심경을 소재로 한 설치미술.


◇석재 서병오作 '墨蓮'(1935년).

石齋 서병오 서화집 나왔다



유 불 선 삼교의 사상을 넘나들며 시인으로 서예가로, 화가로 그리고 가야금과 바둑, 의학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여 '8능(八能)'으로 불린 석재(石齋) 서병오선생(1862~1935)의 시 서 화 삼절집(三絶集 상하 2권)이 출간됐다.

이화문화출판사가 펴낸 이 서화집은 8절판 742쪽 올칼라로 석재선생의 대표작들인 사군자 분란 묵죽 석송 칠언절구 칠언대련 등 총 380여점이 실려 그의 깊은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석재선생의 글씨는 당나라 안진경체를 위주로 했지만 각체를 두루 섭렵한 후에 독창적이면서도 유려한 자신만의 독특한 서체를 창출하였으며 사군자 등 그림들은 대담하면서도 거침없는 필치로 한국문인화의 새로운 기원을 수립했다는 찬사를 들었다.

이번 서화집에는 시서화외에 석재서생이 쓰던 인보와 시 원문, 석재선생의 시문학연구, 서예예술세계, 문인화연구등의글도 실려있다. 값 26만원. (02)738-9880

이경숙 기자

팔만대장경 판각장소 '여러곳'

정동락씨 재질분석 통해 분사도감 위치 추정

고려대장경의 판각장소는 어디일까. 그동안 대장도감은 강화에, 분사도감은 남해 또는 진주라는 게 정설처럼 돼 왔으나 최근 분사도감의 하부조직이 여러 곳에 분산위치해 판각장소로 기능해왔다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고령군과 이산각연구소(소장 안준영)가 공동 마련한 고려대장경 학술발표회에서 정동락(영남대 국사학과 박사과정)씨는 가야산 해인사와 하거사(下鋸寺)가 인적(각수, 필사자, 경판제작자)·물적(경판)자원을 서로 교류하며 대장경 조성에 참여했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인사에서 판각한 〈대방광불화엄경소〉4권의 각수와 〈강화판경 고려대장경〉을 비교분석한 결과 동일연대(1241년경)에 동일인물(7명)이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에서 나뉘어 판각했다는 것은 당시의 교통사정이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한계라는 것. 따라서 분사도감과 대장도감은 서로 근거리에 위치하며, 그 하부단위로 여러 곳에 공방과 같은 판각시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재의 재질 분석에서도 75% 이상이 산벚나무와 돌배나무류이고 자작나무와 후박나무류는 11%밖에 되지 않아 분사도감의 위치를 남해간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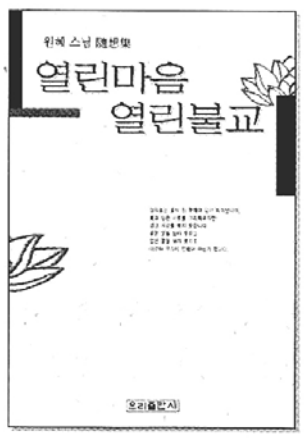
정씨는 △하거사는 대장경을 판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해인사와 인접 지역에 위치 △각수는 물론 서체가 동일하며 △경관의 크기도 거의 같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하거사는 해인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대장경을 조성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와 이산각연구소가 올해 3차례 답사를 통해 확인한 고령군 쌍림면 하거2리에 있는 절터에는 측대와 주춧돌, 와편 등이 널려있고 절 규모와 지리적 여건 등으로 볼 때 대장경을 판각한 하거사지로 추정하고 있다.

윤기석 기자 (gsyoon@buddhapia.com)

원·혜·스·님·수·상·집

열린마음 열린불교



열린 마음은 모든 것의 출발

불교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포교에 애쓰는 원혜 스님의 수상집 《열린마음 열린불교》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진리를 체득한 수도자의 지혜가 한올한올 엮어져 있다.

'저는 열린 마음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불교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다는 一切唯心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갑자기 열린 세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세계가 열립니다.' -본문에서

'나 하나만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에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는 스님의 글을 통해 세상을 '열린 눈, 열린 가슴'으로 보는 수행자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욕망과 이기심에 물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겸손하게 되돌아보게 한다.

원혜 스님 지음/신국판 307면/값 8,000원



죽비 꺾는 아침
미국으로 인도로 파리로 멈고 먼 길을 흐르며 엮은 운수납자 지묵스님의 청정한 죽비소리.
지묵 지음/7,000원



둥지마을 이야기
대부도에서 외로운 고아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둥지마을 아빠 스님 법현의 수상집.
법현 지음/5,000원

백팔번뇌
8만4천의 법문 중 여러운 인생문제에 적합한 말씀의 구절을 골라 내어 모았다.
현재훈 역/7,000원

불교입문
불교의 교리를 세계적으로 해설, 정립한 입문서로 해박한 불교지식을 접할 수 있다.
홍사성 역

우리출판사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02)313-5047, 5056/팩스 (02)393-9696

극락문이 언제 열리는가요

덕진스님 포교·수행담

두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부처님 말씀 귀기울이면 모든 악운이 사라진다

16년째 어린이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덕진 스님의 포교와 수행담을 엮은 수상집이다. '극락문은 언제 열리는가요' '인생묘약' '똥싸서 위안하다' '무소유의 기쁨' '잘 산다는 것은' 등의 주제 아래 덕진 스님의 경험담이 진솔하고 재미있게 담겨 있다.



'곗돈을 떼인 사람이 잠을 못자고 밥을 못먹는다면 첫번째 재앙의 화살을 맞는 것이요, 그래서 건강을 해쳐 병이 나면 두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며, 건강이 나빠져 자신의 직무나 가정일을 못하면 세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 된다.'

《두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를 읽는 동안 출가수행에서부터 포교일선에 이르기까지 겪은 갖가지 이야기들이 삶의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덕진 스님 지음/신국판 288면/값 8,000원

우리출판사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02) 5056/팩스 (02)393-96



'부처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사시다 이렇게 가셨네'

정태혁박사 '붓다차리타' 원전 번역



한문 번역본보다 부처님 말씀 생생히 전달

대부분 불자들이 알고 있는 부처님 생애는 한문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한문 불전은 산스크리트 원전에서 번역될 때 역자가 자의적으로 옮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생애를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주지는 못한다. 담무참에 의해 한역된 〈불소행찬〉이 그중 가장 완벽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것만으로 부처님의 참모습을 알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정태혁 박사(동국대 명예교수)가 〈붓다차리타〉의 산스크리트 원전과 티벳 역본을 저본으로 번역한 〈부처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사시다, 이렇게 가셨네〉(여시아문 刊)는 원형에 가까운 〈붓다차리타〉를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더욱이 〈붓다차리타〉 원전 번역은 한국에서는 초역이라는 성과 외에도 당시 인도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보다 생생히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붓다차리타〉는 인도의 위대한 시인이요, 보살인 아슈바고사(馬鳴)가 기록한 시문(詩文)형태의 석가모니 부처님 전기로 찬불문학의 정수로 꼽힌다. 산스크리트 본은 제14장까지만 남아 있지만 티벳역과 한역에는 28장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부처님 생애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붓다차리타〉의 원전과 함께 산스크리트 원전이 없는 부분은 티벳어 번역본과 한문본을 비교해서 보아야만 한다.

〈부처님, 이렇게 오셔서…〉는 제1장 '왕자의 탄생'에서부터 제28장 '사리의 분배'까지를 원전에 가깝게 그대로 담아 이같은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또 시문의 운율을 그대로 살리고, 어려운 산스크리트어를 설명해 놓아 원저의 바탕에 깔려 있는 인도의 종교와 철학, 전설과 설화 등에 대해서도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정태혁 박사는 서문에서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부처님 생애에 관한 경전이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문본에 의한 것이었다"며 "또 원전을 번역한 외국학자들의 노작들과 비교해도 서로 다르게 표현돼 있어 본래의 모습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용이 시문(詩文)으로 돼 있어 원형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교수의 지적대로 원전과 한역 〈불소행찬〉을 번역한 것은 상당히 다르다. 일례로 제4장 '환멸'편을 보면 〈부처님, 이렇게 오셔서…〉에서는 '젊은 여인들은 유혹을 하려고 태자를 둘러싸고 몸을 맞대면서 통통하고 볼록한 젖가슴을 브이고…'로 표현돼 있는 부분이 김달진씨 번역본 〈붓다차리타〉에는 '그들은 곧 태자'앞에 나아가 제각기 갖가지의 애교부리네. 노래하고 춤추며 혹은 농담을 붙이고…'로 번역돼 있다. 또 23장 '인연을 결정하심'편에서는 '계율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는 표현이 '바른 계율을 떠나면 그것은 짐승의 도(道)를 배우는 것으로서'라고 다소 복잡하게 해석돼 있는 등 의미는 같지만 생생함과 의미전달의 명확성에서는 분명 큰 차이가 난다.

여시아문 윤제학 출판부장은 "이 책이 완벽한 원전 번역본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원전으로의 접근은 어느정도 이뤄졌다고 본다"며 "부처님 생애를 당시의 생생한 원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점 외에도 해독의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화제의 책

화두 짓는 법 — 토방 편집부 엮음

선지식들은 어떤 화두로 정진했나



선은 더이상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근간에 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선수행하는 일반인들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제대로 화두를 들지 않고서는 올바른 참선수행은 어렵다.

〈화두 짓는 법〉은 역대 눈밝은 선지식들이 어떤 화두를 들고 정진했는가에 대한 글을 모은 것으로 처음 참선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안내서다. 좌선의 정의와 함께 성철 청담 만공 한암 송담스님 등 14명 스님의 화두 드는 법과 환구 참선법이 일화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참선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한 생사심(生死心). 그래야만 진정한 의심이 일어난다고. '심(心)'자 한 자에 세상 모든 이치가 담겨 있다고도 하는데… 〈토방, 7천원〉

그대는 누구인가 — 슈리 푼자 지음

"호주머니를 비워라 이것이 자유다"



"호주머니 안에 있는 것만 그대는 잃을 수 있다. 그대는 얻었던 것만을 잃을 수 있다. 빈 주머니로 있을 때, 그대는 무엇을 잃을 수 있겠는가. 그대의 호주머니를 비워라. 이것이 자유다. 그리하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대는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인도의 수행자 슈리 푼자는 〈그대는 누구인가〉에서 수행과 명상을 통해 자유와 깨달음, 평화와 환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몸과 마음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닌 것, 그것을 아는 것이 곧 자유를 찾는 것임을 이 책은 보여준다. 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식을 띠고 있어 이해하기 쉽다. 김병채 교수(창원대 심리학)가 옮겼다. 〈하남출판사, 8천5백원〉

연기사상 알면 과학이 보인다

김용운-용국 형제가 쓴 '프랙탈과 카오스의 세계'

현대과학은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복잡성의 과학'으로 일컬어진다. 이는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써 갑자기 예상 외의 모양으로 변하는 현상을 규명하는 것이며, 프랙탈과 카오스 이론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불교의 연기사상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불교와 카오스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주장해 온 김용운 교수(한양대 명예교수)가 동생 김용국씨(수학문화연구소 부소장)와 함께 펴낸 〈프랙탈과 카오스의 세계〉(우성刊)는 제3의 과학혁명이라 불리는 프랙탈과 카오스 이론이 불교사상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카오스는 '비선형(非線型)'의 예측 불가능한 불규칙적인 물리현상이며, 프랙탈은 '자기닮음(自己相似性)'의 성질을 지닌 도형으로 아무리 규모를 확대하거나 작게 하여도 여전히 같은 형태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현상은 자연, 생명, 물질, 경제 등 일상생활 속에 늘 존재하는데, 이는 곧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의미하며, 이것이 곧 '연기'임을 이 책은 암시하고 있다.



카오스와 프랙탈은 절대적이 아니므로 기준이 일정치 않다. 따라서 '재는 도구'에 따라 길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재는 도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무아(無我)다. 그리고 무아이기에 곧 '공'이라는 것이다. 한명우 기자

'불교와 문화' 여름호



대한불교진흥원에서 간행하는 〈불교와 문화〉 98년 여름호(제6호)가 나왔다. 이번호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특집으로 다룬 '미스터리물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 특별기획으로 다룬 '동서양의 정신세계를 넘나든 보르헤스' 등 두 편의 기획물.

'미스터리물에 대한 불교적 해석'에서는 '환생, 귀신 불가사의한 체험에 대한 불교적 해석' 등 4편의 글을 담았다. 이밖에도 불교계를 진단하는 '우리의 교단체계, 이대로 좋은가'와 '뇌사, 장기이식에 대한 불교의 비관' 등 다양한 내용이 함께 실려있다.

"불교는 카운슬링의 해법"

이광준씨 '카운슬링과 심리치료' 펴내



카운슬링의 개념은 20세기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동서양의 많은 선인들은 카운슬링에 있어서의 인간성 회복의 이념과 같은 사상을 말했다. 사람의 근기와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가르침을 주었던 부처님이 위대한 카운슬러였다는 것은 새삼 얘기할 필요조차 없다. 불교의 성립기에서부터 '본래 자기'의 회복이라는 명제가 부각됐듯이 불교는 다른 어떤 사상보다도 카운슬링의 대표적 종교이자 철학으로 꼽힌다.

이광준씨(동서심리학연구소 장)가 펴낸 〈카운슬링과 심리치료〉(학문사 刊)는 카운슬링과 심리치료의 정의를 비롯해 카운슬링의 목적과 분류, 그리고 심리치료에 대한 카운슬링의 기법 등을 폭넓게 다뤘다. 이와 함께 카운슬링 자체가 '자기통찰'이라는 불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불자들도 한번쯤은 읽어볼만한 책이다.

카운슬링이란 복잡한 심리적 방위로 무장된 갑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깨달아 가는 것, 즉 진정한 참마음의 자기를 검토해 가는 것이다. 카운슬링과 심리치료의 출발은 '인간의 존귀함'에서 비롯되며, 잃어버린 본래의 자기를 회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저자는 카운슬링과 전통사상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불교사상에 주목하고 있다. 우주 만유의 근원인 브라만(梵)과 자아의 궁극적 본체인 아트만(我)은 본래 일체라는 사실을 깨달아 윤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강조한 우파니샤드철학은 '인간구원'의 방법론으로 정의되는 카운슬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또 인간의 본성이 곧 부처라는 '심즉시불'과 '견성과 해탈'로 인격의 성숙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불교는 이미 카운슬링의 영역을 확보해 왔다는 주장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전하고 있다.

또 욕구불만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인간의 이상심리와 카운슬링의 이론적 배경도 함께 설명해 가정이나 직장 사회 속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로 살아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동쪽나라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4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김 홍 근	여시아문
5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 현 준	효 림
6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율 순	신 우 당
7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8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김 종 서	여시아문
9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	맹 란 자	세훈출판사
10	선사들이 가려는 세상	신 규 탁	장 경 각

구입문의:(02)737-0695

'아비담비바사론3' '대승집보살학론外'

동국대 역경원 한글대장경 2권

동국대 역경원에서 〈아비담비바사론 3〉〈대승집보살학론 外〉 등 2권의 한글대장경이 나왔다.

〈아비담비바사론 3〉은 한글대장경 〈아비담비바사론〉의 완결편으로 번역본 60권 중 제41권에서 60권까지의 내용을 담았다.

〈아비담비바사론〉은 부처님의 제자 가전연자(迦旃延子)가 짓고 5백명의 비구들이 해석한 것을 5세기 중엽 인도출신의 학승 부타발마가 도태 등과 함께 한역한 것이다.

〈대승집보살학론外〉에는 〈대승집보살학론〉〈보리자량론〉〈여실론반질난품〉〈방편심론〉〈무상사진론〉〈회쟁론〉〈관총상론송〉〈취인가설론〉〈대승법계무차별론〉 등이 실려있다. 한명우 기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의미를 알면 믿음이 서고, 의미를 알면 실천이 쉽고
의미를 알면 성취가 빠릅니다.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맑디 맑은 신심을 바치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 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행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절에 가면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초심자뿐만 아니라 오래 절을 다녔어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7,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를 바라고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B6 / 3,5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학문열정 후학들에 귀감

암도스님 명성스님 '박사학위'


◇암도스님


◇명성스님

암도스님 '인도불교의 삼학연구'
명성스님 '삼능변의 연구'

포교와 교육에 누구보다 앞장서 진력해 온 암도스님(60 · 조계종 교육원장)과 명성스님(68 · 운문승가대 학장). 이 두 스님이 학문에의 뜨거운 열정과 정진을 지속해 오는 8월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돼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인도불교의 삼학(三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는 암도스님과 '삼능변(三能變)의 연구-성유식론을 중심으로'로 박사학위를 받는 명성스님은 모두 쉼없는 정진으로 포교와 불사(佛事), 후학지도를 계속하면서도 초발심 때부터 변함없이 견지해 온 불학(佛學)매진의 결과물이 이번 박사학위로 이어진것.

암도스님은 "공부할 수록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며 "계정혜(戒定慧) 삼학은 기본적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집중 연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55년 백양사에서 출가한 암도스님은 쉽고 재미있는 법문으로 전국 사찰법회의 초청법사로도 인기가 높아 승속(僧俗)을 가리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선에서 교육해 온 '대표적인 법사.' 암도스님은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이 이번 주제 연구에 바탕이 됐다"고 밝히고 "현재 한국불교계는 선정 일변도로 흐르고 있으나 이는 삼학의 기본정신과 역사적 전개에 대한 연구의 부족에서 야기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박사논문의 중심도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해 부처님께서 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이유를 밝히는 동시에 삼학사상의 역사적 전개와 그 의의를 분석했다. 암도스님은 "삼학의 지혜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지(方便智)로 작용할 때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삼학의 목적이 요익중생(饒益衆生)으로 전이(轉移)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성스님은 1952년 해인사에서 출가한 후, 40여년간 비구니 교육에 전념해온 비구니 승가교육의 산 증인. 특히 이번 학위취득은 지난 1974년 박사과정 수료후 24년만이어서 더욱 뜻깊다고 주위에서 한 목소리. 명성스님은 74년 박사과정 수료 당시, 故 김동화 박사로부터 동국대 강의를 요청받았으나 비구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운문사 강원으로 내려갔을 정도로 승가교육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명성스님은 문하에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홍륜 · 일진 · 계호스님 등은 은사의 뒤를 이어 학문연구와 후학지도에 매진하고 있다. 일진스님(운문승가대 강사)은 "후학들에게 '매사에 임하여 진실하라(卽事而眞)'는 말을 늘 강조하신다"며 "꾸준히 공부하시는 스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말없는 교훈이 되어왔다"고 말했다.

교학중에서도 난해하다는 유식학을 연구, 독보적 경지를 개척한 명성스님은 석사논문 '초능변식(初能變識)의 연구'에 이어 이번 박사논문도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 중 제1송부터 제16송에 이르기 까지 삼능변의 식상(識相)을 해설했다. 명성스님의 박사논문은 우주간의 삼라만상은 모두 일체중생 각자의 주체인 아뢰야식(阿賴耶識)으로부터 전변(轉變)한다는 의의를 고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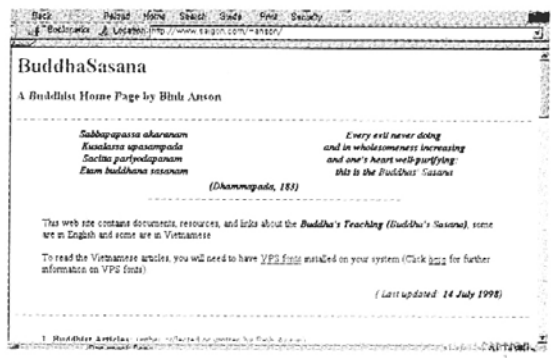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각 대학 불교관련 석 · 박사 주요논문

각 대학별 97년도 후반기 석 ·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됐다. 동국대 박사 6편 석사 14편 등 총20편을 비롯, 서울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 불교관련 논문을 소개한다.

박사학위 〈동국대〉△'삼능변(三能變)의 연구-성유식론을 중심으로'(명성스님 · 운문사 주지) △'인도불교의 삼학연구'(암도스님 · 조계종 교육원장) △'불교사상을 통해서 본 한국사회의 낙태문제연구'(프랭크테데스코 · 세종대 영문과 교수) △'보살사상 성립사의 연구'(이봉순) △'목조선에 관한 연구'(김호귀) △'초기 미망사학파의 제사관 연구'(김재천) 〈한국정신문화연구원〉△'근대 한국불교학의 성립과 종교의식-이능화와 권상로를 중심으로-'(이재헌)

석사학위 〈동국대〉△'법화경'에 나타난 비유의 사상성 연구'(김영일) △'선무외삼장(善無畏三藏)의 생애와 사상 연구'(이중석) △'원측의 해심밀경소 연구-삼성삼무설(三性三無說)을 중심으로'(양재경) 외 10편 〈서울대〉△'화엄불교구원론에 관한 연구'(고명선) 〈원광대〉△'법화경 교의사상 전개'(강보승) △'북한의 불교정책과 대북한 포교방안에 관한 연구'(강의중) 외 3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고려후기 백련결사에 나타난 정토사상'(김양순)


BuddhaSasana

A Buddhist Home Page by Binh Anson

Sabbapapassa akaranam
Kusalassa upasampada
Sacitta pariyodapanam
Etam buddhana sasanam

Every evil never doing
and in wholesomeness increasing
and one's heart well purifying:
this is the Buddhas' Sasana

(Dhammapada, 183)

This web site contains documents, resources, and links about the *Buddha's Teaching (Buddha's Sasana)*, some are in English and some are in Vietnamese

To read the Vietnamese articles, you will need to have VPS fonts installed on your system (Click here for further information on VPS fonts)

(Last updated: 14 July 1998)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부다사사나

불교논문등 영어-베트남어로 소개
자비실천 등 20가지 덕목 '눈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여러 논문과 원전에 관한 소개가 영어와 베트남어로 제공되는 사이트가 '부다사사나(Buddhasasana)'이다.

베트남 불교학자 빈 안선박사가 개설한 이 사이트는 불교전반에 대한 여러 논문들과 자료들이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베트남 불교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에피소드 중심으로 불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 불교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들이나 일반인들이 큰 어려움 없이 불교의 맥을 짚어낼 수 있다.

이 곳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와 논문들은 총 41편. 여기에는 △달마의 세가지 서약 △명상과 회생의 유용성 △빠알리어 대장경에 대한 개괄적 검토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불교와 환경보호운동 △숲 속의 맑은 영혼 △불교와 민주주의 △진실한 불자의 행로 등이 있다.

'빠알리어 대장경에 대한 개괄적 검토'에는 경전의 결집과정, 율, 논 삼장의 의미가 잘 설명되어 있다.

'불교와 환경보호운동'은 베트남의 가장 유력한 불교잡지 편집장인 티얀스님의 글이다. 티얀스님은 이 글에서 "25세기 전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신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생명체와 환경의 보호"라고 강조했다.

티얀스님에 따르면 수천년동안 산속이나 숲속에 건립된 사찰은 인간과 자연이 얼마나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채식주의자인 스님들은 사랑과 자비의 정신으로 야생 동물들과도 조화롭게 살아 왔다는 것이다.

티얀스님은 "외부환경이 심하게 오염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이미 황폐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이며 "만족하면서 산다는 것은 지식과 진실에 관한 갈망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라며 스님들의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에서 환경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진실한 불자의 행로'는 스리랑카의 유명한 선승인 마하나야케스님이 영국 사드하타사(Saddhatissa) 국제불교센터와의 인터뷰를 게재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마하나야케스님이 현대의 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것으로 꼽은 20가지 실천덕목은 지금까지 영국불자들의 생활 지침이 되고 있다고 한다. 실천덕목에는 △가난할 때 자비를 베푸는 것 △높은 직위에 있을 때 수행하는 것 △경전 읽을 기회를 얻는 것 △욕망과 욕정에 종속되지 않는 채 그것들을 간직하는 것 △사물의 존재성과 비존재성을 규정하는 마음을 억제하는 것 △물질적인 유혹을 견디어 내는 것 △폭넓게 공부하고 모든 사물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 △평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 △타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면서 그들을 교화시키는 것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교리에 관한 개괄적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과 근본 가르침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한 '살아있는 부처' 등도 열람해 볼직한 글들이다. http://www.saigon.com/~anson/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왕권과 승단의 관계
남방-북방불교 '상반'

송위지교수 '지역간 불교위상 비교'

상좌부 불교를 온전하게 유지 발전시킨 남방불교 지역과 대승불교를 받아들여 새로운 형태로 재발전시킨 북방불교 지역에서 종교와 국가권력과의 관계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

송위지 교수(외국어대)는 〈외대사학〉 제8집 별지로 발행된 '남방불교 지역과 북방불교 지역간의 왕권과 승단의 위상비교'에서 "남방불교에서는 왕 스스로 왕의 존재 이유에 대해 불교를 보호 ·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반면, 북방불교는 왕권에의 도전, 타협을 거듭하며 불교가 가지고 있는 애국적 개념과 왕권의 우호적인 입장에 대한 보답으로써 호국불교의 형태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송교수는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대표격인 스리랑카와 중국 불교를 비교, 종교적 문화현상이라는 측면에서 왕권과 승단과의 관계를 고찰했다.

종교적 문화현상은 종교를 수용하는 계층의 사회적 위상이나 요구에 의해 종교적 입장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되는 현상.

송교수는 "스리랑카는 승단 그 자체가 보호의 대상이 되어 영국 등 서양세력의 침입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불교 법난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중국불교는 왕권신수적인 왕은 곧 하늘(天)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수용, 왕권과의 타협 속에 기존의 중국 사상들과 조화를 이뤄나간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한불연 직지사서 여름연수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은 제25회 여름연수를 8월13~15일 경북 직지사에서 갖는다.

불교의 생활화 · 지성화를 통한 대중문화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목표로 열리는 여름연수의 이번 주제는 '신심명(信心明)'으로, 정병조 교수가 지도법사로 참석한다. 참가비 6만원. 30일 접수마감. (02)3411-6167

불전국역연 수강생모집

중앙승가대 부설 불전국역연구원(원장 지하스님)은 '한역 및 산스끄리뜨어 불전연구' 수강생을 모집한다.

△산스끄리뜨어문법 기초 · 중급 △화엄학 특강 △유식학 연구 등이 개설돼 있으며 강의는 9월부터 시작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31일까지. (02)929-9991

학술단신

美 도심불교축제 '관심'
명상등 신행활동 확산

미국의 6 · 7월은 도심 한 가운데서 명상을 선보이고 법회를 여는 오본축제, 종교자유축제, 티벳축제 등 불교축제가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동양의 종교축제가 이렇듯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

LA타임즈 종교전문기자 테레사 와타나브가 '동양의 신앙을 맛본 미국의 문화'란 주제의 글을 발표, 미국에서 불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를 진단했다.

이들 불교축제에 본토 미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 와타나브는 "조용한 곳에서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불교 수행은 이미 집단적 종교집회를 선호하는 미국인의 신앙형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인의 생활관으로까지 확대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경향은 불교신자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 조차 고통스럽고 복잡한 사회보다는 자유로운 종교적 수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상에서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인들의 종교관의 혁신은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는 광범위한 평등주의, 세계주의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티벳난민의 수공예품
네팔 경제살리기 '일조'

티벳난민들의 수공예품이 네팔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힌두교 상징물과 힌두교도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카투만두 중심가에 우뚝 선 보다나트 사원과 카올라렐 수공업 센터는 네팔에서의 티벳난민들의 종교와 사회생활을 잘 보여주는 네팔의 명물이다.

이 곳의 티벳난민들은 보다나트 사원에서 티벳불교와 티벳 전통풍습을 지키고 카올라렐 수공업 센터에서 카페트를 포함한 전통적인 불교수공예품을 만든다. 이 공예품들은 네팔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고가품으로 팔려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한편 네팔 경제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팔에 거주하는 티벳 난민들은 2천여명. 타쉬 남갈스님(티벳망명정부 네팔책임자)은 "티벳인들은 망명지에서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수공업 센터와 같은 곳을 설립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나의 조상은 누구인가? 성씨대보총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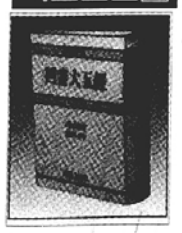
순한글 완역본 뿌리, 275명문성씨 동방에의지국에 문하추동 사계절이 뚜렷한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백의 민족으로 태어났으니 전부가 귀족의 후손이요, 양반의 송자들이라. 나의 시조, 중시조 웃대는 무슨 벼슬을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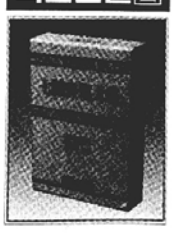

성씨대보 총람(전4권) 특별선물1 2 ₩150,000원

* 4×6배판 전4권 총6,000여면 희귀원색 자료 150여면 호화영구 소장본
정 가(4권) : 480,000원
책임감수 前충남대학교대학원 柳 正 基교수

⊙ 국내최고 방대한 한글완역

【대한민국 성씨대보 총람(상( )) 제 1권】
· 275성씨별 총설 · 시조의 연원 · 본관 · 세거지 변천사
· 집성촌 · 단군왕조 이래 201위(位)역대임금 존영과 업적을 칼라로 수록
【대한민국 성씨대보 총람(상( )) 제 1권】
· 원형그대로의 옥새와 마패등 유물 칼라로 수록
· 세계표, 항렬표, 역대인물, 성씨별 인구분포도
· 현대인물 · 묘원, 서원, 명당, 정려, 행의문과 소재지
【대한민국 성씨대보 총람(상( )) 제 1권】
· 역대위인 3,000여 위(位)존영
· 400여 독립유공자 존영과 투쟁사
【대한민국 성씨대보 총람(상( )) 제 1권】
· 시조, 중조, 파조, 선조영정 · 성씨 본관별 세계표와 묘소, 제우 · 효자각, 열녀문, 신도비, 묘비등 성씨별 유물과 유적지등 칼라 집대성
※ 가정교육 · 사회생활 · 면접시험에 호도 · 예절 · 조상의 얼을 가른대대로 후손들에게 전달 전통적 문화생활에 즐서하려면, 먼저 가문을 알고 자기를 생각하고 기회를 만들어 사회에서 달려라!

특별선물1

◆ 현대인에게 새로운 비전을 정립해줄 동양 고전의 정수
◆ 4×6배판 1,020면 사서대오경 정가 : 50,000

특별선물2

◆ 수백년동안 우리 선조들이 갈고 닦아온 문화민족의 위대한 유산
◆ 4×6배판 1,020면 칠세서도대전 정가 : 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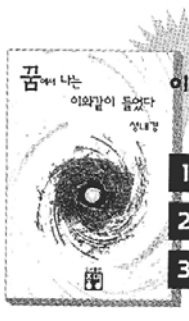
구입방법 · 총 금 액 : 580,000 · 특별현금가 : 150,000 · 할 부 가 : 50,000×4회
(02)231-7323~5
뿌리찾기중앙회

현대의 지식인들은 무식해질 필요가 있다!!!

최정상 불멸의 법화사상의 전모와 진수

꿈에서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I II III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무식으로의 여행이다.
계속 무식해지고 무식해져서 무식이라는 낱말조차 붙일 수 없을 때 진리가 드러나리라.
지식으로 도(道)를 얻을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다면 세상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모두 다 도사(道士)가 되었을 것이다.


꿈에서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성내경

이화여대 성내경 교수의 하룻밤 꿈 이야기
전 3권 완간!!!
1권 길은 길이 아니고 도는 도가 아니다
2권 걸림없고 위없는 길을 찾아서
3권 해와 달이 빛나면 어둠은 없다



이 책과 인연있는 사람에게 바라거니와 받아서 가득 찬 마음보다 주어서 덩 빈 가슴이 될지니 이로써 보살행, 무치행을 하소서 성내경 지음/각 권 15,000원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보약도 나쁘이다■정력제는 없다■화장을 지워라■담배가 그렇게 유해한가■착한 일을 행하지 말라■예환동물은 사람이 아니다■운동을 하지 말라■참된 종교와 사이비 종교■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건강 염려증■병도 소질이 있어야 걸린다■여자는 자식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차라리 패라! 교육은 이해나 설득이 아니다■봉둥이 외에는 약이 없다■악법은 법이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다■웃기지 않는 것은 도가 아니다■성불도 인연따라 일어난다■스스로 최상승의 근기를 만들라■표법연화경을 머리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부처님은 왜 이 세상에 나오셨는가■악법은 법이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다■

中明 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인간을 밝게하여 준다는 뜻의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도서출판 중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82 태수빌딩 201호 TEL:636-6873 FAX:636-6874

한형조 무문관 탐방 60

마조의 횡설수설

선정통해 경험 확장 개발

길 막히면 뚫거나 날아가야지 돌아서면 안돼

* 어느 승려가 물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마조가 대답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 나 혜개가 말한다. "여기서 보는 바가 있다면 공부를 마쳤다."

* 송하여 가로되, "길에서 검객을 만나면 칼을 바쳐라. 그렇지만 시인이 아니거든 시를 바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3할만 설할 것이지 전체를 내보여서는 안된다."

非心非佛:

馬祖, 因僧問, 如何是佛. 祖曰, 非心非佛. 無門曰, 若向者裏見得, 參學事畢.

頌曰, 路逢劍客須呈. 不遇詩人莫獻. 逢人且說三分, 未可全施一片.

이 공안은 앞에서 살펴 본 바 있다. 처음 마조는 제자들에게 즉심시불(卽心是佛)을 가르쳤다. 그 가르침에 눈뜬 학인들이 많았다. 그러다가 마조는 어느날부터 비심비불(非心非佛)이라고 딴 소리를 했다. 액면 그대로 보자면 이런 황당무계가 다시 없다. 즉심시불과 비심비불은 180도 다른,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명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禪)은 이 두 명제 사이에 모순은 없다고 말한다. "마음은 부처이다"와 "마음은 부처가 아니다"는 결국 같은 말이다. "마음도 부처도 아니다"도 동일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 삼단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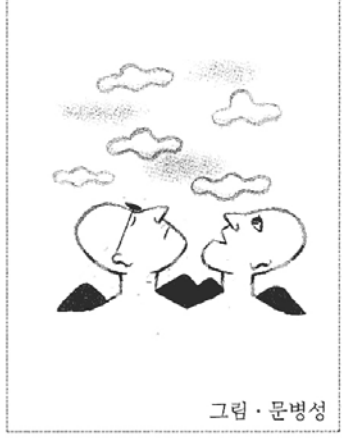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법의 젯바퀴나 모순율(矛盾律), 배중률(排中律)의 논리적 규약은 빛을 잃는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논리학은 감관을 통한 지각과 그를 통합하는 이성의 일차원적 세계를 전제하고 있다. 당연히 인간의 경험이 갖는 보편적 측면, 그리하여 공유와 대화의 최소공약을 떠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불교는 경험의 '수직적 차원'에 더욱 주의한다.

이 차원은 평면적 일차원적 논리로 접근할 수 없다. 논리를 굳이 써야 한다면 역설과 반어, 그리고 이중의 흔적지우기라는 변증을 통할 수밖에 없다. 이는 논리적 규약에 매인 언어가 실재를 나타내기에는 불완전한 도구임을 자각한 결과이다. 언어는 진리를 곧바로 지시(refer)해주거나 그와 대응(correspond)되지 못하고 항상 미끄러지고 빗나간다. 그러니 모든 언설은 언 발에 오줌누기거나, 무문혜개의 표현을 빌면 격화소양(隔靴搔痒)!일 뿐이다.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장님이 있었다. 친구는 그에게 하늘에 떠다니는 하얀구름을 알려주고 싶었다. 온갖 사물로 시시각각 모습을 바꾸는 그 황홀한 메타모르포시스(變身)의 무도를. "하얀 구름이 있어, 알 수 있겠어." "그게 어떤 건데." "음, 그건 겨울에 내리는 눈처럼 말이야…" "아, 그럼 아주 차갑겠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양털같은 건데…" "포근하고 푹신한 거란 말이지." 친구는 점점 난감해 졌다. "아니, 네가 매일 먹는 우유색깔인데, 그게…" "저런, 축축하고 질척거리겠네…" 친구는 여기서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었다.

장님에게 색깔을 알려줄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지각의 범주 내에서 맴돌며 시각을 '번역하려' 한다. 우리도 깨달음이라는 초월적 경험을 일상의 논리나 범주화된 언어로 접근하려 한다. 장님의 노력처럼 그것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깨달은 선각(先覺)은 언제나 "아니, 아니"를 연발할 수밖에 없다. 네티 네티(neti neti)! 불교가 '부정적 방법(via negativa)'를 선호하는 것은 우리의 시도가 근본적으로 길을 잘못 들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다.

마조는 말한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비심비불은 아무런 구체적 적극적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것은 마조의 말에 귀기울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를 알려줄 뿐이다. 그럼 어떡할 것인가, 이 야멸찬 문전박대에 걸음을 돌리는 학인들이 많았다. 길도 끊겼고 문도 없다면 이제 포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사람들을 마조는 또 막아선다. 심즉시

선정(禪定)을 통해 경험의 차원을 확장하고 개발함으로써만 기약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선(禪)이라 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선사들은 마음을 놓는다"

잭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20



미국 L.A 근교 한 사찰에서 49일간의 염불대회가 열린 적이 있다. 그런데 49일간 한 자리에 앉아서 염불정근만을 계속하는 이 대회가 과연 올바른 수행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꽉 짜여진 일상에 지칠만큼 지친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대회에 참여했다면 무척 답답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상에서 우리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긴장

정정진 ③

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방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즐겨 찾는 습관들을 다스리고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습관이 일상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가' '우리가 잠자면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등을 알게 된다. 또 '아니다' '멈춰서라' '깨어나라' 등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간에서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를 알 수 있다.

하루는 사원 뜨락을 걷고 있는 아잔차스님에게 한 사람이 "스님의 수행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청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우리의 마음에 그 해답이 있지"라고 대답했다.

사실 선사들의 수행법을 그대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다. 이를테면 명상에 임하여 마음은 어떻게 가지는가? 그러나 특별한 것은 거의 없다. 선사들은 항상 있던 그 자리에 자신의 마음을 놓아둘 따름이다. 사람들은 또 묻는다. "그렇다면 스님은 아라한인가요?"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까?" 그러나 선사들의 눈은 '깨달음' '아라한의 경계'를 보지 않는다.

"내가 누구인가" 자연스럽게 심신 탐험 진실을 보게된다

잎이 무성하고 꽃 피고 열매 맺는 한 그루의 나무는 나무일 뿐이며 새들이 날아와 열매를 먹고 둥지를 틀 뿐이다. 다시말해 나무는 나무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며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일화는 정정진이 담고 있는 바른 노력을 잘 설명해 준다.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해 가고 뜻밖의 선과(善果)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일 매주 매월 '깨달음을 얻겠다' '세간의 문제를 풀겠다' '자신을 변화시키겠다' 등과 같은 특별한 목표를 지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깨달은 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라마나 마하시는 "깨달음은 두 가지의 길(고정)에서 얻어진다. 하나는 자기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 서 있는 곳을 정확히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을 화두로 옮기면 "내가 누구인가"이다. 이 공안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탐험하고 무엇인가 발견하도록 한다. 탐험과 발견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은 내것이 아니라 네것이다"와 같은 생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실을 보게 되고, 우리의 망심 즉 분별심이 사라지고 진정한 불성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 특히 교육받은 전문 직업인들 가운데 대도시를 떠나 소도시나 시골로 옮겨가 좀더 한적하고 소박한 삶을 찾겠다는 이들이 많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만일 진흙을 한웅큼 손에 쥐고 꽉 쥐어짜면 흙물이 손가락 사이로 줄줄 흘러나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탈출구를 찾는다. 여섯 감각기관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지식은 발달해 봤자 감감한 한 부분으로서일 뿐이다. 현세의 문제들에 답하게 되려면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알고 사바세계의 어두움 저 위에 비추고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삼독에 휩쓸려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교화는 결코 변하거나 퇴색하는 법이 없다.

"남이든 자신이든 속이지 말라. 남에게서든 자신에게서든 훔치지 말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세간의 문화를 지휘하고 끌어가는 것은 욕망이다. 부처님의 교화는 자비와 법 그리고 진리자체를 안내자로 삼는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69

불교와 수학 64 업

김 용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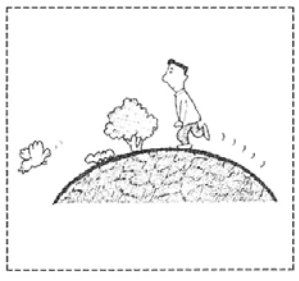
불교는 약 2천5백년전 인도 소왕국의 왕자의 몸으로 태어난 석가모니에 의해 창시된 종교이다. 그의 교리 속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인도의 사상·종교적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부분도 있다.

어떤 종교적 창조에도 모태가 있으며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다. 인도의 전통적 사상인 힌두는 '범아일여(梵我一如·대우주의 본체인 브라푸만과 개인의 본질인 아트만은 일체이다)'를 주장하는데 이 입장을 완전히 부정하고 철저하게 '무아(無我)'를 주장한 것이 불교이다. 그러나 업에 따른 윤회사상은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힌두사상은 〈우파니샤드〉에 결집하고 있다. 그것은 윤회전생(輪廻轉生)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여러 단계의 생을 갖는다는 업(갈마)의 법칙과 유일절대의 실체이자 영원한 보편적인 존재인 브라푸만(梵天)의 원리로 성립한다.

갈마(業)의 법칙에 의하면 사람은 생애를 통해서 여러 업을 축적한다. 그 업은 인간의 욕망, 본능, 물욕, 노여움, 시기질투 등의 삼악(三惡)에서 발생한다.

인간은 사후 곧바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이때 전생에서 축적한 업이 클수록 천하고, 고통이 많은 것으로 태어난다. 이승에서 얕은 계급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의 업의 결과임, 그 속에서 반항하거나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고 자신을 억제하면 보다 나은 내세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이나 벌레도 전생



개인생애 · 민족역사 되먹임의 축적 무아론의 불교 '무엇이 윤회하는가'

은 인간일 수 있다. 노예도 귀족도 전생의 업으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필자는 10여년 전 인도여행을 하면서 엄격한 카스트(계급)사회를 목격했다. 카스트제를 주축으로 하는 계층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는 업의 생각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일이 매우 적절함을 쉽게 직감할 수 있었다. 불교는 이 윤회사상을 통해 자비와 실상계로 고도의 도덕심을 갖게하며 특히 스스로의 힘으로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절대적 구제가 가능해진다.

불교는 카스트의 제일급인 브라만 계급의 승려에 의해 독점되고 경직화된 형식주의, 타락한 힌두교의 본질을 승화, 인간화시키는데서 출발했다. 그러므로 윤회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중생에 대한 구제의 길을 크게 열어 놓은 것이다.

아(我·본질)의 존재를 인정하는 종교인 힌두에는 윤회사상은 명확한 논리적 근거가 있다. 그러나 무아(無我·본질이 없다)의 불교에 있어서는 '무엇이 윤회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명쾌한 답이 없다. 이 물음에 대해 어느 학자는 벌레가 식물을 먹고, 그 생명이 벌레의 생명 속에 재생하고, 벌레가 새의 먹이가 됨으로써 그 생명이 생의 생명에 재생되고… 인간의 생명 역시 여타의 생명체에서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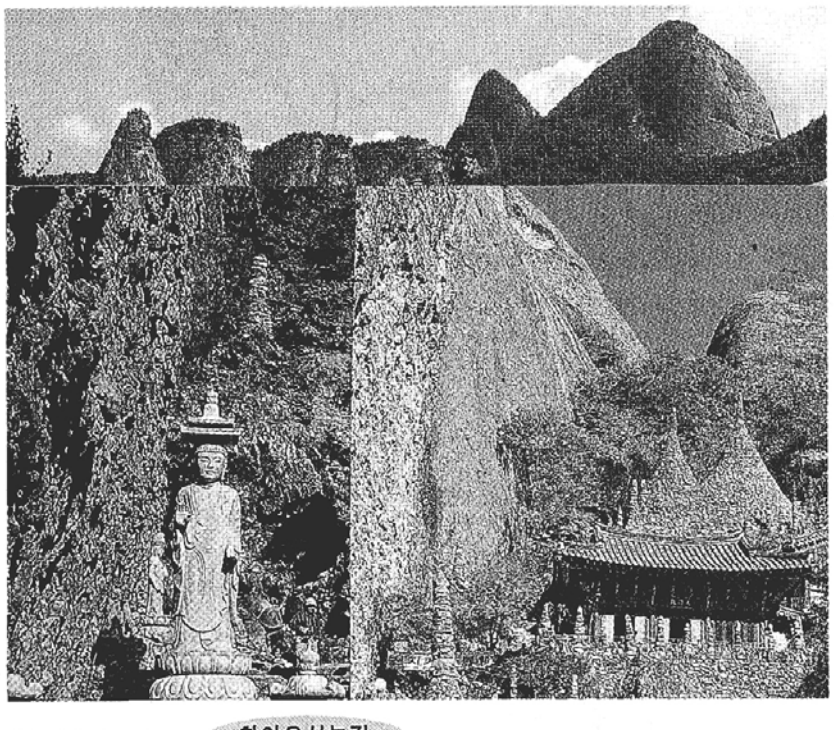
인간이 죽으면 대지에 돌아가 식물의 영양이 된다. 이와같이 각 단계의 생명을 윤회전생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먹이가 된 것은 물질이며 이 순환은 단순한 물질순환에 불과하다. 본래 윤회는 정신적인 순환이며 정신이 여러 물질적 생명 상이를 전전해가는 상태를 말한다.

가끔 전생의 기억을 가진 사람이 나와 화제를 모을 때가 있으나 그 내용은 애매하며 아무도 정확히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설령 전생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전생을 믿었던 고대 인도인들은 인간이 전생의 기억이 없음을 재미있게 설명한다. '사람이 태어날 때 모태에서 좁은 산도를 통해 이승에 나오는데 그 때 머리를 강하게 압박받음으로써 전생의 기억을 잃는다.' 그러나 이 설명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필자는 윤회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여긴다. 업은 전생, 내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승에 있다고 믿는다.

인간의 어떤 정신적 육체적 언어적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마음, 육체, 사회에 그 흔적을 남긴다. 수양이 쌓이고 지식이 축적되고 몸이 단련되는 것도 모두 업의 결과이며 심지어 최고의 경지인 부처도 될 수 있다. 개인의 생애, 민족의 역사는 모두가 과거로부터 미래로 향하는 되먹임의 축적으로 여겨진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화제의 새 책

"귀신의 병은 100% 낫는다."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기를 통해 저승길로 인도하는 연화심 보살의 영능력 세계!

뚜렷한 병명 없이 아픈 사람들이나 신이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닌 연화심 보살

"기를 모으면 영혼을 부를 수가 있는데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생에서 지은 업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나죠.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혼들을 사후세계로 보내주면 혼령이 붙어서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씻은 듯이 낫게 됩니다."
-〈여성중앙〉-

신국판 240쪽/값6,000원

영혼을 천도하는 연화심
김점기 지음



• 읽고 난 후 저자에게 문의하실 분은 전화주세요.
• 서울: 지장정사 02)651-3880 • 부산: 보운사 051)523-5262

도서출판 정신세계사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5호 중앙B/D
전화: 3474-3521(영업부) 팩스: 3474-3524

시방세계

부다피아 인터넷 쇼핑몰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십시요 !
★★ 부다피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http://mall.buddhapia.co.kr
☎02)732-1522
F. 02)737-0697

초탈자의 무애자재한 사랑 담는다

오페라 '원효'

'98 경주 문화엑스포 기념행사

경주 불국사 가람 배경으로
1300년전 초월적 사랑이야기
9월 18~20일 그믐 밤하늘 아래
301명의 성악가 · 연기자들 재현

"당신의 높은 뜻 어찌 모르리오만 울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는 몸 가진 우리는 어이하리까, 어이하오리까, 대사님…."

"가야하오. 시작이 있으되 끝이 없는 저 길 가야하오. 무애 무애 무애…."

애틋한 사랑. 원효스님을 붙잡으려는 요석공주의 절절한 아리아와 묵직한 테너로 울려 퍼지는 원효스님의 무애가(無碍歌).

1300년전 신라의 도읍 경주 저잣거리에서 뒤웅박을 두드리며 무애가를 불렀던 원효스님. 거지들의 소굴에서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가르치고 요석공주와의 하룻밤 사랑 이야기를 남겼던 원효스님이 경주에 환생한다.

오페라 '원효'가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3일간 하루 한차례씩 불국사 야외 특설무대에서 공연된다. 대구시립오페라단이 천년 고찰을 배경으로 펼치는 천년전의 사랑 이야기. 중생제도를 위해 한 몸을 온전히 던지는 초탈자의 무애자재한 사랑과 그를 사랑하는 공주의 애틋한 사랑이 오페라를 통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될 전망이다.

98 경주 문화엑스포 기념 행사로 마련되는 오페라 '원효'의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한 여름의 더위를 마다 않고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대구시립오페라단 단원들. 그 연습 현장을 엿보기만 해도 푸르른 신라의 하늘 가득 뒤웅박 소리를 띄워 놓고 "무애 무애…"를 외치는 원효스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하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층 연습실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씩 신라의 땀이 된다. 목줄기를 타고 내리는 굵은 땀방울을 연신 훔쳐내며 잠시도 악보에서 눈을 떼지 않는 성악가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벌써 두달째 이어지는 연습을 통해 단원들은 오페라 전체의 흐름을 충분히 파악했다. 다음달까지 성악과 합창, 교향악단이 따로 연습을 하고 공연 보름전부터는 하루 8시간씩 합동연습을 할 계획이다.

연출가 김효경(서울예전)교수는 "이번 공연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긴장된다"면서 "충분한 연습으로 연기자간의 팀웍을 최대한 살려내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무대 장치나 조명 등 부대설치에도 가장 한국적인 이미지 형상화를 위해 세심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연 조연급 성악가 32명과 성인연기자 10명, 아역연기자 2명, 특수연기자 3명 합창단 1백20명, 교향악단 75명 제작진 60명 등 연인원 3백1명이 동원되는 오페라 '원효'는 대구 경북지역 음악인들이 총출연하는 한바탕의 잔치이기도 하다. 주연과 조연에 캐스팅된 성악가 모두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경주시립합창단과 경북도립교향악단의 호흡도 잔치를 더욱 징업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야외무대라는 특징을 살리는 것도 이번 공연의 큰 묘미다. 불국사 경내에 설치되는 무대는 사찰 그 자체를 훌륭한 무대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된다. 제작진은 공연 일정이 그믐밤으로 잡혔다는 점을 활용, 특수 조명을 통한 환상적 분위기를 창출해 관객을 1천3백년전의 신라로 이끌고 갈 것이라고 귀띔.

무엇보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동식 무대장치가 돋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막으로 구성되 작품의 흐름에 따라 각각의 막을 다른 각도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무대를 동서남북 4방향에 따로 배치한다. 이는 청운교 백운교 등 불국사 경내의 건축물을 무대 뒷배경으로 사용하면서 공간적 변화를 통한 내용의 진행을 실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의자를 사방으로 돌려 앉으며 오페라를 관람하는 재미를 선사 한다는 의도다.

총제작비 1억5천만원을 들이게 될 이번 공연에 제작진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신라와 현재라는 시공간적 편차를 환상적 분위기를 통해 좁혀낸다는 것. 또 하나는 원효스님의 자비행을 통해 인간의 사랑과 중생구제의 자비행이 오늘날 경제위기 속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의 매개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원작 자체가 원효스님의 사상과 초월적 인간애를 담고 있지만 자칫 요석공주와의 세속적 사랑이야기가 지나치게 강조되지 않도록 한다는게 연출가의 의도다.

신라의 후예들이 원효스님의 무애자재한 자비행과 중생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글쳐 보일 오페라 '원효'에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대구시립오페라단 단원들이 더위도 잊은채 1300년전 원효스님의 무애자재한 자비행과 요석공주의 사랑이야기를 소재로 한 오페라 '원효'를 연습하고 있다.

오페라 '원효' 어떤 작품인가

원효스님의 수행과 자비 그려
장일남씨 4년간 창작 심혈

불교 오페라의 대표작인 '원효'는 '비곡'으로 널리 알려진 장일남씨(한양대교수)가 1971년 법정스님의 조언과 도움으로 4년여간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작품이다.

모두 4막인 '원효'의 제1막은 원효스님이 의상스님과 함께 당나라로 구법 여행을 기다가 밤중에 해골 바가지의 물을 마시고 아침에 도를 얻게 된다는 잘 알려진 이야기다. 이어 4월 초파일 연등놀이가 한창인 경주 분황사를 배경으로 원효와 요석공주, 요석을 사모하는 거칠마루 장군등의 사랑 이야기가 결쳐진다. 원효스님이 대안스님의 뜻을 따라 중생구제를 위해 저잣거리로 나간 뒤 요석이 원효스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짓는 대목이 압권이다. 중생을 향한 원효의 큰 사랑과 원효스님을 사모하는 요석의 사랑이 자아내는 애절함은 눈물겹도록 아름답다.

제3막은 잘투심에 눈이 먼 거칠마루가 원효를 살해하기 위해 보낸 자객들을 물리친 뒤 요석공주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 밧줄에 묶여 요석궁으로 끌려 가면서도 무애자재한 원효의 모습이 묘사된다. 그리고 4막에서는 요석궁에 이르러 공주의 사랑을 받아 들이는 장면, 요석궁을 나와 은내빌에서 거지들과 어울려 무애행을 펼치고, 아들 설총을 안고 나타나 세속의 영화를 함께 누리길 애원하는 요석을 거절한채 뒤웅박을 두드리며 합창에 "무애가"를 부르며 사라져 가는 원효스님의 뒷모습 등이 애잔한 음악과 함께 어우러진다.

오페라 '원효'는 1971년 김자경 오페라단에 의해 처음 무대에 올려진 이후 24년만에 글로리아 오페라단에 의해 서울에서 두번째로 무대에 올랐었다. 9월 경주 공연은 처음으로 야외무대에서 공연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작곡가 장일남씨가 불국사 석굴암에서 힘겨하며 완성한 이 작품의 세번째 공연을 위해 불국사 무대에서 직접 지휘봉을 잡게 된 것과 초연때 원효역을 맡았던 김원경씨(계명대 음악대학장)가 27년 만에 다시 원효 역을 맡게 된 것도 재미를 더하고 있다.



◇장일남씨

인터뷰 오페라 '원효' 예술감독 김 완 준 씨



"올 가을 공연되는 오페라 '원효'는 우리 민족의 문화 가운데서도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자비와 초탈의 사상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페라 '원효'의 연습장에서 단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체크하며 성공적인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김완준 예술감독. 그는 야외무대에서 공연되는데 대한 부담이 적지 않지만 최선의 연습으로 완벽한 공연을 창출해 낼 자신에 차 있다. "올 여름 휴가도 반납하고 연습에 매진하는 단원들이 고맙다"고 말하는 그에게 더 고마운 일은 종교가 다른 단원들이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종교적 편견을 털어내 버린것이라 귀띔해 준다. 그 역시 가톨릭 신자로서 원효스님을 오페라의 주인공이 아닌 시대의 스승으로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페라 '원효'는 외국의 오페라와는 달리 전설이나 세속적 사랑을 초월한 고도의 정신세계가 표출되어야 하는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원효스님의 무애행이 더욱 절실한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서 걸림없는 사랑, 즉 자비의 행화로 이어지는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표현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경주 문화엑스포 공연 오페라로 '원효'와 '처용' 두 작품이 거론 됐었지만 아무래도 우리 민족의 정신과 신라의 정서를 제대로 알리는데는 '원효'가 제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배경도 김감독에게는 불국사 야외무대에서 원효스님을 환생 시키는데 중요한 화두가 아닐 수 없다.

"휴가 반납 연습몰두 단원에 감사"
"중생구제 보살행 극적 표현 역점"



◇1971년 김자경오페라단에 의해 초연된 오페라 '원효', 올 9월 공연에서는 초연때 원효스님역을 맡았던 김원경씨가 27년만에 다시 원효스님역을 맡게 된다.



◇1996년 글로리아오페라단의 공연 장면. 무열왕이 원효스님(맨 왼쪽)에게 요석공주의 애틋한 사랑을 받아들여 궁중에 머물 것을 청하는 모습이 진지하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과학문명 노예로 전락한 인류 구하는 길은 조사선"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 법어

오늘날 현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미래를 내다볼 때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잡한 인류의 생활속에 훌륭한 정신이 정립되지 않아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정신원리에 바탕하여 세계 역사를 새롭게 재창조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과 세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조사선입니다. 선의 밝힘을 통해 세계역사 문명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가를 서로 대화하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대중은 근기가 얕아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전통이 사라지고 자신만의 독특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으며 허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허무주의를 자각하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의식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 의식은 주관과 객관이 대립해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세계에서는 주관주의적 입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세계는 반드시 초월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절대모순에 빠지는 의식을 '망식'이라고 합니다. 선에서는 이러한 절대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의식을 투과하고, 무의식도 투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투과하는 방법이 바로 '공안'에 의한 참선수행입니다.

> "모든 대립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선의 입장입니다"

보통 화두에는 1천7백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든 하나를 투과하게 되면 모두 투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두는 의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무의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면 인간의 참모습, 자유자재한 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 화두를 공부하려고 하면 이미 틀리는 것입니다. 첫째, 화두는 주·객관없이 한덩어리가 되는 의심, 의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생각이 들고 끊어지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의심하다 보면 순일하게 의심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둘째 과정입니다. 화두를 공부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의심이 주·객관이 없는 순수한 의식이었다면 거기서 더 용맹스럽게 나아가면 의식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럴수 있나' 의심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초등학생때 1백미터 경주를 해본 것을 생각해 보세요. 1백미터를 뛰는 동안에는 오직 뛰는 그 한생각 뿐이었지 않습니까.

무의식에서 성성하게 나아가면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하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해 인간을 완전히 초월해버린 경지입니다. 시 공간도 없고 생사도 죄악도 없는 자유자재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고 자유로운 자리가 있습니다. 그 깨달은 자리를 다시 투과하는 것입니다. 처음 깨달은 자리가 일체를 투과한 자리라면 다시 일체가 현성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또 투과하면 일체를 현성하고 일체를 투과하는 그것이 원래 분명해집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들어가고 또 들어가게 되면 무한히 투과하고 무한히 현성하면서 아주 자유자재한 자리가 됩니다.

이러한 선의 경지와 현대문명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살아있는 종교라면 이것에 대해 대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인류는 과학문명의 발달로 편리하게 살게됐지만 살아가는 것이 복잡해지고 제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정신을 잃은 것은 주체성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잃고 주체성도 없이 훌륭한 역사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선을 통해 자유자재하게 되면 주체성을 확립하여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과학문명의 노예로 전락한 인류를 구제하는 길은 선밖에 없습니다. 서양의 종교철학은 모두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은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자비화합을 바탕으로 서로 함께 살아가자는 정신입니다. '나'라는 것이 '무아(無我)'로 의식도 투과하고 무의식도 투과하니 걸림이 없습니다. '아(我)'가 없고 대립이 없습니다. 하나로 통해 자비화합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자비심으로 모든 대립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선의 입장입니다. 그 길이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길입니다.

서옹스님과의 만남-그룹 인터뷰

"삶과 깨달음 둘아닌 하나"

8월18~22일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개최되는 '국제 무차선회' 본행사에 앞서 7월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백양사 설선당에서는 '서옹스님과의 만남-그룹 인터뷰 대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종림(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묵(경국사) 혜묵(비백교학연구소장) 일수(백양사 운문선원장)스님과 김지견(대한전통불교연구원장) 심재룡(서울대) 전병재(연세대) 교수 등 국내 불교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선(祖師禪)에 관련한 문답과 깨달음에 이르는 길과 그 경지에 대한 서옹스님의 선견(禪見)이 활발히 전개됐다. 〈편집자 주〉



참석자
- 지선스님(백양사 주지)
- 종림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장)
- 종묵스님(서울 경국사)
- 혜묵스님(비백교학연구소장)
- 일수스님(백양사 운문선원장)
- 김지견(대한전통불교연구원장)
- 김용정(동국대 명예교수)
- 심재룡(서울대 교수)
- 전병재(연세대 교수)
- 허인섭(비백교학연 연구원)

●조사선·임제선에 관해

-조사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서옹: 의식과 무의식을 투과하여 일체를 투과하고, 일체를 현성하여 원융무애하고 자유자재한 인간의 참모습을 찾는 것이 조사선입니다.

-조사선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서옹: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일상생활 그 자리 자체가 조사선입니다.

-마조스님의 '평상심이 도(道)이다'라는 말에서의 '도'에 대해 〈육조단경〉이나 혜능스님은 설법을 통해 '도는 마음에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평상심 그 자체에 '도'가 있는 것이지 평상심을 벗어나서는 '도'가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옹: 평상심 그 자체가 '도'인데 그 바탕에는 일체를 두한히 투과하는 걸림없는 자유자재가 있습니다. 그 바탕에 근거하지 않는 일상생활이라면 안됩니다.

●선 수행과 화두 참구에 관해

-무한 참구로 들어가기 이전에 준비해야할 다른 단계가 있습니까.

△서옹: 자신이 생사를 모든 일체를 투과할 수 있다는 뜻이 중요합니다. 그 뜻이 없으면 안됩니다.

-깨달음을 얻어 모든 일체를 투과하고 원융무애함을 유지하는 그 주체성을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체를 투과해 원융무애함을 느낀다면 그것을 느끼는 주체성, 정신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서옹: 정신도 주체성도 투과하는 자유자재입니다. 그러나 자유자재 하더라도 주체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 일체를 무한히 투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투과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노력이 필요합니까?

△서옹: 투과하는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그 힘을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과할 때의 그 힘은 어떤 조작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세상사람들이 으해하는 것이 깨닫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본래 자리를 찾았으니 더 이상 노력할 것이 없는 완성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옹: 무한히 투과하는 작용은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무한히 형성하는 것이지 죽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투과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좌선수행을 할 때 몸이 완전히 사라지는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의식과 무의식의 투과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서옹: 올바른 자리는 아니지만 참선의 과정입니다.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화두만을 생각하며 정진해야 합니다.

-스스로 무상의 체험을 통해 참나에 대한 의문점이 일어나 참구를 한다면 굳이 큰스님에게 화두를 받지 않아도 그것 자체로 화두로서의 가치를 갖습니까?

△서옹: 화두로서의 가치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변함없이 끝까지 참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화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형식화된 화두가 오히려 선을 정체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서옹: 자기만의 화두를 갖다보면 비뚤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단으로 화두를 들어도 되지만 잘못되기 쉽고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화두를 드는 것입니다.

-화두로 순일하게 들어가면 의식과 무의식이 투과되어 자유자재가 되는 가운데 화두가 타파되는 순간은 어떤 때입니까.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 조사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
> "의식과 무의식을 투과하고 또 투과하여 원융무애하고 자유자재한 인간의 참모습 찾는 것입니다"

△서옹: 그것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화두가 완전히 타파되는 순간은 무한히 투과되고 무한히 형성되는 경지에서 화두가 해결됩니다.

-그런 후에는 다른 화두가 또 필요한지, 아니면 화두를 다시 들 필요가 없는지요?

△서옹: 그 자리에서는 화두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자유자재합니다.

-스님의 말씀 가운데 '투과되고 투과된다'는 말이 마치 어떤 단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수행 내부에 단계가 있는 것입니까?

△서옹: 투과되고 나면 다시 더 투과되는 경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돈오점수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서옹: 돈오점수와는 다릅니다. 돈오점수는 지혜로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오돈수한 뒤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하고 차원이 달라진 상태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철스님 생전에 학자들과의 돈점논쟁이 진행됐었습니다. 스님께서도 돈오돈수를 주장하고 계시지만 입장이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서옹: 성철스님은 돈오돈수하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돼 더 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성철스님을 만나 돈오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투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철스님도 깨달은 후의 더 깊이 들어가는 경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을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오도송을 읊으십니다. 오도송은 일부러 지어낸 것입니까, 내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까?

△서옹: 그대로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의식을 투과한 상태인데 의식해서 나오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큰스님들은 한문에 익숙하고 한문적 소양이 있어 자연스럽게 한문으로 게송을 읊지만 한글세대 스님들은 한문을 능통하게 하지 못합니다. 일상용어를 사용한 한글게송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서옹: 꼭 한문으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가 깨달음의 내용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함을 아시고 근기에 맞게 소승법부터 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어려운 조사선만이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가게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서옹: 부처님의 깨달음의 극치를 살릴 수 있는 자리가 조사선입니다. 그것만이 인류역사창조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생이 모두 알 수 없다고 해서 근원을 없애버리면 방편으로 여러 중생을 구제하는 일 조차 할 수 없게됩니다.

-지금 우리의 화두는 〈벽암록〉 등 옛 중국의 화두입니다. 이제는 한국적인 화두를 큰스님들이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옹: 어느 종교든 전통을 무시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전통을 모두 없앨 수도 없고 현대말로 하는 것도 없앨 수 없으니 둘을 잘 조화해 나가도록 하면 됩니다.

-삶이 깨달음의 목적인지 깨달음이 삶의 목적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서옹: 그것이 둘이 아닙니다. 둘로 보는 것이 망상입니다.

-공안을 참구하는 간화선의 문제점과 그것을 극복, 수행자가 바른 깨달음을 얻

여시아문의 책들은
수행하는 불자들의 도반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주머니 속 대장경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주머니속 대장경 101



20C의 정신적 흐름을 주도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모태는 '불교'였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1쪽/ 값 5,500원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 등 숱한 수식어로 둘러싸인 이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20C 후반에 활동하는 전세계의 작가와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그의 작품 전반에는 불교적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그가 체득한 불교 교리의 핵심!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주머니속 대장경 201



티베트의 학승 초펠 스님이
한국말을 배워 직접 편역한
티베트인들의 수행지침서 '보리도차제'

초펠 스님 편역
B6 변형 178쪽/ 값 4,000원

삼사도(三士道)에 따른 수행의 길을 제시하면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투철한 믿음과
기초 수행을 더 중시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만날 수 있다.
티베트인들의 심세 인과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절대적 신앙은
생활환경과 사고방식이 확연히 다른 우리 불자들에게도
소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주머니속 대장경 502



획일적인 교육으로 갖가지 병폐를
낳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장,
그 해결책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는다.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눈높이 교육'의 처음이라 할 '대기설법',
'천상천하유아독존'으로 밝혀 놓은 인간의 절대적 가치 존중,
이러한 교육관이 우리의 교육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차원의 교육이 이 땅에 정착되어 갈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야말로
개인의 잠재능력을 스스로 발현하게 하는 가장 바람직한 미래형의 교육관인 것이다.

여시아문은 '듣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6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서옹스님과의 만남-그룹 인터뷰

"걸림없는 일상이 조사선"



◇지선·일수·종림·성본·종묵·혜묵·금강·월호스님 등이 질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선·허인섭 연구원, 김지견 박사, 심재룡 교수, 전병재 교수.

깨닫고 나면 완성된 자리입니까

"무한히 투과하는 작용은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무한히 형성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서옹: 간화선이 단조로운 수행체계라고 하지만 단조로우면도 일체를 통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하기만 하면 아주 자유자재하게 통하므로 그 재미가 큽니다. 또 깨달음의 경지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정등하므로 올바르게 의심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정진하면 됩니다.

-돈수의 입장인지 점수의 입장인지에 따라 행동지침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선수행에 지침이 되지 않을까요.

△서옹: 돈오점수는 보조스님이 주장한 것으로, 돈오 그자체가 지혜에 의해 깨달은 것으로, 번뇌망상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점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돈오돈수는 의식과 무의식을 투과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것이므로 번뇌망상이 없는 자리입니다.

-사념처 수행법과 조사선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서옹: 화두는 부처님이 깨달은 그 근본을 해결하는 것이고 사념처는 구경의 깨달음까지 가기 위한 수행법이지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참사람(眞人)에 관해

-근원적으로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인 입장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참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사람으로서 원융무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조사선입니까?

△서옹: 참사람의 의미를 자유자재하다는 뜻으로 정의했으나 이것을 의식차원에서 '아트만'이라고 망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선입견을 갖고 받아들여 오해하면 안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바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인'이라고 하는 이상적 인격이나 훌륭한 사람의 모습은 조사선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자에도 그와 비슷한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서산대사는 '불교만이 훌륭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며 유·불·선 3교가 모두 훌륭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옹: 진인이라는 말은 여러 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차원은 모두 다르다고 봅니다. 다른 분야에서 말하는 진인은 무의식도 투과하지 않은 진인입니다. 말은 같아도 내용은 틀립니다.

●염불 수행에 대해

-참선을 하지않고 염불만 하더라도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염불과 참선을 겸해서 해야합니까. 염불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서옹: 염불은 일반 대중이 알기쉽도록 하기위한 방편입니다. 불교에는 방편이 많습니다. 일체중생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위해 쉬운 길을 방편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선을 여법히 투철하게 수행해 모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길이 어렵다면 방편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옹스님의 수행에 대해

-언제 확철대오하셨습니까?

△서옹: 50살 때 쯤입니다. 백양사에 있을 때였는데 어느날 점심 무렵 물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확철대오했다는 판단이 스스로 섰는지 확인받은 것입니까. 선지식이나 법거량을 통해 확인받은 것은 없습니까.

△서옹: 스스로 기연에 따라 확철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체험이기 때문에 말로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스님의 행장이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깨침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서옹: 내가 견성치 못했으면 오늘 여기서 설파할 수 없어요. 분명히 듣고 있으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해.

-수행과정을 회고해 볼 때 가장 아슬아슬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서옹: 총무원에 있을 때입니다. 행정책임을 수행하다보니 뜻대로 되지도 않고 책임은 나에게 돌아오니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일이 수행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지요.

-정화 당시부터 종조 문제로 시비가 있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님과 절친한 향곡스님과 성철스님은 종조를 누구로 보십니까

△서옹: 우리 셋은 모두 태고 보우스님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팔지보살의 경지'에 들어가도 색신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견성을 하면 색신은 완전히 끊어집니까.

△서옹: 견성을 하면 색신은 이미 색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참선수행을 하다보면 생리적 현상으로 색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합니까.

△서옹: 끝없이 정진하는 힘만이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선과 현대사회

-스님께서는 선의 입장에서 보면 본래 모순과 대립이 없고 현실 그자체가 자비화돼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셨지만 현실은 빈부의 차이나 계급의 차이 등 문제가 있어 대립이 있고 투쟁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 대립이 없다고 참선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사회 병폐는 어떻게 치유합니까

"참선을 통해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산다면 과학문명의 피해 사라져요"

△서옹: 참선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비화합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부부와 자식, 형제들이 모두 의견이 맞아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병폐들은 어떻게 치유를 해야합니까?

△서옹: 과학문명의 병폐는 인간이 과학문명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참선을 통해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산다면 과학문명의 피해는 사라집니다.

-과학문명이 인류에 공헌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서옹: 과학문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살리는 과학문명이 아니라 결국 모두를 죽게 만드는 과학문명이 되었으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며 생기는 스트레스, 컴플렉스 등 많은 고민들을 푸는 방법이 현재는 향락과 쾌락 밖에 없는 듯합니다. 스님께서 조사선의 높은 경지를 들어보임으로써 현대인들의 고통을 선을 통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옹: 선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지 서구에서는 이미 선이 크게 흥하고 있습니다. 곧 선을 통해 불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백양사=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기사님처 '큰스님 수행한담' 쉽니다.

나와 경전 63

대승본생심지관경



최 성 렬
조선대 교수·철학과

대학에 입학한 직후, 내 가슴에 와 닿았던 부처님 말씀은 '일체유심조'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수를 거쳐 후기대학에 입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지 일류를 향한 재수의 방편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을 수 밖에. 그런 내게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화엄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를 매료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였다. 재수냐? 불교냐?의 기로에 서고만 것이다. 햄릿보다 더한 번민이 계속되었다. 궤도를 수정키로 한 것은 달포를 방황한 후였다. 그 날 이후 '일체유심조'는 번민이 아닌 불은(佛恩)으로 내 마음 속에 자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 말의 참 뜻을 이해한 것은 불과 5년 전이었다. 다섯 글자를 이해하는데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 셈이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들이 귀찮게만 여겨졌다. 그리하여 때로는 연구실 형광등을 소등한 채로, 또 어떤 때는 아예 문을 잠그고 컴퓨터 앞에 앉아 내 시간에 충실하였다. 성격탓이 아니라 그만큼 일이 바쁘고 밀린 일이 산더미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대상포진으로 강의고 뭐고 뒷전으로 미룬 채 2주일을 쉬어야 했다. 그리고 2년 후, 이번엔 강의 도중에 쓰러지는 일까지 생겼다. '이러다가 잘못 되는 것은 아닐까? 일체가 유심조라고 했는데…'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무리하지 말라는 무언의 충고인 것을, 그제야 편안한 마음으로 불청객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때 펼쳐든 것이 바로 〈대승본생심지관경〉이다. 10여년 전, 모 잡지사의 청탁으로 이 경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었다. '일체유심조'가 설해진 화엄은 물론 반야·유마·법화·열반 등 대승의 경전이 총망라된 이 경전으로 대승불교사상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경의 어제서문(御製序文)에는 당나라 고종(650~683) 때, 현재의 스리랑카인 사자국 왕이 범본(梵本)을 보내주었다고 하였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 경이 중국에 전해진 것은 7세기 무렵일 것이다. 그 후 원화(元和) 년간(806~820)에 반야삼장 등 8인이 왕명에 의해 8권 13품으로 한역하였는데, 이 한역본은 현재 대정장(大正藏) 제3책에 수록되어 있다.

이 경은 석가모니께서 기사굴산에 계실 때 문수사리·미륵 등 여러 대보살들을 위하여 설하신 것이다. 경의 줄거리는 출가하여 아란야에 머물 때 어떻게 심지(心地)를 관해야 망상을 없애고 불도를 성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경의 이름을 〈대승본생심지관경〉이라고 한 것은 이 경을 설할 때 여러 가지 본생설화와 비유를 곁들여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출가위주의 수행을 권하고 있는 이 경의 중심사상은 경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심품(觀心品)'에

본생설화 비유로 심법 자세히 설명
화엄 반야 유마 등 대승사상 총망라

있다. "마음으로써 주인을 삼아라. 마음을 잘 관하면 해탈할 수 있다. 중생의 마음은 마치 대지와 같다. 오곡과 오과가 대지에서 생산되듯이 심법은 여래를 낳는다. 이러한 인연으로 삼계는 오직 마음이고, 마음을 이름하여 지(地)라고 한다"며 심지를 관하는 법을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을 〈본생심지관경〉〈심지관경〉이라고 약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이 경의 중심사상은 이른바 부모·중생·국왕·삼보의 네 가지 은혜와 보은이 설해진 '사은품'과 '보은품'에 있다. 〈대보적경〉이나 〈정법염처경〉에서도 사은에 관한 언급이 있지만 이 경에서처럼 그 체계나 수행법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나아가 미륵신앙이나 대승계를 설하여 출가자 본연의 자세를 밀교적 수행법으로까지 연결짓고 있다. 그리고 보은은 무상보리의 마음을 내어 불도에 들고 삼보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 경을 설한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가 갈 길을 밝혀준 〈대승본생심지관경〉. 이 경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

이게진 아나운서가 우리절 홍보 보좌관!



우리절 우리스님
방송시간
(50분간 1회본방 3회 재방)
매주 화요일
09:10~10:00
13:25~14:15
22:00~22:50
매주 일요일
18:40~19:30

" 불교텔레비전 '우리절 우리스님'에 출연하길 참 잘했어요."
언제봐도 믿음직한 불자 아나운서 이게진씨가 우리절 자랑에 발벗고 나섰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가는
프로 '우리절 우리스님'에 나가 풀어놔보세요.
가슴속은 시원해지고 어깨는 으쓱해진답니다.

* 출연문의 : 불교TV 영상사업부 02)3270-3368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tn
불교 TV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마음바다에 번뇌물결 쉬면 '해인삼매'

월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11

바다와 용

"바다는 관음보살 상주 도량" 용은 호국·호법신으로 등장 반야용선, 중생 극락길 인도

〈대방광불화엄경〉 중에 '해인삼매(海印三昧)'라는 말이 있다. 가야산 해인사의 이름도 여기서 유래한다. 화엄경의 세계관은 일심법계로 요약된다. 즉 물들이 없이 진실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 영원한 진리의 세계가 바로 법계, 연화장세계라는 것이다. 진실된 지혜의 눈이란 청정무구하고 원만무애한 지극한 마음이며, 이것이 곧 해인삼매의 경지이다. 삼라만상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세계로 나타내는 커다란 바다의 도량이다.

자극한 마음을 왜 바다에 비유하는 것일까. 불교에서는 한량없는 마음의 바다에서 일고 있는 무명(無明)의 바람을 접고, 망령된 번뇌의 물결이 쉬어야만 본래의 진실된 마음이 드러난다고 한다.



◇자애로운 눈길로 바다를 굽어보고 있는 낙산사 해수관음상.



◇죽어서라도 동해 용왕이 돼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의 유해가 안치된 경주 감포 앞바다 대왕암. 불교에서의 용은 불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초월적 존재로 묘사된다.

바다와 인접한 사찰 창건설화에는 언제나 관음보살이 등장한다. 〈화엄경〉에 의하면 관세음보살은 남쪽 바닷가 광명산에 머물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관음신앙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 유명한 조사(祖師)들과 관련된 사찰창건설화에도 관음보살이나 용, 용왕이 많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의상대사가 동해용으로부터 수정염주와 여의보주를 얻어 관음보살을 친견한 후 낙산사를 창건했다는 이야기이다. 자장율사는 당나라에서 기도중 문수보살에게서 부처님진신사리와 가사를 받고 귀국, 아홉마리의 독룡들을 설법으로써 항복받고 연못을 메워 그곳에 금강계단을 쌓았다. 또 통도사에는 '해장보각(海藏寶閣)'이 있다. 개산조(開山祖) 자장율사를 모신 조사당으로 자장율사 영정 외에도 고려대장경판본이 가득차 있다. '해장보각'이란 이름 그대로 대장경을 바닷속 용궁에 보관해 뒀음을 의미한다. 신라고승 명랑법사는 해룡(海龍)으로부터, 보양선사는 서해 용왕의 아들 이목을 데리고 돌아와 작갑사를, 진표율사는 용왕으로부터 옥과 가사를 받고 그 권속의 도움으로 금산사를 중창하였다.

이처럼 용왕·용신은 천룡팔부(天龍八部·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의 하나로 불법에 귀의하여 정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경전에 보면 '난타'와 '우파난타라'라는 용왕은 부처님이 태어나자 한줄기는 따뜻하고 한줄기는 차가운 청정수를 토해내 탄생불의 몸을 씻겨 줬다고 한다.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 남해 보리암, 강화 보문사는 우리나라 3대 관음기도도량으로 유명하다. 이 사찰들의 공통된 특징은 일망무제의 시원한 바다를 절마당으로 삼고 있다는 것으로 관음보살의 진신이 이곳에 상주한다는 믿음에서 연유한다. 특히 관음보살이 거주한다는 인도의 보타낙가산(補陀洛迦山)에서 이름을 따온 낙산사는 의상대사가 동해 용으로부터 수정염주와 여의보주를 얻어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난 후 창건한 관음 제1도량이다. 이후부터 바다는 우리나라 불교와 인연을 맺어 관음신앙의 도량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수월관음도

〈화엄경〉에서 관세음보살은 영원한 구도자 선재동자가 남쪽 바다에 있는 보타나가산에 이르러 만나는 28번째 선지식으로 등장한다. 즉 세간의 구제는 물론 정신적 구원, 곧 영원한 해탈의 경지인 법계로의 진실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고려불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수월관음도에 잘 묘사돼 있다. 맑고 깨끗한 물가에 관세음보살이 결가부좌하고 앉아 중생을 위해 설법하고 있으며, 때때로 선재동자의 방문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수월관음도는 합掌, 염주, 보주, 그리고 절터를 예시한 한쌍의 청죽(靑竹) 등 의상대사의 관음친견과 관련된 것들이 그대로 표현돼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반야용선

흔히 법당을 중생들이 극락갈 때 타고 가는 반야용선에 비유한다. 반야의 지혜에 의지해 고뇌의 차안(此岸)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사찰의 벽화나 그림에서 보면 반야용선은 부처님과 탑을 싣고 있으며 극락으로 가는 중생들로 가득하다. 그 앞부분은 용의 머리로 장식해 용선을 이끄는 구실을 한다. 바닷가에 접해있는 사찰의 법당은 대개 반야용선을 상징한다. 여수 흥국사는 그 대표적인 예로 기단은 바다를 상징해 거북 게 해초 등 여러 바다생물을 조각하고 정면계단 양쪽에는 용을 새겨 호위하는 형태를 취했다. 또 창녕 관룡사의 경우는 거대한 바위가 반야용선이다. 천연의 바위가 배 모양을 그대로 닮았으며, 옛 신라인들은 반야용선처럼 이곳 맨머리족에 부처님 한 분을 모셨다. 험한 물길을 부처님 모시고 만편히 가라는 뜻이다.

■호국룡

〈삼국유사〉에는 용이 불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초월자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으며, 사찰의 법당이나 탑 등에 무수히 조각된 용도 모두 호법신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불교는 호법룡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경주 황룡사는 553년 진흥왕이 궁궐을 지으려다 황룡(黃龍)이 나타나 절로 고쳐 짓는데, 이 황룡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호법룡으로 이후 자장율사에 의해 용왕의 아들로 범왕의 명을 받아 황룡사를 지키고 있음이 밝혀진다. 또 감은사는 죽어서라도 동해 용왕이 돼 왜구의 침략을 막겠다는 문무왕의 호국정신이 깃든 곳으로 금당 아래에는 용으로 화현한 문무왕이 들어와 쉴 수 있도록 배려한 유구가 지금도 남아있다. 이밖에 영주 부석사의 선묘설화, 울산 망해사의 처용설화 등 사찰의 창건연기에서 호국룡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윤기석 기자(gsyoon@buddhapia.com)

■불교미술에 나타난 용

이문 법당지붕 조각 火魔 눌러
용뉴 용틀임 형상의 범종고리

불교에서의 용조각이나 그림은 용도에 따라 뚜렷한 성격을 띠고 있어 흥미롭다. 법당의 지붕위에 장식된 용은 이문(螭吻)이라 해 목조건축물에서 가장 우려되는 불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범종의 용뉴에 조각된 용은 바다의 고래를 무서워해 고래 모양의 당목으로 종을 치면 우렁차고 힘차게 우는 포뢰(蒲牢)로 돼 있다. 탑비에 조각된 비희(贔屭)는 무거운 것 지기를 좋아하고, 산예(狻猊)는 연기와 불을 좋아해 향완에, 공하(蚣蝦)는 물을 좋아해 다리의 기둥에 새기고 있다.



◇용두보당.

■ 범종의 용뉴: 범종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용뉴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통일신라시대의 용은 종에 몸을 굳게 밀착시켜 살아 움직이는 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고려의 용은 맥이 풀린 듯 음관에 몸통을 기대고 있다. 조선초기의 종은 두 마리의 용이 서로 여의주를 사이에 두고 희롱하는 모습을 띠며, 조선후기의 용은 몸체에 비해 엄청나게 큰 얼굴에 성글게 난 버드렁이 등이 익살스럽기만 하다.

■ 고달사지 원종대사혜진탑비(보물 6호)의 용두: 앞을 응시하는 큰 눈과 꽉 다문 입, 뒤로 힘차게 휜 갈기 등 박진감이 넘친다. 조각이 대담무쌍하며 한국 탑비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 용두보당(국보 136호): 금속으로 제작된 고려시대의 당간지주로 당간의 정상에 용두를 조각, 매우 생동감있고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높이 73.8cm.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혜진탑비의 용두. 금방이라도 살아움직일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조각이 뛰어나다.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반야용선. 통도사 극락보전 바깥 벽화. 지방유형문화재 194호.



◇대웅전은 용이 있음으로 화려하면서 위엄을 갖추게 된다.

불·자·들·의·필·독·잡·지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8년 여름 호 제6호(통권26호)



지상중계 / 불교방송 교리강좌 회향법회
박성배 교수에게 듣는다 ③
불교, 어떻게 믿고 닦을 것인가

컬러회보 /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⑥
복장물에 담긴 서원

불교계진단 ⑤ / 우리의 교단체계, 이대로 좋은가
조계종의 교단제도와 운영의 문제
한국불교의 교단체계와 세계불교국가의 예
조계종 제도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화광 / 음악(교성곡 웅성)
미술(정비파 석굴암 판화전)

인터넷 불교 / 달마가 인터넷으로 간 까닭은?

불교문화의 현장 / 팔만대장경 주제음악 발표회

현대인을 위한 새로운 수행법
'아바타' 프로그램과 사람이 사는 길

山寺法談 ② / 부처님의 손길처럼 따스한
성철 큰스님

특집
세태분석 / 미스터리물에 대한 불교적 해석
환생, 귀신, 불가사의한 체험에 대한 불교적 해석
불자로서 풍수사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길
수맥 붐! 미신인가, 과학인가
점과 사주에 대한 불교적 해석

특별기획 / 세계의 사상가와 불교 ④
동서양의 정신세계를 넘나든 보르헤스
그의 삶, 그리고 불교와 포스트모더니즘을 조명하고 주요한 작품 몇 편을 소개한다

세계의 불교
싱가폴 불교의 현장 - 윤회의 길, 인간의 길

한국의 미 ④ / 한국의 종이 (韓紙)

생명과 불교 / 뇌사, 장기이식에 대한 불교의 비판

생태탐사기 / 생태적 관점에서 본 능가산 개암사

고전산책 / 백파 스님과 추사 김정희의 불립論
백파영의 수필 한 편과 편지글(추사의 證白或書)

발굴 / 홍인표 거사의 염불왕생법
정토 경, 논, 집 / 약사여래, 지장보살

불교와 문화 정기구독 신청 문의 Tel 02-719-1855, Fax 02-719-5052

생전예수재 법회시 설법자료, 법보시 책 및 예수재용품 보급안내



생전예수재의 공덕

생전예수재의 공덕
생전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생의 빚과 량, 예수재의 의식, 저승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예수재 행사 동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으며 불자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명단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신국판 72페이지 ⊙ 법보시 특가 1,500원
생전예수재 용품(1,500원, 2,000원)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감로출판사 ☎ (02)723-4306~7, 팩스 : (02)738-8682

봉축위원회 지정업체
여름 불교 학교 현수막 제작 보급
일시 : ○월 ○일~○월 ○일 장소 : ○○사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
대한불교 △△종 ○○사



▲ 번캡(모자)



▲ 불자의 집 교패 크기 5.5cm×7cm



앞면



뒷면

▲ 부채 크기 21.5cm×29.5cm



▲ 어린이용 T셔츠 (양면 20수)



▲ 성인용 T셔츠 (실켓 60수)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02)723-4306~7, 팩스 : (02)738-8682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베풀면 베푼만큼 불어서 돌아와요



그림 · 최주현

"시든 야채나 불쌍한 사람 물건은 깎지 않고 일부러 더 사줍니다 내마음 아프지 않기 위해서죠"

말 한마디도 섭섭지 않게 따뜻이 해야 아픈사람 보고 마음 내는 것도 보살행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는 것은 좀 더 지혜를 넓히고, 마음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걸림없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불교다 하면 어렵게만 생각하시고 머리 깎은 사람만 하는 공부인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체 세계, 우주 전체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불교죠. 살아있는 생명의 근본이 '불'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교'인 것입니다. 풀 한 포기만 살아있어도 불교인데 네 종교 내 종교 따지는 것은 어찌보면 우스운 일이죠. 모두를 포함한 것이 바로 불교인데 말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또 한마음이라는 그 자체는 그냥 송두리째 진리로서 초월해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뚜렷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를 두루 살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십시오. 궁금한 게 있는데도 물지를 않으면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중심이 잡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하는 것도 없는 걸 배우고 있지만 사람이 지혜를 넓히기 위해서는 내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남의 얘기도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스님들을 공부시킬 때 삼 년을 바릿대를 들려서 내보냈죠. 그 이유는 지혜를 넓히기 위해서였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 데라도 가서 부딪쳐 보고 그래서 요만한 것 하나도 진리 아님이 없음을 배우는 게 필요했던 것이죠. 지금은 빨리 살다가 빨리 죽는 세상인데 한철 살다가 가면서 이런 공부를 모르고 납득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한다면 또 이 세상에 등장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넘어선다면 등장을 안해도 되죠.

그렇게 광대하고 무변하지만 맛을 모르고 있으니 지금 공부해야 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공부를 하면 안되죠. 스스로 우러나야 되는 거죠.

이런 예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시장에 다니다 보면 어린애를 업고 시들시들하게 마른 배추며 무 같은 야채를 요만큼씩 놓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 온 노인네들도 조금 조금씩 놓고 파는데 물건이 많질 않으니까 빨리 시들까봐 그게 참 애가 타요. 그러면서 섰다 앉았다 섰다 앉았다 한다구요. 시든 야채를 뒤집어 봤다가 바로 봤다가 하면서요. 그런 걸 보면 깎지도 않고 그냥 삽니다. 그러면 엎에서 그러죠. 스님은 왜 시들시들한 것만 찾아다니며 사느냐고 야단입니다. 아 못먹을 걸 왜 사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런 분을 위해서 야채를 사들이는 게 아니예요. 또 보시를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단, 내 마음이 아프니까 내 마음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쫓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돼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프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자고 하는 거죠.

또 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가죽을 깔고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파는 물건이 있죠. 그런 건 더 비싸지만 일부러 사 줍니다. 그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아픔을 면하기 위해서죠. 비누 하나라도 사면서 그냥 누가 불까봐 또 그 사람이 미안해 할까봐 얼마라도 더 얹어서 요렇게 뜰뜰 몽쳐서 안보이게 천원짜리로 싸서 주고 오죠. 더 주면 더 줬지 그걸 왜 깎습니까. 남이 볼 때는 '저 스님은 얼마나 돈이 많길래 시줏돈 받아서 저렇게 쓰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몰래 그걸 주고 오느라 애를 씁니다.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잘 써 줘야 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자기 돈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도 아니구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갈 때 가져갈 거라면 자기 재산이지만 갈 때 가져가지 못할 거라면 다 자기 것이 아니예요. 안그렇습니까? 죽을 때 가져 갈 수 있는 건 자기의 마음 차원 뿐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남한테 잘났다는 소리 들을까 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당장 봤을 때 불쌍하니까 바로 옛날의 내 모습이니까 내가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이 아닌 마음이 스스로 생겨야 되죠. 과거부터 내려오면서 서로 엇갈려서 네가 되고 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내려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 도리를 알면 첫째, 내가 거북하고 내가 편안치 못하고 내가 괴로워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파는 사람이 나였다, 또는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였다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내 마음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예요.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예요. 내가 나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 그 사람 역시 둘 아니게 도와지게 되고 그러면 서로가 편하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와 같이만 생각해라, 그러면 얕잡아 볼 것도 없고 아무리 미련하다 할지라도 전자에 내 모습하고 똑같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웃음이 나죠. 나중에는 상대도 내 마음과 같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그러면 그게 도리가 아니죠. 부처님 법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이 베풀면 베푼 만큼 반드시 몇 곱절로 불어서 돌아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말입니다. 만약에 공을 저 벽에다 쳤다 합시다. 그러면 공이 튀어서 다시 오겠죠. 그 벽에 박혀 있지 않고 반드시 되돌아 옵니다. 세게 치면 세게 올 것이고 가볍게 치면 가볍게 오게 돼 있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나도 넉넉치 못한데 남 줄게 어딨어? 이러시지만 마음이 넉넉하면 저절로 줄 게 생기고 나도 넉넉히 돌아갑니다.

어떤 분이 부모님 천도를 시키고 싶은데 형편이 안된다고 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지극하면 다 되게 돼 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한달인가 지나서 왔어요. "아유 스님, 생각지도 않게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아주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옛날에 이 분의 아버지가 자기한테 참 잘해줬던 은인이었다고 하면서 돈을 갖다 주더랍니다. 그러니 그것도 내가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것이지 가는 게 없는데 어떻게 오는 게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죽어서 가 보니까 자기 곳간에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짚단 하나만 있더랍니다. 누가 어린애를 낳을 때 짚단 하나 깔아 준 것 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사람이 다시 이 세상에 나올 땐 거지가 돼서 나오는 거죠. 자기 준 것이 어디로 안 갑니다. 잘 살게끔 통장을 만들어 나올 수도 있고 빈 통장을 만들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사시면서 말 한 마디라도 따뜻이 하고 마음으로라도 남을 다치게 하지 말고 좋은 데 쓰십시오. 누구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잘 쓰느냐 못 쓰느냐도 자기 마음 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항상 그저 누구한테 말 한 마디를 하더라도 섭섭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측은하게 하는 말이 있고 섭섭지 않게 잘 말하는 게 있고 성을 내서 얼굴을 붉히고 말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데요. 그것이 내가 살아온 모두를 생각한다면 하나도 잘못됨이 없어요. 누구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터득이 아직 안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 사람이 100% 될 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 내가 걸어온 길이 그와 같다면 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길 하느냐 하면요, 언젠가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왔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고 (178)

작고 하찮은 일을 무시하면 큰 일을 할 수 없다.

"아무 자취도 남기지 않는 발걸음으로 가라.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마다하지 않고 긍정하는 대장부같은 사람이 되라. 무엇을 구한다, 지킨다, 버린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라.

살아나가는 게 그냥 그대로인데 '했노라' '주었노라' 하면 벌써 걸리는 것이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이 우주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허공에 말뚝을 박는 것과 같다.

살아나가는 데는 여러가지 이름이 필요하겠지만 그 이름을 '나'라고 하고 '너'라고 한다면 그르치게 마련이다."

이왕이면 좀 더 보람있고 가치있고 번듯해 보이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다. 제 보기나 남 보기에 하찮은 일을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심히 불쾌해 하고, 해야만 할 상황이라면 마뜩치 않다 할 것이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 하듯이 중요해 보이는 일, 다들 부러워마지 않는 일,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삶의 보람을 느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작은 일이 쌓여 큰 일이 된다. 일상적이고 하찮은 일들이 모여 큰 일이 된다.

위대한 일이란 단지 작은 일들이 모이고 쌓여진 것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위대한 일, 중요한 일이란 극히 드물다. 아무런 보상도 따르지 않을 듯이 보이고 일상적인 것 같은 일들이라도 거기엔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시냇물이 흘러 장강(長江)을 이루는 이치가 있다.

우리가 번듯하고 중요해 보이는 일을 선호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올 명성 평판 칭찬 영광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그건 아상(我相)이다. 이기적인 생각이다. '나'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고 자기사랑이 배어 있는 탓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나'가 개입되면 이미 집착하고 있음이다. 무엇을 구하고 지키려는 생각이 전제된 것이다.

어찌 오는 인연 가는 인연에 반연하지 않는 도의 마음이라 하겠는가. 물같이 살고 산 같이 살라 함에 맞는다 하겠는가.



어느 누구라도 밥 짓고 빨래하는 일이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누구라도 하루 하루 일상에 충실한 삶을 위대하지 않다고 비하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일들이란 하찮은 것이니 내게 거창한 기회가 올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바른 삶일까.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물었다. '전국에 절 짓고 탑 세운 공덕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달마의 대답은 '무'였다. '내가 했노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붙어 있는 한 아무리 위대하고 거창한 일을 했다해도 공덕은 없다는 것이다. 그럴진대 내게 큰 일을 할 여건이 되기를 바란다는 건 공덕을 말하기 전에 어리석음 그것일 뿐이다.

불법에서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또는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제행에서 조차도 '한 사이 없이'하라고 가르친다. 내가 했노라, 내가 주었노라는 자기사랑이 완전히 표백된, 순수함 그 자체로 오직 행동하라고 한다.

남들이 자기를 대단하게, 좋게, 착하게 보아주고 칭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공덕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에서 찬사와 영광을 바라지 말고 머무는 마음이 없이 무주상의 보시를 해야만 진정한 보시 공덕이 있다고 한다.

도를 알고 싶거든 가장 천한 자가 되라고 했다. 삶의 보람을 구하려거든 삶을 버리라고 했다.

일부러 천해지겠다, 버리겠다, 낮아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일 주어진 일, 닥아오는 경계에서 오직 열심히 이기심을 앞세우지 않는 것, 보답이나 결과를 바라지 않는 마음자세가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다.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말라. 일상적인 일에 충실하라. 보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위대한 일, 훌륭한 공덕이란 바로 그런 일들이 합쳐진 것일뿐이다.

현전 : 故 박 창원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나라·세계 살리는 힘도 내안에 있어

☞ 15면에서 계속

도 약 한달 정도를 스님을 봐 왔고 미국에서도 스님을 봐 왔는데 왜 꼭 나쁜 것을 사가지고 오십니까? 이왕이면 좋은 것을 사시지 왜 시들고 말라빠진 나쁜 물건을 사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건 무슨 까닭이냐구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내 물건이니까 빨리 시들까 봐 시든 것부터 먹을려고 그런다고 대답을 한 적도 있고 아까처럼 대답한 적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자주 질문을 하세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남의 의견도 들어보고 남의 사는 얘기도 듣다보면 지혜가 넓어지죠. 우물 안에서 내가 제일이라고 해서는

"물같이 살라
바람같이 살라
구름같이 살라
산같이 살라

우리가 사는것도
고정된게 없습니다
묵묵히 걸어갈 뿐…"

안되죠. 바다로 나가서 남이 똥 싸는 것도 보고 구정물이 들어와서 바다로 하나가 되는 것도 보고 또 고름물, 흙탕물 들어오는 것도 보고 말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도 거적을 쓰고 죽는 사람, 호화롭게 죽는 사람, 또 남이 호화롭게 보는 사람, '저 사람 잘 죽었어' 하고 보는 사람 등 이런 문제들을 다 보시란 얘깁니다. 우물 안에서 아무리 잘난 척 해도 바다 구경을 한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전체를 봐야만 지혜가 뚫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건 다 다릅니다. 당장 밥 한끼가 없어도 마음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밥은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죠. 아마도 그 뜻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당장 밥 한끼가 없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나 이러겠죠. 자꾸만 나무를 비유로 드는데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싹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을 안해요. 그와 같이 우리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불성이 나를 형성시켜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왜 주인의 걱정을 내가 맡아서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공했으니까 없다, 나는 본래 이미 죽은 거다, 공해서 죽은 거다, 자타가 같이 죽은 거다, 자타가 더불어 같이 나투고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그것 역시 죽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고요하고 텅 비었으니까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게 안과 밖이 텅 비었으니까 그것은 이름도 없는 이름이 아주 찬란합니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없는 그 이름이요'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그대로가 부처예요. 그런데 업원에 따라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과성이나 유전성이나 이런 것을 모두 몸뚱이 속에 인연으로 삼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게 차례차례로 나오고 괴로움이 생기고 이러죠.

그러나 그러한 것 저러한 것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되돌려 본다면 한없이 편안한 겁니다. 왜냐? 오늘 살다가 죽으면 어떻고 내일 살다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두렵고 어렵습니까? 죽는다는 생각을 떠나면 그냥 편안한 겁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 좀 더 괜찮게 살아야겠다 이런 게 없이 함이 없이 할 줄 알고 안다면 말입니다. '함이 없이 하라'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너는 이미 공했다, 공해서 없다, 너가 하는 것도 없고 너가 앞으로 할 것도 없다, 그래서 너가 공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온 것도 없고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갈 것도 없다 이런 말이죠.

이 도리를 알려면 무조건 자기 뿌리부터 믿어야 될텐데 경전부터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이 말해주는 게 아니예요. 이 불성이라는 것은 내 뿌리 내가 믿고 내 뿌리에서 내가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거나 누가 뺏어가거나 그런 게 없죠. 그런 것부터 알아야 나중에 가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경전도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 때 가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죠. 바로 내 뿌리를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인 거죠. 믿는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그냥 웃음이 나는 정도죠.

만 약에 병이 났다면 이럴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뼈가 부러지거나 뭐가 잘못돼서 꼭 수술을 해야만 될 때에 남의 손을 빌리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내 안에서 해결을 할 수도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의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고 각자 마음 속에 만물박사를 두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약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관음도 있고 지장도 있고 보현도 있고 법신도 있고 다 있거든요. 뭐든지 다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왜 딴 집으로 구걸하러 다니느냐 이 말이예요. 내 안에 보배를 두고서 왜 구걸을 하고 살아야만 되느냐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리를 모르는 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다고 하겠지만 나는 실지로 내가 실험하지 않은 것은 말을 못하죠. 왜? 말 한 마디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게 옳은 줄 알고 갔다가 그 사람이 한데 떨어지면 나까지도 거기 포함돼요. 그러나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예요. 나 때문에 괜히 그 사람까지 빠져서 이 한생이면 벗어날 것을 오히려 세세생생을 벗지 못하게 되니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재미있는 일도 아니고 재미없는 일도 아닙니다. 또 맘대로 웃을 일도 아니고 울 일도 아니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몰갈이 살라 하는 말요. 그리고 바람같이 살라, 구름같이 살라, 산같이 살라 하는 말도 잘 아시리라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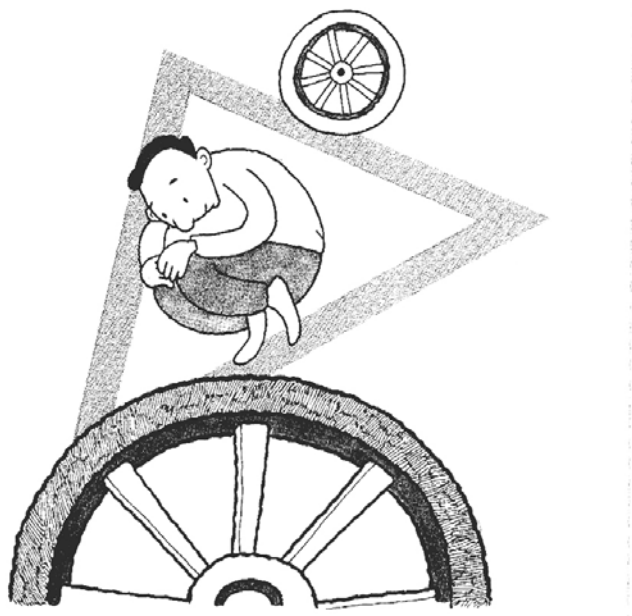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 안에 보배두고 왜 구걸하며 사는가

지금은 마음공부 하는 사람 필요한 시대

면 좋은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걱정이죠. 본래 인생은 한 생 살기가 바람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한발 떼어놓으면 한발 없어진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바람같이 없어진다고도 했죠. 지나간 것은 이미 과거가 돼 버렸으니 없고 앞으로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고 그냥 현재 묵묵히 걸어갈 뿐이라구요.

우리가 사는 것도 고정된 게 없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등 모든 것이 한가지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것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것을 바꿔서 돌아가면서 말을 하고 마음을 내니 그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마음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면서 이 도리를 모른다면 한생을 그냥 헛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밥 잘 먹고 돈 잘 쓰고 옷을 잘 입는 게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사느냐도 우리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을 내면 그렇게 돌아가죠. 누구나 잘 되는 걸 좋아하지 못되는 걸 좋아 하겠습니까. 아무리 국운이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국운을 있게 만드는 것도 우리들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너무도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많아서 불로 재앙을 받고 물로 재앙을 받고 바람으로 재앙을 받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예요. 마음으로 재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뺏기고 살고 마음을 잡아먹고 사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참 분하고 속상해 할 때 옆에서 말 한 마디를 해서 가라앉혀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상대는 액운을 면할 수 있거든요. 만약 그것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왈칵 생각대로 다나와버린다면 보이지 않는데서 액운이 따르는데 그 액운을 없애주는 것도 멋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돈으로만 하는 것이 보시가 아닙니다. 무심 보시 즉 공심의 보시,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라고 해도 되죠. 우리가 어떤 불쌍하고 딱한 상황을 만났을 때 '참 안됐다,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내도 무주상 보시가 되는 거죠. 물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무주상으로라도 해야죠. 그러면 무심으로 했던 그 무주상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 사람을 돕게 됩니다.

나 는 다 겪어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 말없이 여러분한테 100%를 다 대신 해드린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있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어 공부할 수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더 잘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부자로 살 때도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서로 돕고 함께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다시 가난으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가 있죠.

가난하고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눈물흘리고 가슴 아픈 일들이 어디 한두 건입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안보이는 자기 뿌리한테 다 맡기고 '너만이 길을 찾아가게 할 수 있고, 너만이 너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고, 너만이 지켜주고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그래도 애들은 먹여 살릴 수 있어야 하잖아,' 하고 관할 수 있는 마음이 아주 필요할 때입니다.

둘 아니며 하나도 아닌 도리

문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신도입니다. 여러 해 동안 스님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나름대로 익혀왔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이해되는 것은 이해되는 대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왔고, 이해 안되는 말은 '주인공, 너는 알잖아. 언젠가는 가르쳐 줘'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오기를 몇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나름대로 스님 말씀을 좀더 공부할 기회가 생겨서 하다보니 단편적으로 입력돼 있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좀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중에서 '둘이 아니면서 하나도 아니구나' 하는 도리가 나름대로 체험이 되고 스님 말씀을 모아서 정리가 된 게 있어서 공부삼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님 말씀이 '일체 만물만생은 다 삼각구조로 되어 있고 그것이 원형운동을 하고 있으니 삼각원형운동으로 연결되어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미래·현재가 지금 한찰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공간적으로 보면 삼천대천세계가 끊임없이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지구를 보면 역시 삼겹으로 되어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 삼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또 우리의 껍질은 세 껍질로서 육식을 들이고 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안으로 들여다 보면 안이라 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자기의 자성, 성품을 중심으로 계와 정과 혜가 돌아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나라는 의식을 중심으로 내 몸과 상대와 또 바깥 현상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어느 것도 나라고 내세울 수 없는 무아, 즉 무의 법이고 내가 죽은 그런 도리인 것 같구요, 또 바깥쪽으로 나라고 하는 의식은 내가 없으면 모든 게 무효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만물만생은 다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니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그러니 절대 유아가 되고 유의 법이 되고 이것은 그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로 보면 산다 죽는다, 유의 법이다 무의 법이다, 있다 없다, 삶이다 불법이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공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걸 대입을 해보면 이 세상 만사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내 성품은 마치 자석처럼 밀고 당기는 능력이 있어서 필요한 것은 끌어당겨 쓰고 필요없는 것은 밀어내고 하면서 내가 자유롭고 당당하게 내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내 스스로 마음대로 이 자전과 공전을 할 수 있는 당당한 삶이 있다고 제 나름대로는 결론을 내렸으니 역시 전체이면서도 하나가 아니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답 감사합니다. 짝! 짝! 짝! (박수치심) 허공에 연꽃이 펴서 향기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지금 얘기한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고 돌아가고 있고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마구 돌아간다면 그대로 멈춰지고 얽혀지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같이 잘살기 위해 죽는 법

문 감사합니다.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나올 때는 각자가 백지들을 하나 가져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지는 무한정으로 쓸 수 있고 그러면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무한의 백지입니다만 사람들은 거기에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글씨를 쓰기도 하고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술을 걸르는 체로 쓰기도 합니다. 물론 그 근본 자체는 무한정이고 절대 더러워질 게 없으니 훼손될 것은 없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각자 '나는 잘 써야 되겠다' 라든가 '나나 잘하자' 또는 '일단 나라도 올바르게 가자. 다 나를 공부시켜주는 과정이구나' 하고 스스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어차피 전체로서 같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니 서로 다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죽이는 것은 차라리 쉽겠습니다만 같이 잘살기 위해서 죽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큰스님 가르침 청합니다.

답 그렇습니다. 안과 밖이 없어서 그저 텅 비어서 고요할 뿐입니다. 이름조차 없는 이름이죠. 예를 들어서 말로 하면 비뚤어질 사람, 섭섭하게 들을 사람 한테는 말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보시를 하고, 또 말을 해서 받아들일 사람, 문을 열 사람한테는 그냥 웃으면서 좋게 딴 말을 하다가 슬그머니 들게끔 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야만 이것이 서로가 잘 돌아가고 내가 했다는 걸 세우지 않아도 그건 저절로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아니게 살 수가 있다 이런 뜻이예요.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뜻을 알고 실천을 할 수 있다면 나라를 빨리 일으켜 세우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여러분 주먹 안에 들어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알고보면 이 법이 너무나 좋아서 어떤 땐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데 왜 눈물을 흘리느냐구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한 도량에서 같이 돌 아니게 될 수 없다면 다음에 또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 하나하나가 살아나가는 데에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들고 썩은 거 파는 것 말이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얼마나 뼈저린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쭉 돌아다니다가 그런 것 보면 몇 개는 사가지고 들어가셔야 될 걸로 압니다.

모두가 마음을 잘 쓰시면서 사세요. 그저 남한테 꾸러 가지 않고, 애들 가르치고 그저 몸 건강하게만 살자 하고 열심히, 그것도 다 그 놈이 하는 거니까 '너는 알잖아' 하고 관하시고요, 이것도 눈물겨운 얘기죠. 자기가 자기를 못보면서 자기한테 '너만이 알잖아'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시한번 말하지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정신계를 무시하고 살지만 실제로는 그 정신계의 발전이 얼마나 시급한지 모릅니다.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힘도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 자기 뿌리부터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난을 한탄하지 마세요
가난하기에 가난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죠"

협찬 한마음 · 주인공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건 강 •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제3의학 · 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 (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산 삼!

(심마니 모임)

017)232-6005

밀교 · 기공 · 지압 · 쑥뜸

본래의 건강을 찾습니다.
당뇨 · 고혈압 · 간경화 · 관절염등
※ 3~7일간 지도 ※
대한불교조계종 **如來院**
능인 간병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739-11호
0351-875-0342/015-8487-3674



■ 한달분(60첩)

평생무료진료

1책으로 쑥향의 느낌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습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IMF가격: ~~₩98,000~~ → ₩50,000
천호한방 담당 정 재 환
015-7705-5457/016-341-4584
천호가족이 되신 분은 천호인술한의원에서 평생 무료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천호인술한의원(전국 최대 의료보험으합기관)원장 의의학박사 한덕현(前광지한방병원장)-

• 강 좌 •

현정 심성개발 · 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강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만다라 개운법 (九 성기학 급소) 학인모집

■ 생활철학, 운명판단, 운세개운, 풍수, 방위, 실점
■ 발행 저서
- 「변하는 손금, 바뀌는 운명 · 가정수상술」
- 「백리길 여행으로 운명이 바뀐다」
- 「만다라 개운법」

※ IMF시대, 시대 흐름을 알고 대처하는 지혜
※ 일본 운명, 관상술 한국지회장, 일본 점술협회 정회원
직접지도 저자 배 성 현 · 김 식 이
서울사무소 02)872-3452
수원사무소 0331)258-1669

사주(명리) · 주역(육효) 작명 · 택일

※ 3개월 책임지도 ※
노력 여하에 따라서
3~5개월 개업가능
철학인 명인 고운처사
051)442-3108
012)1582-0437

전통불교의식 학인모집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특별의식
●어산작법 : 초급과정: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원왕생과정 : 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
※원왕생 봉사회원 모 집 ※각 과정 통신생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 구인구직 •

구 직

◇사찰종무원, 어린이 법회가능
◇ 자격증 ; 청소년지도자 2급
※ 지방도 가능 ※
012)1865-1865

운전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지방도 가능
(9인승차소유)
011)451-5343
최 호 섭

• 수련원 •

도원불교수련원
(智庵精舍)

⊙ 개인 및 각 신행단체 수련 대환영 ⊙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0374-32-7464 F:0374-33-7464
※ 명퇴자 대환영 ※

• 불교용품 •

용굴산 종합심신 수련원

전통예술과 고유무술을 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종합 수련원
0523)82-5074
0523)388-0921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탈종공고 •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조동종 중정 박운파(덕공) 예하」
경남 서구 종무원
· 도명암 주지: 학산 · 석불사 주지: 법진
· 도림사 주지: 인봉 · 약천사 주지: 태관
· 성덕암 주지: 행원
경기 교구 종무원
· 부문사 주지: 덕연 · 우위암 주지: 덕양
강원도 영월군 남면 4리 618번지
성불암 주지: 덕남
상기인등은 귀종단의 제도와 행정등뜻이 맞지않아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8.7.22

• 학 원 •

탈 종 공 고

「대한불교조계종 귀하」
· 위 치 :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550
· 사찰명 : 용화사
· 주 지 : 민 춘 식
상기사찰은 귀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8.7.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귀하」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8-8
· 주민등록번호 : 471119-1178318
· 소속사암 : 대의왕사
· 주 지 : 나 연 수(법명: 일관)
상기자및 사찰은 귀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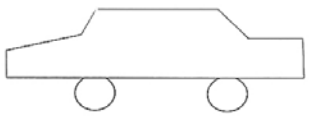
소운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02) 427-5369

청우서예학원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APT.종합상가 303호
0347) 794-2818

• 기 타 •

사람과 차를 찾습니다.

정 순 원 (여30세)



현대엑센트 (은색) / 부산 27거6237
051)805-3904
012)1585-3904

달마보급판매

무불스님
10년 결사
구매처 : 달마보급 선양회
017)540-3591

토굴 시공합니다 (황토돌집)

0595)82-7945
0595)82-9214
011)859-0846
토굴전문 시공자
김종경

심기선법육경신 천안통법 전수

▶동참금 : 일금 오만원영가 1위당 1만원
(집안동참금 33만원)
02) 821-6622
923-3110
016)239-3110
태 일 법 사

• 사찰안내 •

양도 안내

⊙ 위치: 안동근교 /부지: 1300평
흙집: 16평 /가액: 1천 3백만원
특징: 고찰터 암자로 적합
⊙ 위치: 단양, 명월사이 /가액: 1억
부지: 1500평 /전물: 108평
사찰이나 복지시설로 적합 계곡 有
⊙ 전국 사찰,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분 전화주십시요.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02)723-4082
광진불사

◆경남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 대지 : 200평
◇ 대웅전, 요사방 2개, 산신각
◇ 매도가 : 7천만원
0559)32-4807

사찰전세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 법당 : 부처님 삼존불 약 15평 (입주 즉시 법회가능합니다.)
♦ 요사채 : 주방 2, 거실 2, 화장실 완비
♦ 전세가 : 스님께 약간의 전세보증금으로 모실까 합니다.
02)823-0788

포교당

◇위치: 인천 숭의 5거리 도로인접
◇건평: 3층 건물 45평
◇법당: 17평
◇방 3개, 주방
◇가격: 전세 1천만원
◇시설비 논의 가능
032) 887-4884
일심사

사찰양도

〈스님개인 사정상 급히 양도〉
◇위치: 구파발역 5분거리
◇비구니스님 토굴 최상조건
◇사용대지 600평
◇건평: 40평. 방 3개, 주방, 목욕탕
◇약수, 주차장, 조용하고 자연경관 좋음
◇모든시설 양도
◇꼭 필요하신 분만 인연 연락바람
◇매가: 9천만원(가격절충)
011)785-6885
02)383-6880

◆사찰 운영하실분
※ 가격 대폭 인하
◇ 위치 : 경희대 회기역 입구.
- 4층 27평.
- 5층 15평.
◇가격 : 보증금 천 4백 월 60만원
011)286-2680

◆포교원 운영하실분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 평 수 : 50평 3층건물(3층), 방 2개, 주방(주차유)
◇ 가 액 : 전세 5000만원
◇ 시설비 : 3800만원, 시설완벽, 법회 및 의식 즉시가능
◆ 특징:주변전철역 교통편리 A.P.T 주택 밀집지역 포교 최적지임
02)939-3647
012)341-3647

◆ 급매(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 평수 : 550평
◇ 법당 : 17평(단층스레이트 건물)
◇ 요사채 : 18평(방3칸)
◇ 삼성각 : 5평(목조건물, 단청완료)
◇ 지하수 : 200m 암반수
◇ 전기시설(농사용전기 사용) 및 주차장 완비(사찰마당까지 주차함)
◇ 매매 및 전세 가능
◇ 양도금액 : 1억9천(절충가능)
◇ 전세금액 : 6천만원
011-563-0108/0551)21-5737

◆ 토굴팝니다
◇ 위 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지 : 90평
◇ 건평 : 15평(황토흙방 3)
◇ 가액 : 4천 5백만원
◆ 최고의 명당(황토흙 방 3개)
◆ 차도에서 800m 떨어진 깊은 산속
0667)772-5401
015)8483-5963

◆ 포교원 양도
◇ 대단위 아파트 단지
◇ 염창동(강서구)
◇ 26평 아파트 상가 3층건물의 3층
◇ 전세 : 4,000만원
◇ 권리비, 시설비, 월세 없음.
02)663-2671
02)664-8389
※ 오전 11시 이후 전화요망!

◆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당의동
◇ 건 물 : 4층 40평, 옥상 사용가능
◇ 방 3개, 주방, 욕실, 법당
◇ 가격 : 전세 1천, 월 6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51)204-6868

◇위치: 서울시 1시간 20분거리 옥천 I · C에서 20분거리(병천부근)
◇대지: 253평(삼존불 및 162 보신불, 기물 일체포함)
◇건물: 스레이트 30평 1동 스레이트 20평 1동
◇산신각: 4평
◇특징: 마을 끝 산밑 기도도량. 입구까지 천안서 버스 4회 운행 및 포장도로
◇금액: 6천 5백
0417)554-8216

◆ 사찰안내(사정상 급함)
◇ 위 치 : 포천일동 온천관광단지부근
◇ 사찰용지 : 372평
◇ 건 평 : 법당 33평, 요사채 57평
◇ 양도가 : 1억 9천만원
◆ 97년도 신축국망봉 강씨봉 산맥 천연계곡접.
02)474-8268

◇ 예천 용궁면 산택리
◇ 전세 4천
◇ 기도도량
◆ 매매나 전세 모두 가능
◇ 대지 : 140평, 건물 : 50평
◇ 기와증축
0582)536-2195
무안법사

◆ 포교당 양도(급매)
◇위치 : 길동 4거리 먹자골목
◇시장통 중심가(입주즉시 법회가능)
◇18년 역사 간직
◇건강상 내놓음
◇삼존불, 방3칸, 취사시설, 화장실
◇가격: 총 4,000만원, 월 60만원
◇포교원이나 철학관으로 적합함.
017)282-1998
02)482-4550

◆ 사찰(포교원) 급히 양도함
◇ 고양신도시 능곡 행신-화정지구
◇ 건 물 : 4층의 2층 45평
-법당, 사무실, 방 2, 주방, 욕실
◇ 고급시설, 문화재 목조 아미타불
◇ 가격 : 2천만, 월 50만
(관리비 무(無), 시설비 - 1천 3백만원
0412)53-7134
016)407-7134

◆ 포교당 양도
◇ 위치: 인덕원 사거리 부근
◇ 실평수 : 40평, 상가주택 4층
◇ 법당 25평, 방 3, 기름보일러
◇ 최고시설 (1억이상 투자했음0
◇ 가격 : 전세 보증금 3,800만원 권리금 5천만원
0343)24-5850
017)281-1231

◆ 백운산 계곡(암자터)
◇ 경남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1016번지
◆ 함양(안의) →서상→ 상부전 마을에서 2Km
◆ 현지 밭 실사용 평수 2,000평
◆ 등기 필 평수 465평
◆ 급매가격 : 3,000만원
053)767-5635

토 굴 급 매

◇위치: 봉화 태백산 유역
◇대지: 108평 구옥 1채
◇전답만 3천만원, 집포함 4천만원(사용하고 있음. 농사짓고 있음. 유실수 다수)
0573)72-2825

◆ 포교당 급매
◇ 11년 역사
◇ 시설 완벽 (법당, 공양실, 주지실)
◇ 주차시설완비
◇ 부산시내 최요지(신도다수)
◇ 공유포함 약 70평
◆ 전세 5천만원
※ 꼭 운영하실 분만 전화요
부산 (051)642-6242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신령면 매양리 팔공산
♦ 대지: 1,050평
♦ 법당 : 10평/요사: 18평(조립식)
♦ 양도매가: 7천만원
※ 조용한 산속, 기도도량으로 대작 불사가능.
* 대구에 승용차로 40분거리
(0563) 32-3290

사 찰 구 함

경상남도, 경상북도 산속내 위치하고있는 산 5부능선정도의 사찰구합니다.
(053) 255-1772
(011) 791-1133

포교원 운영하실분

♦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동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방 2개, 주방. (주차유)
♦ 가액: 전세 5,000만원
♦ 시설비: 1,800만원
♦ 주변 전철역 교통편리, A.P.T. 주택 밀집지역, 포교 최적지임.
(02)939-3647
(012)341-3647

사찰 및 부지 안내

◇위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법당: 20평
◇요사채: 90평(지하 45평 찜질방)
◇특징: 찜질방 바이오 석재 시공
◇부지: 등기상 1564평, 계곡 약 700여평(국유지), 총 2,000여평
◇가격: 3억 5천(절충가능)
0338)71-8750
018)528-8060

토굴안내

◇위치: 경북 영천시 신령면 매양리 팔공산
◇대지: 1,050평
◇법당: 10평/요사: 18평(조립식)
◇양도매가: 7천만원
※조용한 산속, 기도도량으로 대작 불사가능.
※대구에서 승용차로 40분거리
0563)32-3290

---

1. 전세 및 월세:
부산 문현동 전3천 월세 있음. 법당 40평 중 방 2, 화장실, 욕실, 부엌
2. 절, 매매 : 충북 충주시 청원군 천 3백만원
3. 임야 7천평, 대지 511평. 논 · 답 650평 등기 안된것 약 3천평(하동)(경남)
4. 하동- 대지 · 산 외 법당, 요사채 있음
5. 김해 6. 거제 7. 고성 8. 함안
9. 산청 외 다수 있음 10. 진동
※ 대구절 매매
0552)584-4881
012)760-4549/011)842-4549

부다피아 쇼핑몰

buddhapia shopping mall

주문방법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02-732-1522 / 737-8881, FAX:02-737-0697)

배 송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부다피아 쇼핑몰 사이트 http://mall.buddhapi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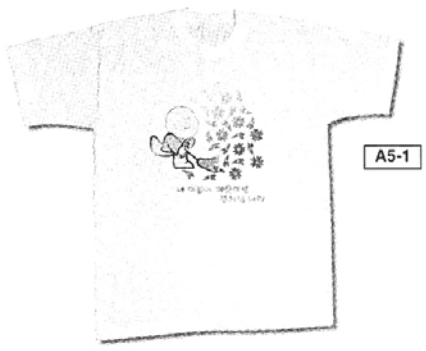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1998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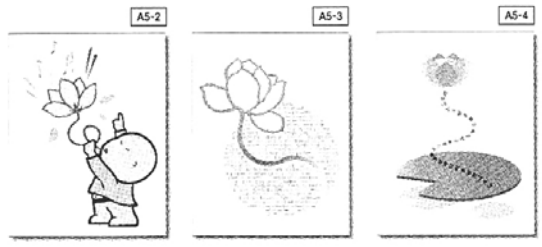
1) **한국불교의 현황** :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약술.
2) **종단** :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관** : 불교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5) **불교관련업체** : 불교관련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6) **사찰** : 국내외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 승가 및 재가불자 2,500여명의 개인 인명자료를 수록.
8) **불교문화재** :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여건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문** : 초판 이후 추가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불교연표** : 초판 이후 한국불교 관련 사건을 수록.

■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 정가 120,000원

불교디자인 티셔츠

천진한 동자의 맑은 세상 비쌀기 , 연꽃나팔 등 본지에서 제작한 동자 캐릭터 및 연꽃 문양으로 디자인한 면 티셔츠. 여름 수련대회및 각종 행사용으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며 사찰 이름 및 단체명 인쇄가 가능합니다.





가격 : 아동용 ₩ 5,500 · 성인용 ₩ 6,500 / 9도 칼라 인쇄

여름 sale

PCS 016 특별할인 한정판매

제목명	LGP1300	LGP1500	LGP1400v
가 격 (가입비포함)	80,000	90,000	90,000
※가입비 50,000원 포함			





●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 독특한 향+부드러운 촉감+미용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에서 미백효과는 물론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물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99.9% 천연 소재 사용

■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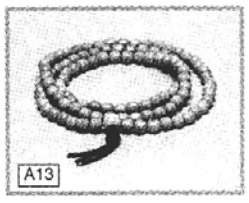
■ **카톨릭대학교 환경화학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법성계 걸망

크기 : 500×460 (㎜)
색상 :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 가격 : ₩ 15,000



생광석 108염주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신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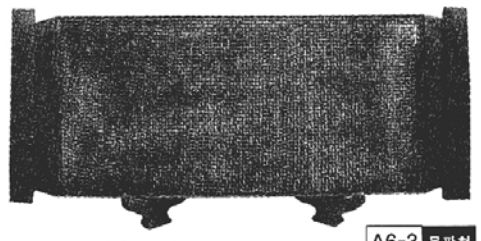
가격 : ₩ 35,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재질 : 100% 청동
종류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 40.5 ㎝
가격 : ₩ 350,000 (코팅형, 골동품형), / ₩ 580,000 (개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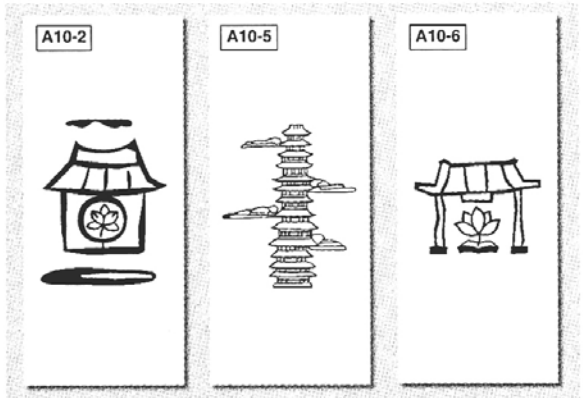


금강경 대장경판

금강경 전품을 입체 사경후 판각한 성보 대장경판. 다양한 경판의 느낌을 주기위해 목판형, 청동형, 골동품형 등 6종의 경판을 제작 하였습니다.

재 질 : 100% 폴라코트
경판규격 : 500(가로), 260(세로), 8(두께) (단위 ㎜)
가 격 : 1개 ₩ 100.000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다포

가격 ₩ 800 / 기장 50㎝ 폭 39㎝ / 재질 : 면

기도포

대(大) : 가격 ₩ 1,600 기장 84㎝ 폭 39㎝
중(中) : 가격 ₩ 1,500 기장 76㎝ 폭 39㎝
재 질 : 면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자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독송된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모진 재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삼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색상 : 진녹, 검정 바탕색에 금색 인쇄
크기 : 55cm(가로) 140cm(세로)

재질 : 기모지
특징 : 색이 변하지 않음
가격 : ₩ 30,000 (족자걸이 포함)

내부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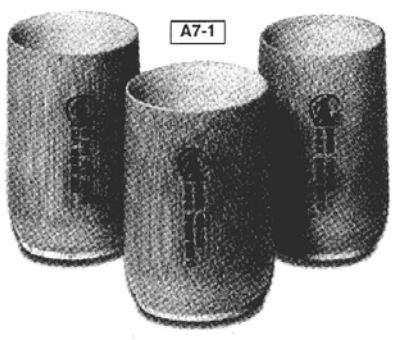
금속 수공예 액자

지장보살께서 과거에 모든 부처님 처소에 친히 받으신 촘부다라니(중생의 온갖 지혜, 건강, 재보, 수행력, 수승한 진리 등의 힘을 증진시키는 다라니)를 범오 선생이 일심으로 염(念)하며 수공으로 직접 제작한 작품

- 불보살의 가피력이 항상 함께 합니다.
- 늘 마음에 새기면 집중력이 생기고 마음의 안정이되며 불심이 돈독해 집니다.
- 결혼하는 분에게 선물하면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 주는 좋은 선물이 됩니다.
- 현대적 감각에 맞아 집안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한 작품입니다.

※ 선택사항 : 수공예 작품이므로 다량 주문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 합니다.

재질 : 동
특징 : 수공예 작품
가격 : ₩ 45,000



대나무 잔

완전 자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일품입니다. 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단 외줄 인쇄이며 10자 이내)

크기 : 9(세로).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단주 열쇠고리

A9-2

다양한 칼라 디자인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종 차걸이

맑은 종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 낱개 ₩ 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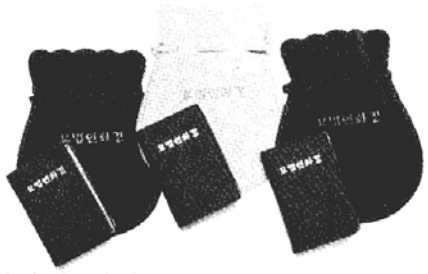


반야심경 향로

청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 법보시 하실 경우 할인 가능합니다.



묘법연화경 책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수 있는 포켓용 경전 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는 문구를 책 뒤에 넣어 드립니다.

크기 : 4.5 (가로)㎝ , 6.2 (세로)㎝ , 547쪽 / 가격 : ₩ 4,000

"두드리면 불교의 문 활짝 열려요"

종교를 물으면 불교라고 대답하지만 엄마 따라 절에 가는 것이 고작이던 고등학생 영민이. 어느날 법회시간에 부처님 전생이야기를 들었다. 깨달았다는 부처님의 전생은 원숭이도 있었고 사슴일 때도 있었다.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을까, 내생에 난 무엇이 될까' 하는 고민에 잠도 잘 오지 않았다. 엄마에게 여쭤봐도 잘 대답해주시지 못했다. 서점에 가서 책을 뒤져보기도 했지만 어떤 책을 보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를 않았다. 그러던 영민이의 눈에 쏙 들어온 책이 바로 〈똑똑똑 불교를 두드려보자〉였다.

청소년 눈높이 불서 '똑똑똑 불교를…' 화제

문답식 해설…"궁금증 풀려요"
가정불화 · 가출 상담사례도 소개

이 책에서 장휘옥교수(동국대)는 전생과 현생, 내생이 있는 육도윤회의 세계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셨다. 윤회는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한 인과의 법칙이라는 설명을 읽은 영민이는 자신의 게으름으로 내생에는 정말 소로 태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생활하기로 결심했다.

청소년 불자들이 불교에 대해 가지기 쉬운 의문들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전생의 문제이다. 이렇듯 전생, 참선과 깨달음, 불상에 절은 왜 하는지에 대한 청소년 불자들의 의문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책이 시공사에서 펴낸 〈똑똑똑 불교를 두드려보자〉이다.

마치 교리문답처럼 묻고 답하는 형식을 갖춘 1부 '꼬마성자들의 궁금증'에는 10개의 질문이 있다. 제일 먼저 절에 가면 착해지냐는 질문에 윤원철교수(서울대)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계관을 극복하려는 자기 수련이 중요하다"며 "절에 가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자신의 생활태도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선하게 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외에도 불교의 자아론을 학파별로 설명한 '나도 천년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철학과 과학이 생경체의 외부에서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라면 종교는 그 속으로 들어가 의미를 묻는 작업이라고 설명하는 '종교는 과학의 반대말인가요?', 기독교의 사랑은 신에 대한 절대 헌신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불교의 자비는 집착을 버리는 지혜를 근본으로 한다는 두 종교 사이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설명하는 '불교와 기독교는 동성동본?' 기적이란, 절은 왜 하나, 삶은 괴로운가 등의 의문점들을 불교교리와 경전의 비유 등으로 알기 쉽게 풀어낸다.

2부 '생각하는 이야기'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어의 속박을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나?'의 경우처럼 불교에서 흔히 설하는 유명한 비유를 통해 세상보기를 시도한다. 특히 '독화살을 맞은 사람의 의문', '수레를 채찍질할까, 소를 채찍질할까' 등은 가정불화, 가출 등을 경험한 청소년들과의 상담사례를 부처님의 비유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어린이 불서나 성인용 불서들은 시중에 다량 출간되어 있지만 청소년의 시각에서 접근한 청소년 전용 불서는 드물다. 〈똑똑똑 불교를 두드려보자〉는 청소년들을 직접 대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비롯해 스님, 대학교 교수, 시인 등의 집필자들이 청소년들의 시각에 맞춰 펴낸 책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건강 365일 〈28〉 피부병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피부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생선 두드러기, 꽃가루 알레르기 등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원인 규명을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 원인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피부병은 외부에서 독한 균이 침입해서 발생한다.

대상성포진이란 병이 있다. 겉으로 빨갛게 발진이 되면서 속으로 쑤시고 결리며 통증이 온다. 한방병명으론 단독(丹毒)이라 한다. 이것도 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입한 결과이다. 여러 가지 종류의 피부병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피부병은 내피조직의 저항력 · 면역력이 부족한데서 오는 것이다.

외부 바이러스 침입으로 발생
태음인 뽕잎 · 칡뿌리 복용효과

한방에서는 피부를 폐장에서 관리한다고 본다. 일차적으로 폐장기능이 허약하면 피부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부족하게 된다. 폐환량이 부족하단 뜻이다. 따라서 피가 탁해지면서 피부의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피부의 신축성이 떨어지며 저항력도 약화된다. 따라서 독균에 과잉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이 피부병이다.

이차적으론 독균이 침입됐으면 그 독을 해독시켜 주는 것은 간장이다. 간이 허약하면 독을 해독시켜 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피부병으로 발전된다.

이와 같이 피부에 난 병이라 하여 피부병으로만 봐선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간장의 기능과 연결시켜 봐야 한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듯이 약에도 체질에 맞는 약이 따로 있다. 체질별로 민간요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태음인=뽕나무잎 8g, 칡뿌리 8g, 황금 8g, 감초 4g을 달여서 하루 두 번 복용한다. 칡뿌리는 피부의 신진대사를 돕고 황금은 간의 열을 식혀주며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이 있고 뽕나무잎은 피부의 신진대사를 돕는다.

◇소양인=고삼 4g, 생지황 8g, 감초 4g을 달여 하루 두 번 복용한다. 열이 많은 소양인체질의 피부병은 태열이나 건성 악성피부질환이 많다. 비위장에 열이 많기 때문이다.

◇소음인=황기 8g, 할박꽃뿌리(백작약) 8g을 달여 하루 두 번 복용한다.

(02)762-5510



◇혜명양로원 봉사를 마치고 잠시 쉬는 틈을 타 청담복지관내 청소를 솔선수범 하고 있는 청담종고 자원봉사단원들.

"땀과 이웃의 소중함 배웠어요"

청담종고 학생회 자원봉사

"전원은 110볼트인데 선풍기는 220볼트더라구요. 좀더 신경써서 시설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름자원봉사에 참석한 가규상(청담종고 2)군은 혜명양로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하루를 보낸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다. 어른들의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청담종합고등학교(교장 이근우)는 이번 여름수련회를 자원봉사로 바꿔 불교학생회 회원 30여명과 함께 혜명보육원 · 양로원, 소쩍새마을 등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보살행을 펴는 자원봉사를 펼쳤다. 첫날은 혜명보육원에서 둘째날은 혜명양로원에서 원생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빨래와 방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실직자 가정 아이들을 위한 문구 책 나눠주기 가두 캠페인도 시흥시 일대에서 벌였다. 셋째날에는 소쩍새마을에서 점심공양 보조 봉사도 가졌다. 2일째 밤에는 〈반야심경〉 사경과 철야정진도 실시했다.

이근우교장은 "학생들의 자발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불교교리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자원봉사 등으로 보살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지연 기자

"불안한 마음 염불로 가라앉혀"

국내 첫 여자복싱경기 갖는 송경화양



"경기에 임하기 전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언제나 부처님을 불러요."

올해 6월18일 복싱을 시작한 송경화(청담종고 2)양. 다이어트로 시작한 복싱이 너무 재미있어 선수생활을 고려해 볼 정도가 되었다.

평택 명법사에 다니며 불심을 키워왔던 송양은 요즘은 불교학생회 활동에 열심이다.

송양은 18일에는 평택 청담체육관에서 22살의 김정애씨(변정일복싱클럽)와 첫 번째 연습경기를 가졌다. 비록 판정패를 당했지만 대전자 김씨의 입술이 찢어지고 앞니가 부러지는 등 송양은 강한 펀치력을 선보였다. 26일에는 국내 최초로 여자복싱공식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운동을 제가 한다는 것이 때로는 두려워요. 하지만 앞으로 태극기를 달고 뛰고 싶어요." 송경화양은 복싱선수로의 포부를 이렇게 밝힌다. 강지연 기자

'산업사회 위기'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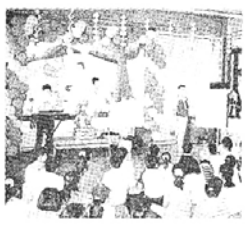


'자연파괴 인간성 상실-현대 산업사회의 위기'를 주제로 21일 열린 제2회 환경세미나에서 조봉연교수는 물의 사용에 대해서 자연에서 잠시 빌려 사용한후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가깝도록 되돌려 주는 자세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자교수(방송통신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이경재교수(서울시립대), 정영숙부회장(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김종찬논설위원(불교신문)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새싹불자 자연탐구하며 참선공부

불암사 숲속학교 수련



불암사 어린이 숲속학교가 17일부터 19일까지 1백여명의 새싹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불암사(주지 일면스님)에서 열렸다.

어린이 숲속학교에 동참한 새싹불자들은 어린이찬불가 배우기, 사찰 배치도 그리기, 참선공부, 108배 정진, 담력테스트, 돌탑쌓고 소원빌기, 수계식 등을 체험하며 불교와의 벽을 허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야외에서의 곤충관찰, 식물채집, 고구마 · 감자 구워먹기 등으로 자연과의 친화체험 등이 인기를 끌었다.

강지연 기자

단 신

광동종고 여름수련

광동종합고등학교(교장 김교남)는 8월3일~4일 봉선사에서 불교학생회 3학년 학생 25명이 참석하는 3학년수련회를 개최한다.

불교학생회는 이번 여름방학에 자원봉사와 정진수련도 계획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8월6일~7일 불교학생회 회원 45명이 동참하는 가운데 원주 소쩍새마을로, 정진수련은 8월8일~10일 학교법당에서 1천80배를 할 예정이다.

불광사 학생회 정진수련

불광사 학생회는 제16차 불광 하계 횃불 정진대회를 8월6일부터 10일까지 4박5일간 팔공산 은해사에서 개최한다.

중고등학생 1백여명이 참가하게 될 정진대회는 팔공산 등산, 팔공산 가람답사, 물놀이, 소재불공(불놀이), 자자포살, 동화사 참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2)3431-7585

서울지역 학생회 포교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는 8월 한달 동안 서울지역 사찰학생회를 방문해 포교활동을 벌인다.

서울지부(지부장 광명스님) 의장단 · 간사단이 벌이는 이번 활동은 서울지역 불교학생회 현황파악 및 교류방안을 찾아 학생회 활성화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띠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대 원 불 교 대 학
학 생 모 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5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분

● 강의시간
출강 / 통신 : 주5일 오후7시~8시30분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8년 8月 31日까지

● 교과목 : 주5일 수업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불교복지론	불교학특강	의식실기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상담지원 가능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 원 불 교 대 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 전화 : (02)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8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3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 봉 수(동국대교수) · 주 명 철(동국대교수) · 정 병 조(동국대교수) · 오 국 근(동국대교수) · 박 종(불성개발연구원장) · 차 차 석(동국대교수) · 김 영 태(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장 휘 옥(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반야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암도스님(교육원장) · 권 탄 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 기 종(동국대교수) · 혜원스님(동국대교수) · 윤 열 수(동국대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 정 섭(금강선원이사장)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98년 6월 15일~ 98년 7월 30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회관 및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1998년 8월 1일(토) 오후 6시 (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733-0333 ⊙ 부산 : 불 서 보 급 사 ☎ 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불자 세상보기

'불교인권선언'

95년 영국 '불교윤리' 제정

1995년 한해동안 '불교와 인권'을 주제로 인터넷 전자 포럼을 개최한 영국의 저명한 불교학술지 〈불교윤리〉가 그해 10월14일 포럼을 마치며 불교인권선언문을 제정·선포했다. 인권선언문은 〈불교윤리〉 발행인 데이비드 키온교수(영국·런던대), 찰스 프리비쉬교수(미국·펜실베이니아주립대) 등이 작성했다. 인권선언문을 발췌한다.

인간은 타인을 학대하지 않고 상호의존해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번영을 이루어야 한다. 이 번영은 인간의 육체적 존재와 사회적 자유와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할 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계급적 세계관이 광배해진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다. 상호의존적 세계관 만이 인간의 고(苦)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타인의 본성과 그들이 만드는 삶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한다.

부처님은 근본적으로 아상(我相)을 부정함으로써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에는 '고'란 타인을 매개체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도 담겨있다. 자신의 고를 줄이기 위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행위는 다시 업으로 돌아온다. 결코 침범할 수 없는 '나'라는 생각은 망상일 뿐이다.

유정·무정물은 서로 의존해 있으며, 그로 인해 생겨나는 호혜적(互惠的)인 의무를 갖는다. 또 유정물은 현생(現生) 내생(來生)에서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빼앗을 수 없는 존엄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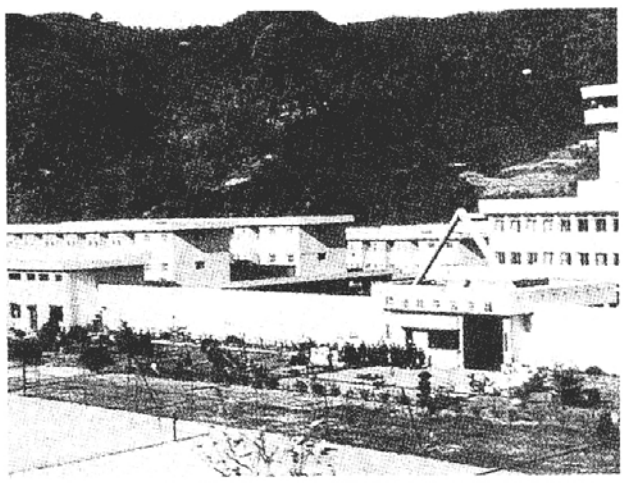
첫째, 모든 인간은 부처님의 비폭력(ahimsaa) 가르침에 따라 어떤 타인과 어떤 정부에게서도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둘째, 모든 인간은 인종, 국적, 종교, 성별, 피부색, 지적 능력, 정치적 관점 등으로 차별되지 않고 동등하다. 셋째, 인간은 자신을 위해 있는 환경과 유정물을 보호하고 번영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세계인권선언 선포 50주년 한국은 인권국가인가

생명 자유 평등 '아직 낙후'

교도소등 인권유린행위 근절 시급
국민들 인권의식 신장 관심가져야



◇ '인권의 무덤' 청송감호소. 재소자에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계속된다는 증언이 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인권'의 옹호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 김대중대통령은 각종 인권상의 단골 수상자가 되었고, 올해 안으로 국민인권위원회가 생기고 인권법도 제정된다. 이에 발맞추어 법무부와 안기부도 잇달아 인권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인권선언문 선포(1948년 12월10일 유엔총회서) 50주년을 맞고 있는 한국은 이제 인권선진국인가. 그러나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은듯 하다. 결국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규제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인권의식 신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감각해진 인권의식

경찰과 피의자 모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밤샘조사, 더구나 반말과 욕설이 난무하는 수사관행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의자에게 수의를 입혀 법정에 세워 온 잘못된 관행도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다. 불심검문 때 시민의 동의없이 소지품을 함부로 검사하는 행위도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교정시설의 인권유린

탈옥수 신창원은 교도소에서 너무 심하게 매를 맞아 인간이하의 인권유린을 당해 탈옥했다고 밝히고 있다. 겨울에는 동상에 시달리고 여름에는 무더위와 싸운다. 화장실 냄새를 참아가며 몸이 아파도 의무과에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게 우리 교정시설의 현실이다.

■수용시설의 가혹행위

최근 보도된 양지마을 원생 인권유린 사건등 간간히 터져나오는 일부 정신질환자·부랑인 수용시설 및 무허가 기도원 등의 가혹행위 보도는 이들 수용시설의 인권침해가 사회의 무관심 속에 꾸준히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협받는 약자의 생존권

청부 철거 업체의 폭력에 시달리는 재개발지구 주민들과 노점상 등 '소외계층'의 생존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IMF관리체제 이후 노동자(외국인은 더욱 심각)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학대받는 아동 인권

어린이 인권침해가 광범위하다는 점은 우리나라 부모의 76%가 체벌한 적이 있다는 갤럽보고서에서 잘 드러난다. 어린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강간, 강간미수, 심한 추행 등 성폭행 피해자중 12.4%는 13세 이하 어린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의 눈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하늘과 땅 사이에 내(인간)가 가장 존귀하다'는 부처님의 인권선언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유로우며, 동등하게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와 같은 뜻이다. 모든 개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에 관계없이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를 불교는 '인신(人身)의 난득(難得)'에서 찾는다. 〈잡아함경〉은 사람 몸을 받는 것이 눈 먼 거북이 백년에 한번 바다에서 떠오를 때 구멍이 뚫린 부목(浮木)을 만나는 것처럼 어렵다고 비유하고 있다. 그러니 소중한 타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매맞는 아픔을 무서워 하지 않는 자도 없다. 자기를 측은히 알아 견줌으로써 남을 죽이거나 매질하지 말라"는 〈법구경〉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참회해야 할 것이다.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인 진관스님은 "전세계 불자들은 부처님의 인간존중과 생명해방 정신을 본받아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세계 각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양심수들이 하루 속히 석방되고 더 이상 구속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인권 개혁조치를 유도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들었다

IMF체제에서 먹고 사는 일이 심란한데 동해안은 무장간첩에 잇달아 뚫리고 있어 이래저래 국민들의 불안감은 한층 높아져가고 있다. 속초 앞바다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이 일어난지 20일만에 또다시 동해시 앞바다에 북한 잠수정이 침투한 사건은 우리 국방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속초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때 정부는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까지 했었다. 그런 정부와 군당국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민들은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의 기틀이 튼튼할때만이 사회·경제 등 국가의 기본틀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 〈편집자 주〉

국방

"안락 원하거든 국토 잘 지켜라"

▨만일 어떤 왕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왕의 국토안에 많은 안락이 있게 되기를 원하거든 국토 안에 사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다 쾌락을 성취하게 하고 원하는 바를 만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 밖의 모든 적들을 항복시켜 온 국토를 잘 보존하고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원하거든 중생들의 공포를 없애주어야 한다. 〈금광명경〉

▨다른 나라의 군대가 침범해 왔을 때, 그 강약을 잘 판단한 다음에 방편으로서의 지혜를 써서 평화리(平和裏)에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런 사람은 의당 천주(天主)가 될 것이다. 〈제법집요경〉

▨자기를 사랑하려는 사람은 적이나 도적이 쳐들어 오기 전에 가문과 국경을 잘 지키듯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야 하나니 평소에 자신을 잘 다스리고 지키지 않다가 난리와 도적을 만나면 고통과 두려움은 더욱 심하리라. 〈별역잡아함경〉

▨3종업륜(三種業輪)이란 군인들에게 전투의 기능을 잘 가르쳐 외침과 내란을 항복받아 인연들을 포육(抱育)하는 것이고, 집짓고 농사짓는 일을 국민들에게 잘 가르쳐 주식(住食)을 충족케 하는 것이며, 종업과 상업을 인민들에게 잘 가르쳐 여러가지 도구와 재물을 뜻대로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대승대집지장십륜경〉

▨통치자의 첫째 의무는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백성의 어버이로서 그 백성을 법으로 보호한다…전륜왕은 모든 왕국의 군주가 되고, 그 왕국들은 다 그 정도(正道)에 따라서 제 백성을 안전하게 하고 불법에 따라서 의무를 다했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5종대사(五種大事)는 만민을 영도함에 소극적이어서는 안되고 장군과 사병을 잘 양육하여 지위를 주고, 본업을 잘 닦아 복덕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충신들의 간언을 잘 받아들여 정직이 손상되지 않게 하며, 탐욕과 즐거움을 절제하여 방일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법구성전경〉

▨국방의 안정을 기하고 정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원한다면, 모든 백성들에게 쾌락을 성취하게 하고 이를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 〈금광명경〉

상여금 모아 명퇴자 위로

대림산업은 최근 노사가 '고용안정 협약서'를 맺고 희망퇴직제를 실시, 전직원들이 올해 반납하는 300%의 상여금 가운데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조성해 퇴직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회사쪽은 애초 형편이 어렵다며 퇴직위로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직원들이 떠나는 사람들의 '퇴직고통'을 함께 나누겠다고 나서자 결국 위로금 조성에 동의했다. 직원이 2천1백명인 이 회사는 상여금 100%씩을 반납하면 31억원 정도의 돈이 마련된다. 노조는 이 금액을 퇴직자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군인들 장학금 16년간 전달

강원도의 한 일선부대 지휘관들이 16년간 자매학교의 불우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주고 있어 미담이 되고 있다. 육군 을지부대(부대장 오현구소장) 지휘관들은 지난 83년 3월부터 분기마다 자매학교인 강원도 인제 원통중·고교와 서울 오산중·고교에서 불우학생 4명씩을 선발, 장학금으로 25만원씩을 전달해주고 있다.

이웃사랑 선행 업소 표창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흥진)는 16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틈틈이 이웃을 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온 업소 14곳을 선정, '이웃사랑 실천 선행업소'란 표찰을 달아줬다. 구는 앞으로 이들 업소에 모범음식점 선정의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주동에 있는 음식점 '미리내(대표 최맹기)'의 경우 90년도부터 행려병자를 위한 임마누엘집을 운영하고, 불우 청소년에게 장학금과 후원금을 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SW복제사범 실형 선고

프로그램 복제사범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20일 컴퓨터 프로그램 2억8천여만원어치를 무단복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모(여·39)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I컴퓨터학원에서 美 아도비시스템스사의 포토숍 프로그램 등을 불법 복제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밤낚시꾼 몰려 팔당호 오염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오염유발 행위가 금지된 있는 팔당호 주변에 최근 한밤중에 낚시꾼들이 몰려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22일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등 팔당호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단속이 뜸해지는 오후 9시께부터 낚시꾼들이 밤새 낚시를 하면서 상수원에 떡밥을 마구 던지고 술병, 라면봉지 등 쓰레기를 버려 수질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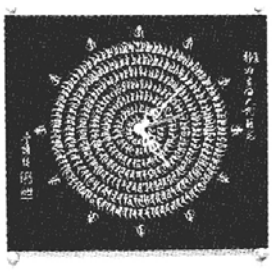
생상품 빨래찜통 '바이오 깔끔이'



시간과 연료를 동시에 절약하면서 빨래를 삶고 찔 수 있는 경제적인 빨래찜통 '바이오 깔끔이'.

세탁봉 상단에 뚫린 구멍에서 물이 끓을때의 압력을 이용해 뜨거운 비눗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손으로 일일이 뒤집을 필요가 없으며 눌거나 타지 않는다. 비눗물이 찜통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이중구조로 설계돼 있다. (주)태상교역, 4만8천원. (02)636-7138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정규과정, 통신과정》
개강: 9월 3일(목)
9월 4일(금)
선착순 3,000명
(학력·연령 제한없음)
1. 기본 6개월 과정
불교 기본교리, 예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육조단경 등도 공부할 수 있음.
2. 저렴한 학비
·3개월 동안 3만원
(처음 3개월은 입학금 만원추가)
·교재비 무료
(6개월 기본과정)-IMF
3. 교수진
·우학스님(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와 장가 안가길 잘 했네의 저자)
·무비 큰스님, 박삼중 큰스님, 무진장 큰스님, 박완일 교수, 법산 큰스님, 보각 큰스님
※통신과정"교재+테이프"
집에 앉아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53)474-8228

신묘장구 대다라니 시계

다라니란 말은 총지(總持)라고 번역하는데 법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음이라는 뜻이며 또한 신비한 주문(神呪), 은밀한 주문(密呪), 밀언(密言), 맑은 주문(明呪)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효험은 스님들이 잘 아심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 IMF 시대에 저렴한 가격에 불자님들에게 최고의 법보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씨를 보내 주시면 공단 또는 한지에 족자·액자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해 드립니다.
싸이즈 39×39cm
색 상 빨강, 검정
가 격 ₩42,000
※ 우편료 별도
주문전화 ☎ 02)279-2715 FAX 02)275-3739
삼·보·기·업

각종 암·백혈병 치료
(現代醫化學의 克復, 신비의 효능 책임처료)
♣ 생체의학 : 스님의 비법 ♣
우연한 인연으로 일본의 나고야에 있는 豫防醫化學 研究所의 칸즈 다쓰이시박사를 접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의 선친과 형이 肝癌으로 사망했고, 그도 癌으로 胃와 十二指腸까지 절재했으나 癌은 肺에까지 파급되었고, 현대의학에 반기를 든 그는 고통스런 투병속에서도 자연과 약초 연구에 몰두하기를 30여년 동안 약초 1천 5백종을 연구 실험하였으나 효과보다는 무서운 부작용으로 인해 무수한 동물을 희생시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평소 즐겨먹는 자연식품으로 범위를 좁혀 숫한 연구와 실험끝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旣成醫化學에서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우수한 효과와 실적의 개가를 올릴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몸에 좋은 성장 신체의 원동력이 되는 무려 30여종의 항생물질이 형성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癌세포에만 달라붙는 아미티로진 또는 아지티로진 같은 특수한 물질이 형성되는데 암세포만 발견하면 즉각 달라 붙어 癌세포를 에워싸므로 3일이면 癌세포 활동이 중지되고 한달이면 癌세포가 자동적으로 인체의 體세포로 전환됨으로 초기에는 한달이면 가능하고 2-3기는 3개월 말기의 癌환자라도 1년-1년6개월이면 정상회복된다. 또한 이 방법으로 회생하면 體내의 면역이 생겨 다시는 癌에 걸리지 않는다. 임상 실험결과 豫防醫化學 研究所의 로버트 죠 박사는 상상을 초월한 효능으로 1천여명의 치료대상 인원중 99%가 완전정상 회복되었고, 정상인에게 4개월 복용시킨 결과 20년은 젊어졌으며(체성장세포) 건강 진단의 생체리듬상 74세까지도 생리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나올수 있을만큼 체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발표한바 있다. 다만 절차상 까다로운 기술 요법상 다량화 또는 현대의학에 접목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아직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완치가 되고 난후 다소나마 불시에 도움이 되어 주실수 있는 분에 한하여 몇분만을 접수받아서 정성껏 모시고 치료에 임하고자 하는바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전국의 권위있는 병원등에서 검증후 완전 회복되지 않았으면 치료비는 물론 일체의 도움받지 않습니다. (백혈병 5~6개월 완치)
☎ 0547)437-4136, 437-4135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바다가 있어 외롭지 않다.
은빛모래,
반짝이는 발자욱마다
추억이
가슴으로 밀어오는 바다.
둘이 아니어도
외롭지 않은데
바라볼 수 있는 바다가 있어
침묵속으로 다가오는
보랏빛 물결
파랗게 부서져 내린
파도를 손목으로 감싸안으며
어깨위로 밀려온 고독은
꿀내
파도울음 터트리며
잔잔하게 노을빛으로
내려앉는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숙(본명)
大卒, 초·재혼 신원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시론

총체적 난국인가



강광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IMF 암흑터널 식물국회 신창원신드롬 도덕불감증 온통 어둠뿐이다”

한국사회는 지금 'IMF경제난국'에 직면하여 지난 30여년간 '성장제일주의'의 가치하에 앞만 보며 줄달음쳐 오는 동안에 누적된 '거품'들을 일거에 걷어내는 데 따르는 진통을 겪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 사회 여러 분야에서 구조조정 작업을 하며 군살빼기를 단행함에 따라 '무차별 도산'과 '대량 실업·실직' 사태의 악순환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 '노·사·정위원회'가 고통분담의 대원칙을 내걸고 대안모색에 부심하고 있지만 이해집단간의 입장 조율이 쉽지 않아 소리만 무성할 뿐 사태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진전을 속시원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프랑스 월드컵 축구경기'에 밤잠을 설쳐가며 일희일비했던 일이나, 박세리선수의 골프경기 선전에 환호작약하면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것은 모두가 'IMF 터널' 속의 음울한 심경을 역설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난국의 효과적인 극복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국민적 의식세계에 석연찮은 구석이 상당히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월드컵 예선전에서 우리선수들이 연이어 참패했다고 해서 애통하고 울분해하는 정도를 넘어 감독을 즉각 귀국조치하는 단세포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낯뜨거운 의식수준을 드러낸 것이다.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일은 문자 그대로 '병가지상사'이려니와, 하물며 대전 상대가 4강권에 진입할 정도의 강팀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승전을 기대함은 오히려 요행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최근 탈옥수 신창원의 신출귀몰한 탈주행각을 두고 홍길동과 동일시하거나 영웅시하는 '신창원신드롬'이 항간에 상당히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성숙된 의식세계와는 동떨어진 현상이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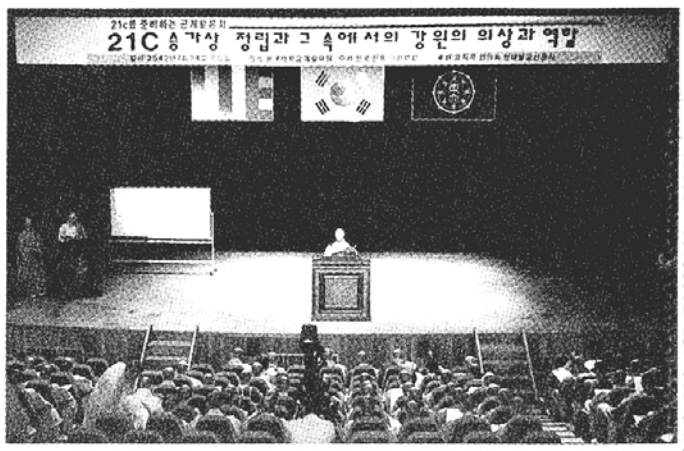
우리가 현재 힘겹게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작업은 실로 총체적인 것이다. IMF난국의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제도·관행·의식상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조정된 우리사회의 각 분야가 재활성화되기 위한 통합적 예지의 결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식세계를 합리화하여 국제적 표준이 자연스럽게 통용되도록 의식개혁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시급한 것은 IMF 이후 위험수위에 이른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하루속히 치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위기현상을 드러내게 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적 난국이 심화된 최근에 이르러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해집단간의 조정기능이나 민생기능을 도외시한 채 당리당략에만 집착하는 몰염치한 행태를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으며, 난국해결을 위한 법제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할 본연의 기능을 제쳐둔 '식물국회'도 IMF 극복의 발목을 잡는 사례로 지목될 수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퇴출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금융기관 직원들의 제몫챙기기와 일부 기업의 고의부도로 인한 신용질서의 붕괴이다. 대승적인 사태수습보다는 제몫챙기기에만 급급한 양상은 우리 사회의 이기주의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다.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현상은 비단 이해관계가 직접 결부되어 있는 경제나 정치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교육·문화분야에까지 만연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총체적 해체위기에 직면해 있다. 모두가 제몫챙기기에만 몰두하다가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고 공멸하고 만다. 모두가 평상심으로 돌아가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공개토론회
21세기 승가상 정립과 강원의 위상과 역할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동국대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는 전국전통강원연합(의장 종현)의 주최로 '21세기 승가상 정립과 그 속에서의 강원의 위상과 역할'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다가오는 새 시대를 앞두고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2백여명의 스님들이 한국불교 수행자 양성의 오랜 전통을 지닌 강원(지방승가대학)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21세기 승가의 나아갈 방향을 진단했다. 공개토론회 현장을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주〉



◇24일 토론회에는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전국 강원의 2백여 스님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기조발제

승가존재 본질 깨달음의 사회화



진옥 〈여수 석천사 주지〉

승가의 위상은 그 사회에서 올바른 역할이 선행될 때 높아질 것이다. 개인이기나 승단의 이기를 위해서 존재할 때는 승가 본연의 깨어남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결국 대중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수행은 승가가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출세간적인 성스러운 길을 가는 청정 승가로서 깨어나는, 그래서 사회를 정화시키는 본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사회가 가장 본질적으로 바라는 원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속적 생각에 의한 승가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도적인 세속화와 재정의 왜곡된 흐름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도덕적으로 세속화를 막아야하겠지만 제도적으로도 승가 본연의 계율정신으로 청정승가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세속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과거 방법 그대로 교화에 나섰을때는 중생들에게 접근이 어려울 것이다. 미래는 능력위주의 다양화된 사회이므로 사부대중도 그 기능에 따라 다양화 된 중생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편을 갖는 것이 한국승가가 정리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고, 이는 21세기 승가의 역할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강원은 수행·교육 공동체 기틀



지운 〈송광사 강원 강주〉

전통강원은 교육과 수행이 하나로 연결된 이상적 수행처다. 따라서 전통강원의 위상이 정립되고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때 21세기의 미래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하게 될 승가상의 바른 위상도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교계 일각에서는 강원을 대학으로 바꾸어야 하며 국가인정의 학교로 등록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강원은 대학과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전통교육과 수행, 사원생활 등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장으로서의 사원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가운데 강원은 존재하는 것이다.

대학과 강원은 그 성격상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서로 견제하는 선상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불교와 종단을 책임질 인재양성의 근본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의 동반자적 관계에 있다고 봄이 옳겠다. 전통강원과 현대의 대학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서로 보완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승가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앞으로의 논의는 이러한 취지에서 승가공동체의 최상의 지향점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한문위주 교과목 재검토



명법 〈운문사 강원 사교반〉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등으로 구성된 강원의 교과목은 선종의 종파적 관심에 치우쳐 체계적 불교 이해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오히려 이 점이 전통교과체계의 뛰어난 측면이기도 하다. 전통의 기반위에서 기초교리 이해와 불교사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교과목을 추가해 점차로 변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 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전통강원의 교육내용은 경전학습을 통한 해(解)의 증장과 대중생활을 통한 행(行)의 실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간경의 경우 한문학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내용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많다. 한문원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부분적으로 한글경전을 사용하는 문제는 고려해 봄직하다. 대중생활과 습의에 있어서는 외적 강제보다 내적 동인을 불러 일으켜야하며 그것을 위해 계율정신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전통과 현대, 세간과 출세간, 내용과 형식이라는 양극단을 중도로 융합해내는 것이 우리시대 불교의 과제이며 전통 강원이 떠맡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명확한 출가동기구현 급선무



송위지 〈외국어대 철학과 교수〉

한국불교 승가상은 첫째, 명확한 출가동기의 구현이 급선무다. 출가 동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승속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다. 둘째, 승단은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고, 승단 내부에서 세속적인 적이 발생하는 것을 스스로 정화해야 하고 또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승려는 수행자다운 면모를 통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 넷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는 승 속의 차별을 떠나서 모두가 하나되어 이뤄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승단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일들을 신도들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승단은 신도를 대해야 한다. 재가포교사 제도의 발달, 우수한 재가 학자들의 꾸준한 배출로 인한 교학에 대한 승 속의 분점화, 각종 의식의 재편으로 승단의 입지 약화 같은 상황이 충분히 전개될 수 있다. 새로운 승가상의 모색은 불법의 본질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범위내에서 승단은 물론 재가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다양화되고 인지가 발달한 현세상에서 재가자들은 진정한 수행을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다.

토론 주요내용

“학문-수행 양쪽 만족 현실적으로 어려워 강원의 특수성 살려야”

효림스님(보광사 주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강원은 과연 어떻게 전통을 지키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변화를 모색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일본은 각 종파별로 대학을 설립, 현대교육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학문중심의 불교 발달에 주력한 나머지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뒤떨어진다”고 지관스님(일본 애지학원대학원 박사과정)은 말했다. 승위지교수는 “스리랑카의 경우 우리의 강원과 같은 피리레나를 졸업하면 대학과 대학원 입학때 학력을 인정받는다. 또 외국대학에 입학할때에도 적용도는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옥스님은 “전통강원교육을 무시하고 현대적인 측면만 강조할 경우 일본처럼 학문적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수행은 퇴색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운스님은 “강원은 단순한 지식교육이 아닌 지혜와 수행을 쌓아가는 전통교육기관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한국불교의 토대에 맞는 강원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명법스님은 “명확한 세계관 확립을 위해 역사적 사회적 인식을 뒷받침해줄 교과목의 체계적인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운스님은 “전통강원에서 기본교육과 사회교육 등 2가지를 다 성취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따라서 전통강원과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이 서로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각 교육기관의 특수성에 맞는 교과과정을 확립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법장스님(수덕사 주지, 강원연합 상임고문)은 “중앙승가대학은 타종교의 신학대학과 같은 역할을, 전통강원은 보다 심도있는 학문을 배우는 대학원의 역할로 정립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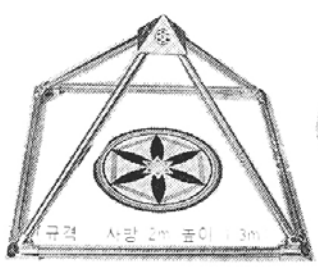
건강에의 신비! 옥
春川 玉山家 玉
태교에서 무덤까지 玉을 달고 산 한국인들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판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외 나머지는 37%~84.8%의 치유효과를 보았다. (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와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덩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라야 승패가 결립니다.
玉山家® (02)777-0105 (백오옥)

金堂藝建
목조건축(신축 및 보수전문), 단청, 탱화 개금 불상, 시왕개채, 불사 문의 및 상담

문화재 관리국 등록
보수 357호 황규원 단청 352호 박정환
보수 502호 박정환 화공 1008호 심철호
(711-830)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7-7 화원빌딩 4층
사무실 : (053)639-0407~8
F A X : (053)639-0407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 목판·동판·인쇄 복사본보다 생필인 진품이 영기와 영험이 더 있습니다.
※ 정통으로 배우는 사경예술 실습, 사군자, 달마도, 용자그림, 전수자 수강생모집. (통신도 가능)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242-0255 (야)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신비한 우주 에너지(빛) 발생장치, 명상용
수정 피라밋 히란야!

피라밋 모자
〈특허청 의장등록 NO.204454〉 피라밋 모자
「의료용 '氣' 발생기」 의장등록원 NO.1822, 1823, 1824
◆ 피라밋 안에서 명상이나 취침시는 원인불명의 신체 정신적 증상과 두통 불면증이 해소되고 체질이 개선된다.
◆ 깨달음과 영적각성 및 차크라 개발을 촉진시키는 고차원의 빛 에너지가 대량 생성된다.
◆ 인체에 유해한 수맥을 차단하며 컴퓨터, TV등 전자제품의 인체 유해전자파를 중화·소멸시킨다.
우주문명과 피라밋 히란야
문덕 출판사
한국 피라밋 히란야 체질개선 연구회
부 설 문덕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라B/D 303호
TEL. 792-0960, 0966

종단소식

조계종

법주사 교양대 9기 수료

보은 법주사(주지 혜광)는 30일 대웅보전에서 제9기 불교교양대학 수료식을 실시한다. 이에앞서 23일에는 포살법회, 23일에는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은해사 청소년 불교캠프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24일부터 26일까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불교캠프를, 28일부터 30일까지 청소년불교캠프를 각각 실시한다.

태고종

전북종무원 분원장회의

전북종무원(원장 남파)은 24일 종무원 회의실에서 간부 및 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종무행정 평가와 국가경제회복을 위한 기원법회 및 실천운동을 근간으로한 하반기 불사계획을 수립했다. 또 대둔산 문화축제 참가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천중사 어린이법회 열어

정릉 천중사(주지 이규범)는 17일 2박3일의 일정으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데 이어 26일 오전 10시 어린이회 첫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어린이회 정기법회는 17일 입제한 '어린이와 레크리에이션 포교 발전기원 천일기도' 백일기도와 더불어 진행되는 것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봉행된다.

봉원사 어린이 야유회



신촌 봉원사(주지 대운)는 19일 성북구민생활체육관에서 어린이회 야유법회를 봉행했다.〈사진〉 3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는 기념법회에 이어 레크리에이션, 물놀이 등으로 진행됐다.

천태종

전국청년회 하계수련

전국청년회(회장 이문수)는 17~19일 구인사에서 하계수련법회를 가졌다.

17일 입제식에 앞서 16일 밤 10시 관음정진 기도에 동참하는 것을 시작으로 봉행된 이번 수련법회는 새벽 3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예불, 경내 참배, 설법, 108배 참회, 극기훈련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진각종

국제불교연구소 현판



국제불교연구소 현판식이 20일 총인원 정문 앞에서 열렸다.〈사진〉 연구소장 회정정사(총무부장), 상임연구원 지현정사, 비상임연구원 원명정사(문화사회부 국장), 연기영교수(동국대)를 구성원으로 한 국제불교연구소는 북한 내 복지시설 설립, 미국 LA심인당 포교지원 및 제 2심인당 개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삼양 어린이집 수탁운영

진각복지회(상임이사 회정)는 18일 성북구청으로부터 삼양어린이집을 수탁했다.

석관제일어린이집, 종로 옥인어린이집에 이어 3번째로 위탁받은 삼양어린이집은 대지 3백37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1백20명의 원생을 수용할 수 있다.

관음종

흥륜사 보살계 수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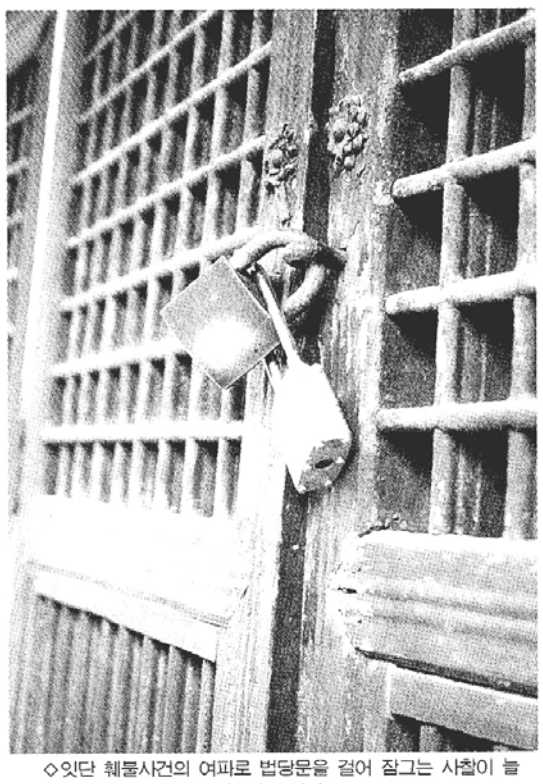
인천 흥륜사(주지 법륜)는 19일 법당에서 신도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살계 수계 법회를 봉행했다.

조동종

갈색 9조가사 통일

총무원(원장 송정)은 11일 간부회의를 열고, 종단의 가사를 본견 공단 갈색 9조가사로 통일키로 하고, 오는 11월7일 가사불사 회향식을 갖기로 했다. 또 분담금 및 의무금 납부, 승려증 개신 등의 승려의무를 이행치 않은 스님 15명을 제적 처분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잇단 훼불사건의 여파로 법당문을 걸어 잠그는 사찰이 늘고 있어 참배객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

자물통 채운 법당문

잇단 훼불 방화에 절지키기 '고육책'
저녁때 찾아온 참배객 헛걸음 일쑤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 부처님께나 훌훌 털어놓고 싶어 사찰을 찾았는데 법당에 들어갈 수 없어 한짐 더 지고 가는 기분입니다"

퇴직바람으로 불안해오던 김모씨(31·경기도 구리시)는 21일 저녁 8시경 남양주 수락산의 한 사찰을 찾았다가 참배도 못하고 되돌아 왔다. 법당문이 모두 굳게 잠겨 있었고 주위를 살펴봐도 법당에 들어갈 방법도, 열어줄만한 사람도 없었다.

서울 북한산의 한 사찰을 찾은 이모씨(51·서울 성북구)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 이씨는 "비록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법당이 개방되어 있으면 좋았을 것이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불황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한적하고 넉넉한 저녁 시간을 할애해 사찰을 참배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헛걸음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사찰들이 저녁예불 시간 이후에는 어김없이 법당문을 잠그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낮에도 열쇠가 있어야 법당을 참배할 수 있는 사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각 사찰들이 이른 시간부터 문을 닫는데는 이유가 있다. 잇단 훼불사건 때문에 방호책으로 법당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다. 동대문구의 한 사찰 주지스님은 "밤에는 사찰이 고용한 경비원이 근무를 하기때문에 좀 안심되지만 낮에는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문을 걸어 잠그는 일도 절의 이미지상 옳지 못한 것 같아 난감하다"며 "몇몇 사람들을 위해 법당에 불을 밝히고 문을 열어놓는 것은 역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도시 인근 사찰들은 훼불 방화 등으로 인해 절지키기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법회나 예불시간 이후에는 법당 등의 전각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많은 불자들에게 '본의아닌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거액을 투자하여 경비시스템을 갖춘 사찰들도 "별도의 경비원을 고용해야 하는 현실에서 언제나 열린법당을 불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사찰의 아쉬움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이다.

속출하는 실직자와 경제난의 가중으로 한적한 시간에 사찰을 찾는 불자들은 늘어나지만 훼불에 대한 불안감으로 법당문을 걸어 잠그는 사찰의 '좌불안석'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찰측에 신분을 밝히고 법당 열쇠를 받아야만 부처님을 참배할 수 있는 신풍속도에 대한 사회적 반성이 절실하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경제회복 · 교육불사 중점

태고종 하반기 사업…1천일기도 · 무료급식

승려연수 · 법계고시 실시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15일 백련사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회생 기원불사 및 교육불사를 골자로 한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서 태고종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국난극복기원 1천일 기도를 전국사암에서 매일 봉행하고, 매주 토요일 실직자를 위한 급식사업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경제회생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교육불사에 중점을 둬 종무행정을 결치기로 하고 8월 승려연수교육, 10월 법계고시, 11월 2일부터 보름간 합동득도수계산림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승려연수교육은 7천여 명의 종단등록 스님을 대상으로 종단관과 애종심을 키우고 승려로서의 자질함양을 도모해 종도화합과 종단중흥을 이뤄내려는 기대에서 마련됐다. 이 밖에도 태고종은 선암사 성역화불사를 종권수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0월경 근대 한국불교분규사를 재조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불교재산관리법 위헌소송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선암사 성역화 불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대광맹인불자회

대창양로원서 위문 한마당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 박석규)는 22일 사할린에서 영구귀국한 노인들이 거주하는 고령군 대창양로원을 방문, 노인위안잔치를 벌였다.〈사진〉

20여명의 맹인불자 및 연꽃자원봉사자들은 이날 일제 때 일본군에 의해 사할린에 끌려간 뒤 최근 영구귀국해 양로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62명의 노인들에게 대구에서 준비해간 점심과 떡 과일 음료수 등을 대접하고, 식후에는 사물놀이 한마당을 펼쳤다.

대광맹인불자회는 대창양로원 위문뿐만 아니라 해마다 대구 화성양로원을 방문해 위안잔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연흥사 개원 1돌 법회
삼존불 점안식도 봉행

대구 법왕사 칠곡분원인 연흥사(주지 실상)는 21일 개원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연흥사는 이날 석가모니불 좌우보처인 문수, 보현보살 점안식도 함께 봉행했으며, 하루 전인 20일에는 문수, 보현보살상 안에 금과은 다라니경 등 20여 복장물을 봉안했다. 기념법회에는 벽봉스님(송림사 조실) 실상스님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했다. 이윤호 기자

녹색환경감시단 2돌
'21세기 시민운동' 강연

대구불교산악회 부설 녹색환경감시단(단장 홍성식)은 21일 대구 흥사단 강당에서 창단 2주년 기념식 및 강연회를 개최했다.

김장근 대불청 대구지구장 신현국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는 영남대 이창기교수(사회학과)가 '21세기를 지향하는 시민운동'에 대해 발표했다.

동 감시단은 96년 해인골프장 건설반대운동과 청도 용천사 앞 상가 건립반대운동에 앞장섰으며 97년에는 군위 인각사 수몰 반대운동 및 환경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다.

이윤호 기자



◇아치형원리를 이용해 만든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뛰어난 사찰 건축술 '아치형'

EBS-TV, Q채널 조명

무게 지탱에 가장 좋아
청 · 백운교 첨성대 활용
미륵사지 규모도 밝혀

"청운교와 백운교, 첨성대 등 우리 문화유산이 오랜 세월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치형원리 등 역학·수학적이론에 근거한 축조기술에 있다."

15일과 23일 각각 방송된 EBS-TV의 '발명Q! 원리를 찾아라'(청운교와 백운교)와 케이블TV Q채널 '우리과학의 원류를 찾아서'는 우리문화 유산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기에 1천여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건재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시원하게 풀어줬다.

신라시대 대표적 건축물로서 아치형 다리인 경주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 사다리꼴 형태의 돌을 일정한 모양으로 둥그렇게 쌓은 이 두 다리는 위에서 내려누르는 힘 즉 무게를 지탱키 위해 돌 옆쪽으로 힘이 고르게 분산되는 아치형 원리를 이용해 축조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튼튼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 과학의……'에선 익산의 미륵사지와 경주 불국사의 가람배치가 두 절에 있는 석탑과 석탑사이의 2분의 1을 단위 기준으로 설정해 그 배수의 거리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을 밝혀냈다. 말과 책으로만 전해져 왔던 미륵사지 가람의 실제규모와 배치모습을 3차원 컴퓨터그래픽을 통해 실물처럼 소개해 수학과 구조역학에 근거해 건축한 선조들의 지혜를 증명해 주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 300,000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악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형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종교계 실직자구제현황'

불교 하루 수혜인원 1만1천4백명 '최다'

종교구호시설 258곳중 불교계운영 69곳 '3위'

실직자들 불교구호시설 '선호'

무료급식 · 실직기금 · 쌀모으기등 '자비 확산'

연일 폭염이 계속되던 20일 오후 4시 서울 탑골공원 인근의 새마을중앙회관. 길다랗게 늘어선 실직자와 무의탁 노인들의 행렬. 처음 무료급식이 시작되던 지난 4월과는 달리 '공짜 밥'을 부끄러워 하는 이도 적고, 주고 받는 말에도 따뜻함이 배어있다.



◇실직자들은 정부 구호시설보다는 따뜻한 자비심이 느껴지는 종교계 구호시설을 선호한다. 사진은 탑골공원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자들이 배식하는 장면.

이 무료급식소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실직자 구호시설. 급식을 시작한 지 1백일째인 7월 20일 현재 연인원 3만여명이 이곳을 찾았다. 지금까지 동참한 자원봉사자는 모두 1천4백여명. 각 종단, 도심 사찰, 신행단체들이 돌아가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다음 날 오후 4시30분 서울역 주변에 위치한 서소문공원, 공원 이곳저곳의 나무 그늘에 누워있던 실직노숙자들이 하나 둘 씩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아침을 여는 집' 앞으로 모여든다. 하루 이용자수는 6~7백명. 날마다 소요되는 쌀만 해도 80kg들이 한 가마. 하루하루 쌀 장만하기도 벅찬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을 알고 스님들도 발벗고 나섰다. 새불교전국승가회가 '실직가정을 위한 자비의 쌀 모으기 운동본부'를 지난 6월11일 창립, 벌써 서울 금천구 관내 영세민들에게 쌀 55가마, '아침을 여는 집'에 쌀 5가마를 각각 전달했다. 청도 운문사 강원의 강주·학인스님들은 전원이 '아침을 여는 집'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실직자 구호시설은 모두 4개. 서계동 보현의집,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영등포근로자합숙소, 수송동 보현의집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보현의집은 서울뿐 아니라 부산 등 전국에 개원한다는 것이 조계종의 방침이어서 실직 구호시설은 더욱 늘어날 전망. 그렇다면 불교계의 실직자 구호사업은 타종교에 비한다면 어느 정도일까. 대답은 '잘하고 있다'는 것.

최근 문화관광부 종무실이 집계한 〈종교계 실직자 구제활동 현황 조사〉에 따르면 불교계 구호시설을 이용하는 실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16일 현재 2백58곳의 종교계운영 실직자 구제시설 가운데 불교는 개신교(1백3곳) 천주교(73곳)에 이어 69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하루 수혜인원은 가장 많은 1만1천4백명(종교계 전체 수혜인원은 3만2천5백10명)으로 나타났다. 수혜인원을 교단별로 보면 불교계에 이어 개신교가 1만2백명, 천주교 9천9백30명, 원불교 9백80명 순.

불교계는 기독교계 다음으로 실직자 기금모금에도 적극 나섰다. 조계종 탁발행사로 2억원, 천태종 경제난국 극복 구국법회에서 2천만원 등 적지 않은 기금을 모았다. 조계종은 이와함께 실직자를 위한 후원회 구성도 계획하고 있다.

교계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같은 발빠른 실직자구호사업의 성과를 경험삼아 종단은 물론 전국 본말사와 전종도들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30~40대 노숙자 73%

'아침을 여는집' 실태조사

"실직 3개월내 노숙" 54.7%

실직노숙자의 절반 이상인 54.7%가 3개월 이내에 노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직후 생계대책이 몇 개월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실직노숙자들의 연령은 30~40대가 70.3%로 대부분을 차지,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실직노숙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김동흔)이 최근 유료봉사원으로 지원한 실직노숙자 3백4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직자의 연령층은 41.5%가 40대, 31.8%가 30대, 17.7%가 50대 순으로 경제활동 연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전직이력은 42.8%가 건설·일용직, 22.3%가 회사원, 10.8%가 개인사업, 각 5.9%가 운송업·주방일 등으로 나타나 실직노숙자들이 사회 각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밖에 가족관계는 45.1%가 30세 이상 미혼, 33.6%가 기혼, 14.6%가 이혼·사별·별거, 6.6%가 30세 이하 미혼 등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찰이름 보호

목탁소리

오 종 욱 〈취재1부 기자〉

통도사 백양사 법주사 등 9개 사찰의 도메인 이름이 사재기 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불교계를 당혹스럽게 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사재기 장본인인 마우스정이 9개 도메인 이름을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에서는 개인과 단체가 객체화된 시민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이름을 이용해야 한다. 도메인 이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 사찰의 도메인 이름이 사재기·도용된 이 일은 정보화 시대의 총아로 떠오른 인터넷에서 불교계가 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어려운 과제를 남겼다.

어느 나라에선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려는 사람, 단체, 기관들은 자국의 전산원 혹은 미국의 인터-닉사(社)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 기관은 모두 '선등록자 우선권'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도메인 이름의 사재기·도용으로 인한 분쟁이 잦은 이유도 따지고 보면 이 때문에 생긴 것이다.

통도사의 경우 인터-닉사를 통해 'tongdosa.org'를 등록하려고 했지만 '선등록자 우선권'의 제약으로 거부됐다. 현행 국내법상 통도사와 같은 사찰명은 지적 재산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마우스정이 사찰 도메인 이름을 모두 포기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한국 불교계 무형의 자산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한국전산원은 "국내·국제에서 인터넷 관련 법을 제정, 효력을 갖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며 "사찰명 등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고유명사, 유적·유물을 가지고 있는 불교계는 능동적으로 인터넷 관련 판례를 조사, 대응하는 길이 현재로선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gobaoou@buddhapia.com)

염불만일회 8월 5~7일

염불법회 · 아미타춤공양 행사 다채

제6차 염불만일회가 5천여명에 이르는 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봉행된다. 앞으로 1만일(27년 5개월) 동안 열리는 제6차 염불만일회 결사는 8월 5일 오후 4시 1230년전 제1차 염불만일결사가 개최됐던 건봉사에서 입재식을 갖고 8월 7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힘차게 멋있게 신나게 나무아미타불, 염불합시다'란 구호로 펼쳐지는 이번 염불결사는 보다 활발하고 활동적인 불교신앙운동을 정착하고 현세적인 신행풍토에 밀려 퇴색되었던 미타신앙을 복원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정토학회 정태혁 회장과 보광스님(종국대 교수) 등 정토학 관련 학자와 보성 녹원 설산 오현 해장스님 등 중진스님들이 법회를 주관·증명하고 염불수기를 관장해 열불만일결사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법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염불결사에는 네 차례의 염불법회와 두 차례의 아미타춤 공양을 비롯 염불수기식, 법장비구 48대원 다짐 촛불의식, 아미타불 정진, 건봉사 부처님 진신치아 사리 친견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제천장애인복지관 수탁

충북불교복지 '교두보'…서울 성내삼어린이집도 개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21일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충북 제천시청으로부터 제천시 청전동에 위치한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수탁운영법인으로 선정, 오는 9월3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한 데 이은 이번 장애인복지관 수탁은 충북지역에 전무하다시피한 불교복지시설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지재단이 직영하게 될 이 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2백평 규모로 목욕탕, 물리치료실, 집단활동실, 직업훈련실, 자원봉사자실 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재단은 24일(금) 오후2시 강동구립 성내삼어린이집(원장 박태인)을 개원한다. 대지 및 건평이 각 70평인 이 어린이집은 지하1층, 지상2층에 보육실 5개와 유희실 2개, 사무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470-2433 김재경 기자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는 30여 종교·사회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촉구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 청원

새불교승가회등 30여 단체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공동회장 진관, 석담)는 30여 종교·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23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국회 앞에서 '저소득실직자 생활대책 수립과 생활보장법 제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를 비롯한 30여개 단체들은 이날 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복지병을 운운하며 한사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쏟아내는 것으로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제도를 시급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는 저소득, 일용직 실업자문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촉구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불교대책위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종단협 인권위 성명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혜공)는 22일 '현정부는 양심수의 조건없는 전원석방으로 인권 선진국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단협 인권위는 "새 정부는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등 제도적인 인권수호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양심수의 조건없는 전원 석방에 현정부의 결연한 조치를 촉구했다. 도필선 기자

뉴스 & 뉴스

'불교입문' '불교교리' 지침서

포교연구실은 신도교육의 해를 맞아 이미 발간한 〈불교입문〉과 〈불교교리〉에 대한 교육지침서를 발간, 배포하고 있다. 불교입문은 24시간, 불교교리는 48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 신도입문 및 기초교리교육 교재의 지침서가 발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윤 기자(swjung@buddhapia.com)

방학중 결식아동에 점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성공회 '나눔의 집', YMCA 등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는 각 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센터와 복지관, 동네 공부방등을 통해 지역내 결식학생들을 파악, 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계획이다. 결식학생들에게 제공될 음식은 현재 운용중인 '푸드뱅크(Food Bank)'를 활용키로 했다. 김재경 기자

8월6일부터 대불련대회

한국불교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성철)는 8월6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제17차 한국불교 1600년 대회를 개최한다. '청년불자의 통일세상 만들기, 하나됨을 위한 우리의 작은 서원'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대불련의 통일이야기 △대불련 가요제 △북한동포돕기 모금 운동 및 캠페인 활동으로 진행된다.

오종욱 기자

♣ 불/자/정/보(사찰) ♣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명산 '神魚山' 줄기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 면적 : 가) 6,700평(전체 준농림)
나) 30,000평(준농림 18,400평, 농림 11,700평)

◆ 용도 : **사찰, 납골당, 부도탑, 실버타운 전원주택, 종합병원, 동호인주택 연수원, 골프연습장, 수련장, 사설학원**

◆ 교통 : 5분:인제대학교, 가야골프장, 김해상동 I.C(예정)
7분:김해 I.C 11분:김해 대동 I.C
18분:김해구포역, 김해국제공항
21분:양산시 23분:창원시 25분:마산시

◆ 도로 : 가), 나)각각 도로 접함. 현재 5톤 트럭 출입가능
(98년 6월 폭 8m 아스팔트 확장 포장공사 착공)

TEL. 0525)32-8322~4
<자택> 051) 335-6392
011) 881-4863
012)1568-6392

금화 공인중개사
(김해시 어방동 26B 15L)

사찰 분납 운영하실 분

◇위치: 경북 예천
◇부지: 700평(평탄 작업완료)
◇법당: 23평/ 요사:37평 이상
◇가액: 8천만원(분납가능)
◇위치: 경주지
◇부지: 173평/ 법당: 20평 복조 단청
◇요사: 40평/ 가액: 8,600만원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연결하여드리고 양도외 사찰 법률, 세무도 무상상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주)동국불사 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 : 02)512-4447
호출상담 : 012)1648-6334

※ 본 사찰은 정법도량이므로 일단인, 보살, 무속인 대리상담 및 투기성이 짙은 상거래는 절대 사양합니다.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계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전기·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기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재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기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2500년 신비 미얀마불교 조명

불교TV 내달 3 · 10일 '미지의 나라…' 방영

국민 출가생활 · 원시불교 현장 첫 선

여러 갈래의 민족이 이루고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와 8천개가 넘는 금탑으로 뒤덮여진 황금탑 쉐다곤 파고다 등 원시불교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해 순례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불국토의 나라 미얀마.

불교TV는 미얀마 불교문화 및 건축양식과 종교를 통한 미얀마인의 소박한 생활상을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미지의 나라, 미얀마'를 8월3일과 10일 2회(오전9시10분~오전10시)에 걸쳐 방영한다.

3일 방영될 제1부 '황금탑의 기도'에서는 9~12세의 남자 아이들이 불문에 들어가기 위한 종교의식인 신퓨의식과 사원안에서 행해지는 어린 수련생들의 절제되고 엄격한 생활모습을 보여준다.

또 양곤, 만달레이, 핀다야, 파간 등의 수많은 탑들과 세계 최대의 와불상을 모신 슈엔다리아사원, 미얀마 최고의 목조사원인 쉐난도승원 등이 소개된다.

10일 방송될 제2부 '본지를 입은 사람들'에서는 130여 소수민족으로 구성돼 있는 미얀마인들의 신앙과 생활상이 공개된다.

또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 장의 천을 돌돌말아 치마처럼 입은 몬지 차림의 미얀마인들이 시장경제 체제 도입후 생겨난 보석시장, 수산시장, 과일시장 등에서 자유롭게 현금 거래하는 모습도 화면에 펼쳐진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8월 3일과 10일 2회에 걸쳐 방영될 불교TV의 '미지의 나라 미얀마'의 한 장면. 사진은 미얀마의 상징인 황금탑 '쉐다곤파고다'

■프로그램협찬 한갑진회장

"불교영상 발전 도울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방영한다면 다수의 시청자들이 불교TV에 채널을 고정할 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불교 영상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94년 제작돼 시청자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다큐멘터리 '미지의 나라 미얀마'를 무상 보시한 한진흥업 한갑진회장(75).

30여년을 영화제작에 바쳐온 한회장은 지난 78년에 만든 영화 '팔만대장경' 및 청소년, 효 등을 주제로 한 10여개 불교 작품을 케이블TV 대우씨네마네트웍과 방영 계약이 끝나는 2000년부터 불교TV에 무상공급 하겠다고 밝혔다.



◇심우도중 '득우', 승광사 벽화, 조선시대.

친근한 동물… '불성'에 비유

불화와 성화비고 33장면 ⑬

소

소처럼 인간과 밀접하며 어디 하나 버릴 데가 없이 이익이 되는 동물이 있을까. 소는 순한 성격에다 농사에 없어서는 안될 가축이며 재산의 일부로 여기기도 하여 가족과 다름없는 생구(生口)라 부르기도 하였다.

사찰의 벽화로 전해지고 있는 심우도(尋牛圖)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사람과 가장 친근하고 근기가 같은 동물인 소를 인용하여 불성을 구하는 수행의 과정을 목동이 소를 찾아 먹여 기르는 10장의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왼쪽 그림은 심우도의 5번째 과정에 해당하는 '목우(牧牛)'이다.

기독교에서도 소는 신성하고 친근한 동물로 여겨지고 있다. 오른쪽 그림은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장면인데 누런 소와 말이 함께 갓 태어난 예수를 정답게 바라보고 있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지오반니作 '그리스도의 탄생', 1436년, 바티칸미술관 소장.

주부신행담 — 너무나 소중한 만남 ②

결혼전 일기장 태우다
인연의 소중함 되새겨
남편과의 갈등 해소

알고보면 남편은 불쌍한 사람이었다. 그는 유복자였다. 시아버지는 6·25 동란당시 군에 다녀온 후 너무나 가난한 삶에 쌀 몇가마를 더 보태기 위하여 다른사람 대신 군에 입대하여 전사하였다.

남편은 자라면서 농사일도 하고 거친 일을 안해본 것 없이 다했다. 초등학교 3년 다니다 만 학력에 재산도 없는 그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결혼생활을 그만둘 수도 없고 참고 참으며 지내다 덜컥 임신이 되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내 심정도 모른채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은 자기에게 제동이라도 거는 듯이 보였는지 임신사실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이등해 사월 쌍둥이를 낳았다. 큰애는 3.2kg으로 정상 체중이었으나 작은애는 2.2kg밖에 되지 않았다. 다행히 돌다 잘 자라주었다. 그 무렵 커녀시절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부엌아궁이에 넣고 태우다가 순간적으로 담짝 놀라고 말았다. 78년에 쓴 그 일기에는 그 당시 뒀던 꿈의 내용이 들어있었다. 꿈에서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아래 냇가엔 모래장난을 하며 아이들 셋이 놀고 있었다. 남자애 둘, 여자애 하나였는데 그 중 한애가 '저 사람 우리 외숙모 될 사람이야'했다.

남편과는 창으로 부부의 인연이 있어서일까. 78년 당시 냇가에 살던 큰 시누이는 남자애 둘과 여자애 하나를 두었다. 그때만 해도 난 남편의 이름 석자도 모르고 부산의 모 구청에서 지방공무원으로서 시계추처럼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꿈을 꾸었을까? 우연히 떠둔 꿈의 내용이 8년 뒤 결실을 맺다니. '인연법'에 의한 설명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누가 믿어줄지 모르지만 결혼 전이나 후에도 오랫동안 남편에겐 절이 가지 않았는데 큰 시누이와 그 애들에겐 절로 절이 느껴졌었다.

그날 일기장의 또 한 부분에 눈이 멈추어 멎어질 뻔했다. 그것 역시도 결혼전 썼던 일기로 바른 인연을 만나게 해 달라고 관음정진을 꾸준히 하던 날의 꿈이야기였다. 아니 꿈이 아니라 기도 중의 예시라고 할 수도 있다. 꿈속에서의 난 당시 다니던 절의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아래쪽에서 마주 올라오는 사람들과 부딪쳐 다칠까봐 살짝 피하여 반대편 계단으로 올라섰다. 그때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그림 · 문병성

수많은 군중 속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다. 순간 내 다리에서 하얀 기저귀 두 개가 스르르 풀쳐지더니 그 남자의 다리와 꼭 묶여지는 것이었다. 이 일기장은 지금도 장롱서랍 깊숙히 잘 보관하고 있다. 남편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읽어보면서 소중한 만남과 인연의 의미를 되새긴다.

쌍둥이의 아빠, 나의 남편, 이런 관계가 전생의 어떤 연이 맺게해준 거라면 그것은 만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새롭고 창조적이며 완성된 만남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한다. 완성된이란 말이 잘못된 거라면 후회없고 긍정의 암금이 없는 만남이란 말로 바꾸어 부르겠다.

김정숙(구미시 선산읍 생곡동)

출 판

본 지면은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계신출판및 관련업체의 지원을 위해 마련된 면입니다.

일정기간 계약된 지면은 해당사에서 자율적으로
자사홍보, 출판광고,신간안내등으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규격및단가 이용문의 — 가로 9cm×세로 7cm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 (02)737-8881(代), (02)732-1522(直) F. (02)737-0697



알기 쉬운 문답식
관상 수상학 강의
딱한번 보고 사람을 알수있는 실공 비지니스의 처세술과 운명학
상(相)을 보는법이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생김새의 이치(理致)의 아름다운 선악(善惡)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부귀 빈천의 공적, 그리고 운세상의 길흉을 점문의 생김새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추리하는 원리를 논하는 것이다.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금성B/D TEL 02)921-8434 FAX 02)929-3470



톹比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의 특징
❶ 60권 화엄경 전문(80권) 완역판
❷ 모든 문자들이 읽고 독송하기 좋은 세 한글 번역
❸ 중국 大京山판 60권 화엄경 원문 수록
❹ 화엄경의 이해를 한층 깊게 줄여한 후■원시불교 방식
❺ 상세한 단어 주석과 소제목을 첨부하여 내용 파악이 용이함
❻ 전 12권 1권(10,000원) 단위 판매(신용카드로도 구입 가능) 신청 즉시 택배나 소포로 보내드립니다
전 12권 160,000원
민족사 서울 종로구 창신동 208-1 전화 (02)732-2403~4, 722-7679



선은 신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선은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송대 임제종 황룡계의 선사인 불두스님의 송고집에 관한 해설을 붙여만든 (백암록)은 종문 제일서라 불리며 선서의 왕좌를 차지한다
성철스님께서 "백암록을 읽으면 모든 의문이가 싹 풀어진다."고 격찬한 선서의 백미이다.
살아있는 선
오쇼라즈니쉬 강의/류한창옮김 /값 9,000원
성하출판 TEL 273-6451~2 FAX 273-6450



寺刹文化硏究院
전통사찰총서
① 경기도 1·2
② 강원도 1
③ 서울의 전통사찰
④ 인천·경기도의 전통사찰 II
⑤ 전남의 전통사찰 I
⑥ 전남의 전통사찰 II
⑦ 광주·전남의 전통사찰 III
⑧-⑨ 전북의 전통사찰 I·II
⑩-⑪ 충북의 전통사찰 I·II(근간)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10-1 유진오피스텔 710호
전화 (02)396-5318 팩스 (02)394-6728



염불의 사상, 역사, 실천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한국 최초의 책!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말법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맞는 수행법은 과연 무엇인가!
가장 행하기 쉽고 그 공덕 또한 가장 수승한 수행법!
이 책은 다양한 경문의 증좌와 이론이 정립된 근원, 일관과정 그리고 각각의 공덕등에 대해 수많은 경전과 논사들의 주장을 토대로 고찰하고 있다
이태원 저/신국판 양장 /136쪽 값7,000원
운주사 서울 종로구 창신동 5 TEL 02)720-6372~3 FAX 02)723-0660



꿈에서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I·II·III
현대의 지식인들은 무식해질 필요가 있다.
무식해지고 무식해져서 무식이라는 낱말조차 몰릴 수 없을때 지리가 드러나리라. 스스로 깨우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 내가 알아야 하겠다는 것은 우제된 수준도 안된다
이화여대 성내경 교수의 하룻밤 꿈이야기전3권
1권 깊은 잠이 아니고 또는 오기 아니다 2권 감정없고 위험는 꿈을 찾아서 3권 해석 없이 읽나면 이름은 같다
성내경 지음/각권15,000원
도서출판 중명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82 태수빌딩 201호 전화 636-6873 팩스 636-6874



영혼을 천도하는 연화심
귀신의 병은 100% 낫는다.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기를 통해 자승감로 인도하는 연화심 보살의 영능력 세계
무명한 병명 없이 아픈 사람들이나 신의 내림이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닌 연화심 보살
"기운 모르면 병환을 무슨 우라 입는데 병의 정체로 나타났나다. 현생에서 떠도는 지은 업의 고통 지금에 따라 먹어 마고자 나타나고, 자손에 기자 주라고 떠도는 혼들을 시주세계로 보내주면 공양이 풀어지면서 오르는 방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병은 등이 낫게 됩니다."
김정기 저/신국판 240쪽 /값5,000원
도서출판 창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5호 중앙B/D 전화 3474-3521(영업부) 팩스 3474-3524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일타큰스님의 불교책
부드러운 말 한마디 따뜻한 향이로다 신국판 5,000원
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권으로 엮었다
생활 속의 기도법 문고판 160쪽 3,000원
실생활에서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방법 등을 자상한 법문과 함께 쉬운 문체로 실어 알기 쉽게 엮었다
기 도 신국판 240쪽 5,000원
일타큰스님 직신과 등반 제자 신도들의 기도상의 체험담 모음집
도서출판 표림 전화 (02)587-6612팩스 (02)586-9078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전화를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佛名辭典
우리나라 최초의 불명사전
1,420개의 불명해설 (거사불명 700개, 보살불명 720개)
각 불명이 갖고 있는 뜻을 다양하고 자세하게 해설했다. 아울러 불교의 여러 가지 경전 구절을 곁들여 수록하여 자칫 불명만 심명되어 식상하기 쉬운 사전식의 체제에 다양함을 기여했다.
● 수계식에 대한 설명 수록
명신도를 위한 계(戒)를 받는 의식의 순서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고성혜 엮음 신국판 양장 /319쪽/값20,000원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 전화 02)313-5047/5050 팩스 02)393-9696



정토문고 1 장·수·멸·죄·경
-태아경 천도공양법-
지장과 어머니 지장보살을 통하여 부모의 회임을 빌고 어린영혼을 정토에 태어나게 하는 지비의 가르침
정토문고 3 죽음을 준비합시다
-중음신 천도법-
죽음과 환생의 세계를 비교적 쉬운 삶의 장속에담게 하는 소중한 내용이 역정적이라 보시하면 될다고 입하
죽음과 환생사이의 영혼을 스스로 천도하는 방교의 집도의 핵심적는 가르침
환장여름 /값4,000원
불교출판 連池門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전화 0694)52-1755



불교학 개론, 종교사의 강의록!
명실상부한 종교 입문서!
어느 종교든 그 종교 나름대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것은 존중되어 마땅하다
하지만 주관적시점을 탈피해야는 우리나라의 한 종교당파은 당파를 떠 종교적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빚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러한 사회적 역반작용 최소한으로 줄이고 올바른 종교를 인식하는 입장이로서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펴내게 된 목적이다
이 책의 저자인 동림 스님은 일본 아자와대학 불교과 석·박사를 마치고 현재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에 출강하고 있다
이 외에는 그동안 강의와 법회에서 불교학 개론과 종교사를 공부한 것을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도서출판 여래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가 127번지 대형빌딩2F(1호) 전화 02)730-8976 전송 02)723-6801



화엄큰스님의 祖師西來意 달마도 보급
「손금 패스포트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다. 어떤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아에 선사는 '말알의 잣나무니라'라고 답했습니다. 이 공안을 음미합시다!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가 9년 면벽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화두도 음미합시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한 방편으로 선불교가 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우리를 구제하시는 방편으로 전해주신 공부법도 선불교입니다. 화엄큰스님 달마도를 항상 가까이 두고 공부한 공덕으로 성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 나무 석가모니불 - 제작자 합장
재질 화엄큰스님 달마도 사진 손금 99.9% 크기 5.2cm × 7cm 가격 W20,000
특징 손금을 최대한 살게 펼아 주미니속 지갑속에 넣어다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부다피아 쇼핑몰 TEL.02)732-1522/737-8881 FAX.02)737-0697

부처를 보위하는 자기의 분체 성품을 보자
달마도의 신비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을 열어 해탈을 이르시길 바랍니다.
99.9% 99%UP!

불교음반유통
음반제작/EVENT기획
명상명곡
찬불가
불교음악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4-37 3층 TEL. (02)745-6015 FAx. (02)745-6017

松江企劃



내면의 울림/진리의 소리
송강기획만이 자랑하는 불교의 Menu!
법문
경전
독경
협·찬·사